

한국문학탐방 I

발표 자료집

2015

(4월 2일 ~ 4월 4일)

강원도 동해안 일대

경상북도(일부)

한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한국문학탐방 I

발표 자료집

2015

한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목 차

1. 탐방단 구성 --- 7p
2. 버스 좌석표 --- 8P
3. 방 배정표 --- 10P
4. 답사 일정표 --- 13P
5. 지도 --- 14P
6. 답사 보고서 --- 15P
7. <1조> 박인환 --- 16P
8. <2조> 한용운 --- 24P
9. <3조> 김동명 --- 33P
10. <4조> 허균·난설헌 --- 41P
11. <5조> 김시습 ---51P
12. <6조> 율곡 이이 --- 59P
13. <7조> 정철 --- 67P
14. <8조> <헌화가> --- 75P
15. 참가자 연락처 --- 85P

모범 답사자

평가 및 심사: 인솔교수

<1일차>

우수 소감문 작성자: 안혜린, 박현경, 이수진

<2일차>

우수 소감문 작성자: 이나래, 박지우

메 모 장

한국문학탐방단 구성

전체진행 : 학생회장 (오효석)

발표사회 : 답사부장(이나래)

숙식관리 : 부학생회장 (이지원)

자료집제작 : 편집부장(고은지)

재정 및 진행기록 : 조교 (박예진)

| 조 | 탐방대상 | 조장 | 1학년 | 재학생 |
|----------------|--------|-----|-------------------------|------------------------|
| 1조 | 박인환 | 김연수 | 구현진, 김혜빈, 이윤지, 김용섭, 정해성 | 서채린, 이근재, (이지원) |
| 2조 | 한용운 | 김승만 | 김진경, 이정수, 우정민, 조수현, 박지우 | 이기일, 강윤아, (이나래) |
| 3조 | 김동명 | 안혜린 | 김나연, 김효정, 장은영, 장경석 | 박은지, 유수호, 오효석, (최성은) |
| 4조 | 허균·난설헌 | 강덕원 | 김의영, 이세은, 이예빈, 김진성, 정현아 | 문소윤, 김주민, (박민철), (김태윤) |
| 5조 | 김시습 | 지윤정 | 김나현, 노이지, 이경원, 이준원 | 이소정, 박 현, (양인영) |
| 6조 | 율곡 | 장성은 | 김은비, 송예지, 홍봄희, 구자현 | 박현경, 김상연, 이수진 |
| 7조 | 정철 | 정지은 | 김솔비, 한경은, 주서현, 이제훈, 김강호 | 현진, 김희인, (육소연) |
| 8조 | 헌화가 | 김주형 | 김유나, 박해인, 박지은, 이성규 | 오유나, 고은지, 이하늘 |
| * 인솔관리, 위생 도우미 | | | (김태윤), (최성은) | |

*() : 단순 참가자

■지도 교수 (답사 및 토의 지도)

-1조, 2조 : 이기인 교수님 / -3조, 4조 : 이병기 교수님

-5조, 6조 : 김명준 교수님 / -7조, 8조 : 박슬기 교수님

<배차>

-1호차 : 1조, 2조, 3조, 4조, 이기인, 이병기, 유명희, 박예진, 오효석

-2호차 : 5조, 6조, 7조, 8조, 김명준, 박슬기, 윤 숙, 이지원, 이나래

<준비물>

-공동 준비물 : 캠코더, 카메라, 넷북, 지도, 비상약 등

-개인 준비물 : 의복, 운동화, 자료집, 필기도구, 학생증, 카메라, 우산, 상비약, 세면도구 등

<주의사항>

-답사지에서 발표와 자유 관람을 반씩 진행함

-자유 관람 시 안전을 위해 개인행동도 조별로 실시함

-명찰은 반드시 착용할 것

-교수, 조교, 인솔담당 학생회 임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사고에 주의할 것.

한국문학탐방 좌석배치(1호차)

| 기사님 | | | 계단 | |
|-------------------|-----|--|-------------------|-----|
| 이기인 선생님 | | | 유명희 선생님 | |
| 이병기 선생님 | | | 조교 박예진 | |
| 기획부장 강덕원 (무전기) | | | 학생회장 오효석 (무전기) | |
| 구현진 김혜빈 | | | 이세은 김의영 | |
| 이윤지 김진경 | | | 이예빈 정현아 | |
| 김용섭 정해성 | | | 안혜린 김나연 | |
| 서채린 이기일 | | | 김효정 장은영 | |
| 이정수 우정민 | | | 장경석 김진성 | |
| 조수현 박지우 | | | 이근재 김승만 | |
| 강윤아 박은지 | | | 유수호 김주민 | |
| 김연수 | 문소윤 | | 최성은 (위생) | 박민철 |

한국문학탐방 좌석배치(2호차)

| 기사님 |
|---------|
| 김명준 선생님 |
| 양인영 육소연 |
| 박슬기 선생님 |
| 김나현 노이지 |
| 이소정 현 진 |
| 이경원 김은비 |
| 이준원 구자현 |
| 지윤정 정지은 |
| 김유나 박해인 |
| 박 현 김상연 |

| 계단 |
|-----------------------|
| 부학회장 이지원 (무전기) |
| 답사부장 이나래 이수진 (무전기) |
| 대학원생 윤숙 |
| 김희인 고은지 |
| 송예지 박지은 |
| 홍봄희 김솔비 |
| 한경은 주서현 |
| 이제훈 김강호 |
| 오유나 박현경 |
| 이성규 장성은 |

| | | | | |
|--|-------------|--|-----|-----|
| | 김태윤 (위생) | | 이하늘 | 김주형 |
|--|-------------|--|-----|-----|

한국문학탐방 방 배정표

1일차 대명콘도 쏘비치 (양양)

2일차 씨스포빌 리조트 (삼척)

남학생 1실 - (204 / 203) 호

| 재학생 | | 신입생 | |
|-----|----------|-----|-----|
| 학번 | 이름 | 학번 | 이름 |
| 10 | 오효석 (방장) | 15 | 김용섭 |
| 11 | 장성은 | 15 | 김진성 |
| 14 | 유수호 | 15 | 우정민 |

남학생 2실 - (207 / 206) 호

| 재학생 | | 신입생 | |
|-----|----------|-----|-----|
| 학번 | 이름 | 학번 | 이름 |
| 11 | 이근재 (방장) | 15 | 이성규 |
| 11 | 김주형 | 15 | 이정수 |
| 14 | 김주민 | 15 | 정해성 |
| 14 | 김상연 | | |

남학생 3실 - (301 / 201) 호

| 재학생 | | 신입생 | |
|-----|-----|-----|-----|
| 학번 | 이름 | 학번 | 이름 |
| 08 | 최성은 | 15 | 이제훈 |
| 11 | 강덕원 | 15 | 이준원 |
| 11 | 박민철 | 15 | 장경석 |
| 11 | 이하늘 | | |

남학생 4실 - (102 / 204) 호

| 재학생 | | 신입생 | |
|-----|----------|-----|-----|
| 학번 | 이름 | 학번 | 이름 |
| 09 | 김태운 (방장) | 15 | 구자현 |
| 11 | 김승만 | 15 | 김강호 |
| 13 | 박 현 | | |

여학생 1실 - (105 / 205) 호

| 재 학생 | | 신입생 | |
|------|----------|-----|-----|
| 학번 | 이름 | 학번 | 이름 |
| 13 | 육소연 (방장) | 15 | 구현진 |
| 14 | 박현경 | 15 | 김나연 |
| 14 | 이소정 | 15 | 김나현 |

여학생 2실 - (106 / 202) 호

| 재 학생 | | 신입생 | |
|------|----------|-----|-----|
| 학번 | 이름 | 학번 | 이름 |
| 13 | 이수진 (방장) | 15 | 김솔비 |
| 13 | 양인영 | 15 | 김유나 |
| 14 | 서채린 | 15 | 김은비 |

여학생 3실 - (107 / 212) 호

| 재 학생 | | 신입생 | |
|------|----------|-----|-----|
| 학번 | 이름 | 학번 | 이름 |
| 13 | 이나래 (방장) | 15 | 김의영 |
| 14 | 안혜린 | 15 | 김진경 |
| 14 | 현 진 | 15 | 김혜빈 |

여학생 4실 - (108 / 214) 호

| 재 학생 | | 신입생 | |
|------|----------|-----|-----|
| 학번 | 이름 | 학번 | 이름 |
| 13 | 문소윤 (방장) | 15 | 김효정 |
| 14 | 오유나 | 15 | 노이지 |
| | | 15 | 박지은 |

여학생 5실 - (109 / 215) 호

| 재 학생 | | 신입생 | |
|------|----------|-----|-----|
| 학번 | 이름 | 학번 | 이름 |
| 13 | 정지은 (방장) | 15 | 박해인 |
| 14 | 이기일 | 15 | 송예지 |
| | | 15 | 이세은 |

여학생 6실 - (110 / 216) 호

| 재학생 | | 신입생 | |
|-----|----------|-----|-----|
| 학번 | 이름 | 학번 | 이름 |
| 13 | 김연수 (방장) | 15 | 이예빈 |
| 14 | 강윤아 | 15 | 이윤지 |
| | | 15 | 장은영 |

여학생 7실 - (202 / 222) 호

| 재학생 | | 신입생 | |
|-----|----------|-----|-----|
| 학번 | 이름 | 학번 | 이름 |
| 13 | 지윤정 (방장) | 15 | 정현아 |
| 13 | 이지원 | 15 | 주서현 |
| 14 | 김희인 | 15 | 한경은 |

여학생 8실 - (203 / 223)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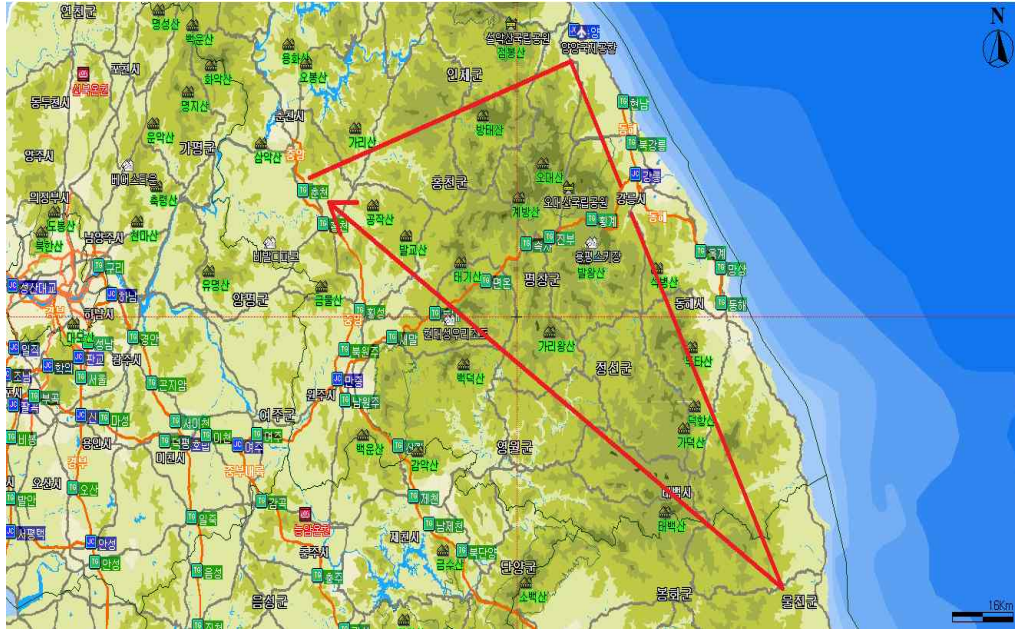
| 재학생 | | 신입생 | |
|-----|----------|-----|-----|
| 학번 | 이름 | 학번 | 이름 |
| 14 | 고은지 (방장) | 15 | 홍봄희 |
| 14 | 박은지 | 15 | 박지우 |
| | | 15 | 이경원 |
| | | 15 | 조수현 |

《 2015학년도 답사 일정표 》

※ 강원도 동해안 일대 : 1일차 (인제, 양양) / 2일차 (강릉, 삼척) / 3일차 (경북 울진, 삼척, 동해)

| | 1일차 04.02(목) | 2일차 04.03(금) | 3일차 04.04(토) |
|-----|---|---|--|
| 08시 | 40 학교 집합 | 30 숙소 출발 45 식당 도착(식사 45분) | 00 식사 |
| 09시 | 10 학교 출발 | 30 식당 출발 | 00 숙소 출발 |
| 10시 | 15 박인환문학관 도착(45분) <u><1 > 발표: 박인환</u> | 15 김동명 문학관 도착(35분) <u><3조> 발표: 김동명</u> 50 김동명 문학관 출발 | 00 망양정 도착(30분) <u><7조> 발표: 정철</u> 30 인원점검 및 출발 |
| 11시 | 00 인원점검 및 출발 20한국시집박물관 도착(35분) 55 인원점검 및 출발 | 05 허균·난설헌기념관(50분) <u><4조> 발표: 허균·난설헌</u> 55 허균·허난설헌기념관 출발 | 30 죽서루 도착(관람 20분) <u>※단체사진</u> 50 인원점검 및 출발 |
| 12시 | 00 식당 도착(식사 50분) 50 인원점검 및 출발 | 02 식당 도착(식사 40분) 42 식당 출발 45 김시습 기념관 도착(45분) <u><5조> 발표: 김시습</u> | 00 식당도착(식사 40분) 40 인원점검 및 출발 |
| 13시 | 20 백담사 도착(60분) <u><2조> 발표: 만해 ※단체사진</u> | 30 김시습 기념관 출발 35 오죽헌 도착 (65분) <u><6조> 발표: 율곡 ※단체사진</u> | 00 해가사의 터 도착(30분) <u><8조> 발표: 현화가</u> 30 인원점검 및 출발 45 촛대바위(45분) |
| 14시 | 20 백담사→주차장 출발 50 인원점검 및 출발 | 40 인원점검 및 출발 45 경포대 도착(60분) | 20 인원점검 및 출발 |
| 15시 | 50 낙산사 도착(60분) | 45 인원점검 및 출발 | 20 평창휴게소(20분) |
| 16시 | 55 인원점검 및 출발 | 55 숙소 도착 | |
| 17시 | 05 숙소 도착 55 인원점검 및 출발 | | 20 학교 도착 |
| 18시 | 10 식당 도착(식사 50분) | 00 인원점검 및 출발 20 식당 도착(식사 50분) | |
| 19시 | 00 식당 출발 15 숙소 도착 30 소감문 작성(조별) | 10 식당 출발 25 숙소 도착 40 소감문 작성(조별) | |
| 20시 | 30 조별토의 · 소감문제출 | 30 조별토의 · 소감문제출 | |
| 22시 | 개인정비 및 취침 | 개인정비 및 취침 | |
| 숙식 | 중식: 원진하우스(산채비빔밥) 석식: 동거동락 (능이버섯불고기전골) | 조식: 동거동락(갈비탕) 중식:옛날초당순두부(순두부) 석식: 감나무 (감나무정식:수육+생선) | 조식: 씨스포빌 리조트 (황태해장국) 중식: 감나무 (김치찌개 백반) |
| | 썰비치 리조트 | 씨스포빌 리조트 | |

<답사 여정>



<답사 보고서> (일일 제출용)

※ 답사 참가자는 답사 보고서를 1매씩 작성하여 조장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 조장은 조원들의 답사지를 모아 매일 21시까지 답사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 | | | | | |
|--------------------------------|------|--------|--|--------|-------|
| 조 | | 학 번 | | 이 름 | |
| 답사지 | 관찰내용 | | | | 특기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상】 | | | | | |
| | | | | | |
| 【발표 내용, 답사 일정 등에 관한 의견】 | | | | | |
| | | | | | |

1조- 박인환

1. 박인환 연보

20131109 김연수

- 1926년 8월 15일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상동리 159에서 부 밀양 박씨 광선(光善)과 모 양근 함씨 사이의 3남매 중 장남으로 출생.
- 1933년 (7세) 인제공립보통학교 입학.
- 1936년 (10세) 덕수공립보통학교 4학년 전학.
- 1939년 (13세) 덕수보통학교 졸업.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 입학.
- 1941년 (15세) 중학 2학년 때부터 시를 짓기 시작함.
- 1945년 (19세) 경성제일고보 졸업. 평양의전 입학. 8·15광복을 맞음과 함께 평양의전 학업 중단. 종로 2가와 3가 사이의 '마리서사'라는 서점을 경영. 이때부터 김기림, 오장환, 김광균 등을 알게 되고 김경린, 김수영, 김병욱 등과 어울림.
- 1946년 (20세) 시 「거리」 등 발표.
- 1947년 (21세) 시 「군상」 등 발표. 자유신문 문화부 기자. 「아메리카영화시론」(신천지)을 발표하면서부터 이후 신문, 잡지 등에 많은 영화평을 씀. 그의 시 발표지는 자유신문, 『신천지』 등이었음.
- 1948년 (22세) 시 「나의 생애에 흐르는 시간들」(세계일보 1월 1일자), 「일곱 개의 층계」 등 발표. 4월, 진명 출신의 이정숙(李丁淑)과 결혼. 장남 세형(世馨) 출생.
- 1949년 (23세) 5인 합동시집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 간행. 여기에 초기시 「열차」, 「지하실」, 「인천항」, 「인도네시아 인민에게 주는 시」 등을 수록. 김경린, 임호권, 김수영, 양병식 등과 함께 김기림 이후의 모더니즘 일파로 각광을 받음. 동인지 『시와 시론』 1집 간행. 경향신문 사회부 기자.
- 1950년 (24세) 장녀 세화(世華) 출생. 시 「유엔군을 환영하는 노래」를 씀.
- 1951년 (25세) 부산시 광복동, 대청동 등지에서 피난생활, 종군기자. 시 「고향에 가서」, 「살아있는 것이 있다면」 등 발표. 『후반기(後半期)』 동인.
- 1952년 (26세) 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할 때」 등 발표.
- 1953년 (27세) 환도. 시 「1953년의 여자들에게」 등 발표.
- 1955년 (29세) 대한해운공사 입사. 3월, 남해호에 승선, 미국에 다녀옴. 『박인환시선집』(산호장) 간행, 「목마와 숙녀」 등 56편 수록. 「육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번역. 시공관에서 공연(실험).
- 1956년 (30세) 3월, 시 「세월이 가면」을 씀. 3월 20일 하오 9시 음주 귀가 후 심장마비를 일으켜 30세를 일기로 사망함. 시인장으로 망우리 묘지에 묻힘.

《참고문헌》

김용성, 『한국현대문학사탐방』, 국학자료원, 2011, pp.598-599

2. 박인환 일화

20151113 김혜빈

1. 박인환의 멋과 연인.

‘어디 멋있는 친구가 있어야지!’ 박인환은 멋 번이고 ‘멋’을 강조하고는 했다. 그러나 그는 멋만을 찾아 살려고 했기 때문에 경영하던 마리서사라는 서점의 자본을 다 날려버리고 놀고 있었다. ‘나는 아무런 미련도 없어.(중략) 그 때 손님으로 찾아왔던 정숙을 알게 되어 그녀를 사랑하게 되고, 마침내는 약혼까지 하게 되었으니, 서점에서 보석을 얻은 셈이지.’ 그는 물질보다는 우정을, 그리고 사랑을 얻은 것을 무척 행복하게 생각했다.



2. 피난 후 부산에서의 생활

“거꾸로 쓰니까 시가 되더군! 규동, 자네도 한번 해봐. 마지막행부터 쓰거든. 재미있어!”

박인환의 거꾸로 시를 쓰는 습관은 논리와 폭발하는 시적 효과를 노려서다.

밤의 노래(부분)
내 가슴의 운석에 갈았아 버린다.
선을 그리며
그것이 가끔 교회의 종소리에 합쳐
달려오는 전파
고막을 깨뜨릴 듯이

3. '목마와 숙녀' 그 안에 숨겨진 박인환의 일화

박인환이 목마와 숙녀를 쓸 때 영향을 미친 것은 버지니아 울프(영국 소설가 겸 비평가)이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비극적인 삶을 마감한 울프의 삶을 자신의 처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져버린 상황을 아파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시 행에서도 나타나듯이 “눈을 뜨고 한 잔의 술을 마”시면서 나름대로 적극성을 띠고 새로운 다짐과 결의를 다시 다졌다고 한다.

목마와 숙녀(부분)
그저 가슴에 남은 희미한 의식을 붙잡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서러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두 개의 바위틈을 지나 청춘을 찾은 뱀과 같이
눈을 뜨고 한 잔의 술을 마셔야 한다

4.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세월이 가면’의 뒷이야기.

1956년 명동에서 박인환이 여러 문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취기가 오르자 일행은 나애심(가수)에게 노래를 청했다. 그러나 그는 마땅한 노래가 없다며 거절했다. 이 때 박인환이 종이를 꺼내더니 즉석에서 시를 지었고 완성된 시를 보고 나애심이 노래를 불렀다.

세월이 가면(부분)
사랑은 가고/파거는 남는 것
(중략)내 가슴에 있어/내 서늘한 가슴에 있것만

《참고문헌》

맹문재, 「박인환 깊이 읽기」 서정시학, 2006

박인환, 「목마와 숙녀」 미래사, 1991

홍윤기, 「한국 현대 詩」 한림출판사, 1993

3. 박인환의 작품 활동

20151102 구현진

박인환은 1942년 2월 <국제신보>에 작품 「거리」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1948년 4월 박인환은 평소 교류했던 시인들과 함께 ‘신시론’이라는 동인지를 냈다. 비록 16쪽밖에 되지 않는 책이었지만 문단에서 꽤 주목을 받았다. 박인환과 ‘신시론’의 멤버들은 모더니즘을 중시했다. 1년 뒤 박인환과 ‘신시론’의 멤버들은 합동시집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을 냈는데 그 작품으로 그는 모더니즘 시인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그의 작품에 있어서 6.25전쟁은 그의 작품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문우들과 ‘후반기’라는 동인을 결성해 활동했으나 그들의 활동작품을 엮은 첫 번째 동인이 나오기도 전에 6.25전쟁이 발발되어 동인지 발행이 무산되었다. 6.25전쟁을 겪으면서 종군 작가단에 참가하게 된 그는 전쟁터의 처절한 모습을 그 누구보다 생생하게 목격하게 되었다. 그는 전쟁의 잔혹함과 그에서 오는 절망감, 허무감을 느꼈고 그 경험을 계기로 전쟁의 비참함을 다룬 허무주의적 시를 썼다. 그 당시 그가 쓴 작품으로는 「검은 신이여」, 「한 줄기 눈물도 없이」 등이 있다.

「검은 신이여」는 ‘검은 신’에게 마치 절규하듯 계속 물음을 던지며 이어져 나가는 시로서 박인환의 절망감을 잘 보여준 작품이며, 「한 줄기 눈물도 없이」 역시 전쟁의 비극을 잘 보여 주어 주목을 받았다. 이렇듯 그가 전쟁을 겪으면서 쓴 시에 나타난 그 허무함과 우울감은 그의 시의 특징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전쟁이 이어지고 있던 1951년 10월 부산으로 거처를 옮긴 그는 문인들과 끊임없이 교류했다. 이 무렵부터 박인환을 비롯한 여섯 명의 문인들은 주로 <주간국제>에 시를 발표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들 여섯 명은 ‘후반기’ 동인을 다시 부활시켜 활동했으나 이 역시 예전처럼 별 성과 없이 조기 해체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시에 대해 끊임없이 회의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개선해나가려 했다. 그 점에서 그들은 당시 50년대의 문학적 발전에는 기여를 하지 못했지만 60년대의 문학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

1953년 동인단체 ‘후반기’ 해체 후 명동으로 돌아온 그는 꾸준히 시를 썼다. 명동에서의 그의 작품 활동에서는 전쟁에 의한 상실감과 허무감은 물론 문명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의식까지 더해졌다. 특히 이 시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죽음에 대한 강박관념이 드러난 시를 많이 썼는데 ‘장송곡’, ‘사자(死者)’등 죽음을 연상시키는 무거운 단어들을 쓴 「밤의 미매장(未埋葬)」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말년의 박인환은 절망감과 허무를 그려낸 「목마와 숙녀」를 집필했다. 「목마와 숙녀」는 그의 작품 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박인환의 허무주의를 가장 잘 드러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사망하던 1956년에도 펜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이 때 나온 작품이 「세월이 가면」이다. 도시적이고 서성적인 이 시는 6.25 이후 그의 작품에 있었던 허무감이나 절망감도 찾아볼 수 없다. 사랑의 추억이 주제이기에 슬픔과 허무함으로 가득한 기존의 그의 작품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이 작품은 「목마와 숙녀」와 함께 박인환의 대표작으로 기억되고 있다.

《참고문헌》

이동하, 「박인환 평전·논집」, 문학세계사, 1993, pp.21-25, pp.30-39, pp.45-48, pp.52-54, pp.62-79, pp.165-172, pp.222-230, pp.247-249

4. 박인환의 작품세계

20151141 정해성

박인환은 6·25를 전후한 한국시의 모더니즘적 추구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인물로서 도시·서구·문명에 관한 이미지를 시에 자주 사용하였다. 그는 시어의 맛을 중시했고, 시에서 개인의 감정을 토로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었다.

그는 당시 기계의 확산으로 인해 물질이 사람보다 중시되는 비인간화 현상의 심화 등과 같은 가치전도현상의 팽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전쟁을 통한 동족상잔에 깊은 회의감을 드러내었으며 기존 문학 전통에 대한 일탈의지 등이 뒤엉킨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자아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따라서 그의 시는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에서 오는 회의와 절망감, 신이라는 절대적 존재의 죽음을 통한 강한 좌절의식, 서구적 취향의 기행, 그리고 전쟁의 비정함과 파멸감을 노래하였다. 이러한 측면으로 인해 그의 시적 자아는 도시문명에 대한 회의와 좌절감에 의해 애상적인 분위기를 띄고 있었다. 특히 6·25를 기점으로 시의 분위기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났다.

6·25 전에는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이 주가 되었다. 1946년에 시 <거리>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한 그는 이후 시 <납품>과 <신천지>를 발표하였다. 이 시들에서 서구의 말을 시어로 사용해 젊은 감각을 느끼게 해주었다. 1949년 그가 중심이 된 『신시론』¹⁾ 동인은 현실에 대한 과학적 통찰과 신선한 이미지의 생성, 시민 정신을 추구하여 도시 문명의 폐해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그는 통속적인 것은 거부하고 서구의 것은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졌었다. 이러한 태도로 인해 때문에 그의 작품은 대한 과학적 통찰이나 신선한 이미지의 생성과 같은 것들은 성공적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6·25 전쟁 발발 이후의 1950년, 그가 중심이었던 『후반기』 동인은 일반인에게는 전쟁을 겪은 세대의 전쟁에 대한 감각을, 문학인들에게는 전쟁 상황에 대한 문학적 자각을 일깨웠다. 전쟁 후에 그의 작품은 도시 문명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되어 공허함과 좌절감을 느끼는 허무주의적 색채로 변화하였다. 1955년에 발표된 그의 대표작 <목마와 숙녀>를 보면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보다는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된 작가의 허무함과 좌절감등을 관찰할 수 있다.

결국, 박인환의 작품세계는 6·25를 전후로 해서 나뉜다. 6·25 전의 작품은 서구의 말을 시어로 사용해 도시·현대적 세계를 표현하여 젊은 감각을 표현하면서도 문명을 비판하는 태도를 강하게 드러내는 모더니즘적 성향이다. 그러나 6·25 후의 작품은 전쟁의 참혹함으로 인해 도시 문명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허무함과 좌절감이 나타나는 허무주의적 성향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이동하, 「박인환 평전 : 목마(木馬)와 숙녀(淑女)와 별과 사랑」, 문학세계사, 1986, pp.29-56

박명용, 「한국 현대시 해석과 감상」, 글벗사, 1986, pp.426-428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 『신시론』: 김경린, 박인환, 김수영, 양병식, 임호권, 김병욱 등이 모여 1949년에 사화집(詞華集)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을 펴낸 모더니즘 지향의 시 문학 동인지.

5. 대표 작품 및 분석

20151124 이윤지

목마와 숙녀

박인환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목마는 주인을 버리고 그저 방울 소리만 울리며
가을 속으로 떠났다 술병에서 별이 떨어진다
상심한 별은 내 가슴에 가벼웁게 부서진다
그러한 잠시 내가 알던 소녀는
정원의 초목 옆에서 자라고
문학이 죽고 인생이 죽고
사랑의 진리마저 애증의 그림자를 버릴 때
목마를 탄 사랑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세월은 가고 오는 것
한때는 곁을 피하여 시들어 가고
이제 우리는 작별하여야 한다
술병이 바람에 쓰러지는 소리를 들으며
늙은 여류작가의 눈을 바라다보아야 한다
.....등대에.....
불이 보이지 않아도
그저 간직한 폐시미즘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처량한 목마 소리를 기억하여야 한다
모든 것이 떠나든 죽든
그저 가슴에 남은 희미한 의식을 붙잡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서러운 이야기를 들어
야 한다
두 개의 바위 틈을 지나 청춘을 찾은 뱀과 같이
눈을 뜨고 한 잔의 술을 마셔야 한다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그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늘
한탄할 그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는 떠나는 것일
까
목마는 하늘에 있고
방울 소리는 컷전에 철렁거리는데
가을 바람 소리는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 목메어 우는데

박인환의 첫 시집이자 생전에 발간된 유일한 시집인 「박인환선시집」에 수록된 ‘목마와 숙녀’는 그의 20주기 시집의 표제

로 사용될 만큼 박인환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박인환의 시풍은 ‘인천항’, ‘인도네시아 인민에게 주는 시’, ‘남풍’과 같이 탈식민주의나 탈자본주의가 드러나는 초기작과 한국 전쟁 이후의 불안, 죽음의 이미지, 허무주의 등이 드러나는 후기작으로 나뉜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목마와 숙녀’다.

위 작품에서는 ‘버리고’, ‘떠났다’, ‘떨어진 다’, ‘죽고’, ‘보이지 않는다’, ‘시들어가고’ 등의 시어를 통해 시대적 상황에 의한 불안과 떠나가 버린 것에 대한 애상, 허무함을 모더니즘 시인답게 도시청년의 시선으로 노래하고 있다.

또한, 위 작품에서는 상징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목마’는 불안과 허무의 시대상을, ‘숙녀’는 정신질환 증세를 보인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 비극적 생애의 주인공인 영국작가 버지니아 울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시에서는 죽음을 택할 정도로 힘들었던 그녀의 삶을 통해 당시의 한국과 시인의 절망적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박인환은 위 작품에서 감각적 표현도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방울소리’, ‘술병이 바람에 쓰러지는 소리’, ‘가을 바람소리’ 등 청각적 심상이나, ‘애증의 그림자’와 같이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형식면에서는 산문체이면서도 리듬감 있는 구성을 취하고 있어 독자와의 공감도를 높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오문석, 「박인환 위대한 반항과 우울한 실존」, 글누림 2011, p.14,p.17, p.84
박명용, 「한국 현대시 해석과 감상」, 글벗사, 2000, p.427
홍윤기, 「한국 현대시 이해와 감상」,한림출판사, 1987,

6. 박인환의 문학사적 의의

20141124 서채린

김기림으로부터 모더니즘의 유망 시인으로 찬사를 받았던 박인환은 광복 후 혼란의 소용돌이와 전란의 황폐 가운데서 문학에 대한 매서운 검열을 의식하며 자신만의 시를 써냈다. 6·25 사변이라는 비극적인 시대상황 속에서 박인환은 전란의 혼란과 위기의식을 상징적 수법을 통해 도시적 서정시로 노래함으로써 모더니즘의 젊은 시인으로 각광받았다. 그의 정신 세계는 결코 암흑에 그치지 않았으며, 전후의 피폐한 상황을 넘어 희망과 온정에 대한 향수를 노래했다. 전후세계에 대한 그의 시는 인생을 위한 예술적 고뇌를 담고 있다. 박인환은 신선한 언어와 감각을 시의 전면에 내세웠으며 도시적이면서도 인간적이라는 것에 공감을 불러일으킨 “날카로운 모더니스트”였다. 그는 서구적인 현대시를 한국적 정서에 맞게 토착화하는 데 노력하였으며 이는 서구 또는 1930년대의 모더니즘과는 차별화되어 한국적 모더니즘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박인환의 시가 한국 시문학사의 흐름을 이어가는데 중대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박인환은 시를 쓴다는 것을 그 시대 생활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그 자신이 지도자도 정치자도 아닌 것을 잘 알면서도 사회와 싸워나갔다. 그것이 비록 패배주의적 감상으로 흐르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그 나름대로 의의 있는 일이었다. 그는 1950년대의 도시적인 구조나 어지럽게 얽혀있는 의식의 체계를 드러냄으로써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고, 시의 지평을 보다 넓힐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시인 박인환은 전후세계 속에서 따뜻한 사랑으로의 회귀에 대한 갈망을 전면적으로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비인간화로 변질된 현대 문명의 위기와 불안 의식을 세련된 감각으로 근심과 걱정을 노래했다는 점에 있어서 현재까지 높이 평가받고 있다. 도시화된 정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도, 비인간적으로 변질된 현대 문명에 대해 꾸준히 비판을 한 박인환의 시들은 모더니즘의 정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혼돈과 무질서, 절망만이 가득했던 해방과 전쟁 공간 속에서 당대의 현실에 나름대로 자신의 이념을 가지고 대응한 박인환은 그 시대 문학사를 대변하고 있다.

《참고문헌》

- 박명용, 『한국 현대시 해석과 감상』, 글벗사, 1991
- 홍윤기, 『한국 현대시 이해와 감상』, 한림출판사, 1987
- 김용성, 『한국현대문학사 탐방』, 국학자료원, 2011
- 박현수, 「전후 비극적 전망의 시적 성취-박인환론」, 국제어문 제 37집, 2006
- 박몽구, 「박인환의 도시시와 1950년대 모더니즘」, 한중인문학연구 제 22집, 2007
- 양일웅, 『朴寅煥詩研究(박인환시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1994

7. 유적지 - 박인환의 흔적

20111130 이근재

시비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 좋은 시를 남기고 31세의 젊은 나이에 운명한 박인환 시인을 기념하기 위해 1988. 10. 29 인제읍 남북리 아미산공원에 시비를 건립하였으나 국도터널공사에 의해 1998. 6. 20 현재의 합강정 소공원에 이전·건립하였다.



▲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에 있는 합강정 정자

▲ 박인환문학관

강원도 인제읍 상동리 415에 위치한 박인환문학관에는 시인박인환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안을 보면 여러 가지의 박인환 인생이 보인다.

마리서사'는 박인환이 스무 살 무렵 종로에 세운 서점이다. 18세에 부모님의 뜻에 따라 평양의학전문학교에 입학했지만, 이듬해 자퇴한다. 그리고 19세에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지금의 종로 낙원동에 서점을 열었다.

마리서사 옆에는 선술집 '유명옥'이 있다. 김수영, 박인환, 김경린 등 서정성 짙은 청록파와 전통적 자연 예찬등에 대한 반발과 좌우익 대립에 따른 불안 등을 이야기한 곳으로 동인지 신시론 제1집 발간의 밑거름이 된 곳이라 한다.



▲ 선술집 유명옥(김수영 모친의 가게)

▲ 마리서사

《참고문헌》

인제군청: www.inje.go.kr

문화재청: www.cha.go.kr

네이버: <http://9594jh.blog.me/220237258843>

8. 박인환 업적 퀴즈

20151106 김용섭

1. 박인환이 태어난 장소와 시간은?

정답 :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상동리 159번지 /1926년 8월 15일

2. 박인환이 처음으로 문단에 발표한 시는?

정답 : 1946년 <국제신보>에 '거리'를 발표함으로써 시인으로 데뷔.

3. 박인환이 당대의 여러 시인들과 교류를 위해 개업한 서점의 이름은?

정답 : 박인환은 1945년 종로에 '마리서사'를 개업하여 당대의 동인, 문학도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였으며 1948년 봄 '마리서사'를 폐업할 때 까지 그의 활동의 중심이 되었다.

4. 박인환이 김수영, 임호권, 양병식, 김정린 등과 함께 발간한 합동 시집의 이름은?

정답 : 박인환은 1949년에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이라는 합동시집을 간행하기도 했다.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에 기고된 시는 서구 모더니즘을 추구한 것보다는 시대와 역사에 대한 대항의식이 분명한 것들이라고 평가된다.

5. 박인환의 작품들이 6.25 전쟁을 기준으로 나뉘는 이유는?

정답 : 박 인환은 6.25 전쟁 이전에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우익에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6.25전쟁이 터진 후 당시 피난을 가지 못하고 서울에 남았다. 또한 1.4 후퇴 때 남행을 한 후 경향신문의 기자로 있었으며 종군작가 단으로 참여하면서 전쟁의 참혹성과 처절한 모습을 직접 생생하게 목격한 영향이 크다. 이후 그의 작품은 전체적으로 허무주의를 띄게 된다.

6. 박 인환의 대표작인 '목마와 숙녀'에서 목마와 숙녀가 각각 의미하는 것은?

정답 : '목마'는 불안과 허무의 시대상을, '숙녀'는 자살로 생을 마감한 비극적 생애의 주인공인 버지니아 울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7. 박 인환이 대표작 '목마와 숙녀'를 집필할 당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은?

정답 : 박인환이 목마와 숙녀를 쓸 때 영향을 미친 것은 버지니아 울프(영국 소설가 겸 비평가)이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비극적인 삶을 마감한 울프의 삶을 자신의 처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참고문헌》

맹문재, 『박인환 깊이 읽기』, 서정시학, 2006, pp.16-39, pp.358-361

이동하, 『牧馬와 淑女와 별과 사랑』, 문학세계사, 1986, pp.15-80, pp.253-254

김용성, 『한국현대문학사탐방』, 국학자료원, 2011, pp.591-598

2조- 한용운

1. 한용운의 생애

20141129 이기일

만해 한용운은 1879년(고종 16년) 8월 29일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 491번지에서 아버지 한응준과 어머니 온양 방씨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본관은 청주 한씨, 법명은 용운(龍雲), 법호는 만해〔萬(卍)海〕이다. 향리에서 한문을 배웠으며, 17세 때에는 아버지, 형과 더불어 동학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1892년 고향에서 천안 전씨와 결혼했다.

1897년 19세 되던 해에 무작정 집을 나와 강원도 인제군 설악산 백담사 등지를 전전하다가 설악산의 오세암으로 갔다. 처음에는 절의 땀감을 해오는 머슴으로 일하다가 나중에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 그러나 ‘절집’의 협소함은 그의 뻗쳐오르는 세계에 대한 관심과 모험심을 충족시키기 어려웠다. 그는 개화 문물과 개화 사회에 대한 호기심과 모험심을 채우기 위해 오세암을 나와 시베리아와 만주 등을 돌아다녔다. 1904년 봄, 그는 다시 고향인 홍성으로 내려가 수개월 동안 머물렀다.

1905년 27세 때 그는 다시 입산하여 설악산 백담사에서 연곡스님을 은사로 하여 정식으로 득도했다. 백담사에서 그는 거의 독학으로 대장경을 익히며 한문으로 된 불경들을 한글로 옮기는 작업에 착수했다. 1909년에 집필을 시작해 1910년에 탈고하여 1913년 회동서관에서 발간된 『조선불교유신론』은, 불교 근대화라는 명목으로 일본 불교의 영향을 주체성 없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조선총독부가 사찰령을 공포하여 불교 통제를 공공연하게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교의 교학, 제도, 의식 전반에 걸친 개혁방안을 제시한 책으로 주목받았다.

1910년 대륙 진출의 전초기지를 삼기 위해 조선을 넘보던 일제에 의해 강제병합이 되자 한용운은 국치의 울분을 이기지 못해 중국으로 건너갔다. 그는 만주지방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독립군의 훈련장을 방문하며 독립정신과 민족혼을 심어주는 일에 전력하였다. 그러다가 독립군들에게 정탐하러 온 자로 오인되어 네 발의 저격을 받고 수술 후 달포 만에 회복되었으나, 탄환을 모두 꺼내지 못하여 평생 체머리를 흔들게 되었다. 1914년에는 『불교대전』을 범어사에서 발행하였다. 1917년 밤 10시쯤 오세암에서 좌선하던 중 바람에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진리를 깨쳐 「오도송」을 남기기도 하였다.

1918년 월간지 『유심(惟心)』을 창간하여 편집인 겸 발행인이 되었으며 1919년에는 3·1운동을 주도하고 최남선이 작성한 「독립선언서」의 독립선언문을 기초하는 자리에서 최남선과 의견 충돌이 있었다. 만해는 내용이 좀 더 과감하고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결국 마지막의 행동강령인 ‘공약 3장’을 더 삽입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3·1운동 당시 33인을 대표하여 독립선언 연설을 하고 투옥될 때에는 변호사, 사식, 보석을 거부할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서대문형무소에서 독립선언 서명자들이 법정에서 차례로 신문(訊問)을 받을 때, 선생은 일체 말을 하지 않고 지필을 받아 옥중에서 「조선독립의 서」를 썼다. 53장의 논문을 옥중에서 참고 서적이거나 자료 하나 없이 완성할 만큼 독립에 대한 만해의 신념은 확고했던 것이다. 1920년 투옥 중 일제가 3·1운동을 회개하는 참회서를 써내면 사면해주겠다고 회유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불후의 시집 『님의 침묵』은 1926년 5월 20일 회동서관에서 발행했다. 1927년 신간회

중앙 집행위원 겸 경성지회장에 뽑히기도 하였다. 1943년 창씨개명과 조선인 학병의 출정을 반대하는 연설을 하기도 하였으며, 일체의 배급을 거부하며 영양실조가 되었던 만해는 1944년 6월 29일 심우장에서 홀연히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의 나이 66세, 안타깝게도 해방되기 한 해 전이었다.

《참고문헌》

한용운, 『선생님과 함께 읽는 한용운』, 실천문화사, 2004, pp.233-237

2. 한용운의 업적

20141101 강윤아

만해 한용운의 업적은 크게 승려로서의 업적, 시인으로서의 업적, 민족주의자로서의 업적으로 세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첫 번째 승려로서의 업적은 한용운이 승려가 되고나서부터 이루어진다. 한용운은 승려가 되고 1908년 5월부터 일본으로 건너가 넓은 문물을 보고 불교와 서양철학을 공부하였다. 그는 근대 사상과 견문을 통해서 모든 체험과 인식을 담아 「조선불교유신론」을 썼다. 1913년에 출판된 「조선불교유신론」은 당시 조선불교의 낙후성을 타개하고 실천을 하게 하려는 내용으로 조선 불교의 현실을 비판하였다. 불교 자체의 진리와 그 현대적 의의를 옳게 담아내고 조선 불교의 현실을 올바르게 본 작품이다. 이 「조선불교유신론」이 기존 불교의 현상을 이론적으로 비판했다면, 1920년대 및 30년대에 발표된 논설들은 식민지 현실에 있어서 어떻게 불교의 타락을 극복하고 이상을 실천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사회의식은 더 심화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두 번째 민족주의자로서의 업적은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작된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족의식이 고취되면서 여러 노동 운동과 농민 운동이 나타남에 따라 불교계에서도 여러 조직이 결성되었고, 만해는 이 운동들의 배후에서 운동의 노선을 제시하고 활동의 지침을 지도적으로 이끌었다. 특히, 1930~1940년경까지 발행한 《불교》에 발표된 많은 논설들은 거의 반세기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효력을 잃지 않은 지침적 의의를 지닌다.

최남선이 처음 만든 「을미독립선언서」를 검토한 한용운은 공약 삼장을 첨가하고, 3월 1일 경성 명월 관에서 민족 대표 33인을 대신해 만세삼창을 선창한다. 또, 감옥에서 「조선독립이유서」를 써서 제출하여 자유와 평화에 근거한 독립 사상을 밝혔다. 1927년에는 신간회 발기에 참가하여 중앙집행위원 겸 경성지회장이 되었고 조선불교청년회를 확대하였다. 1929년에는 조선불교청년총동맹 및 만당의 지도자가 되었다. 1931년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불교》를 간행하여 불교청년운동 및 불교대중화운동을 이끄는 등 꾸준히 활동하였다.

세 번째 시인으로서의 업적은 한용운이 감옥에서 나온 뒤에 나타난다. 1922년 3월 한용운은 감옥에서 나와 종교·사회 활동을 활발히 하는 한편, 1926년 시집 《님의 침묵》이 간행되었다. 그의 문학사적 중요성은 이 시집으로 인해 확대되었고 시인으로서 우리 민족역사와 문화에 공헌하였다. 이 시집의 놀라운 점은 당시의 문단적 수준을 뛰어넘었다는 것이다. 그는 주권을 빼앗긴 민족 현실의 고통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장 순화된 시적 표현으로 나타냈다.

《참고문헌》

박철희, 한용운 한국문학의 현대적 해석 11,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7년, pp.22~42
최동호, 한용운 혁명적 의지와 시적 사랑,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6년, pp.24~26

3. 한용운의 일화

20151142 조수현

마취도 않고 수술을 하다.

만해 한용운은 언제나 자신의 감정을 이성적 의지를 눌러 이기는 극기의 길을 걸어왔다. 이런 그의 길을 증명해줄 수 있는 일화가 있다.

한용운은 만주에 있는 우리 독립군 부대를 시찰하러 떠난다. 그러던 어느 날 깊은 산속의 고개를 넘어 가다가 만해를 독립군 부대를 염탐하는 일본의 첩자로 오인한 독립군 부대의 요원들에게 총탄을 맞아 두골 후부에 타격을 입었다. 만해는 유혈이 낭자해지며 목숨이 경각에 일었다. 그의 눈이 서서히 감졌다. 그 순간 그의 뇌리에 하얀 옷을 입고 꽃을 들은 관세음보살이 나타나 말하였다. “이 꽃을 받으라. 그리고 생명이 경각에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서 일어나라.” 만해는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오던 길을 돌아가 머리에 박힌 총탄을 빼내는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런 수술을 마취를 하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만해는 거부했다.

“뭐? 마취? 죽었다 살아난 것도 끔찍한데 두 번 죽을 수는 없어! 참고 견딜 터이니, 염려 말고 그대로 빼주시오.” 수술을 할 때 그는 생 뼈를 깎아내는 ‘빠각 빠각’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수술을 했던 의사도 한용운을 ‘활불’이라면서 수술비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이 의사노릇을 수십 년간 하였지만 그런 수술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고백했다. 그 이후로 만해는 후유증을 겪어야 했다.

이렇게 만해는 수행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극기의 길을 걸어갔으며, 자신을 치열하게 내몰 수 있는 정신력을 갖고 있었다. 이런 정신력을 의지라고도 하고 참선의 힘, 혹은 불가사의한 저력이라고도 하지만, 그의 저변에는 건강한 신체와 자신을 절대 흐트러지게 않는 그런 힘, 담력이 있었다.

만해의 입적(승려의 죽음), 타지 않은 치아

만해 한용운은 심우장에서 1944년 6월 29일에 입적하였다. 그는 공핍으로 인한 신경통, 각기증, 영양실조 등으로 파란만장한 생애가 일단락되었다.

만해가 입적하자 그의 유해는 불교의 관례대로 화장을 하였다. 그렇게 화장을 하였는데 오직 은색 치아만은 타지 않았다. 불교에서는 치아의 출현을 매우 귀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은 만해의 깊은 법력의 산물이라고 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나라와 민족에 길조가 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하였다. 하여간 신비스럽게 출현한 치아는 항아리에 담겨져 유골과 함께 망우리 공동묘지에 있는 만해 묘지에 안장되어있다고 한다.

여기서 그가 남긴 치아는 그의 굳건한 자존심과 극기의 길을 걸어온 그의 참선의 힘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혹은 만해가 남긴 수많은 언어와 문자들의 차마 발걸음을 돌리지 못한 탓일까.

《참고문헌》

김광식, 『우리가 만난 한용운』, 참글세상, 2010

4. 작품세계

20151138 박지우

1) 임의 정체

한용운, 그의 시 세계를 한 마디로 대표할 수 있는 말을 찾자면 ‘임’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한용운의 시 『님의 침묵』 전편을 읽은 김학동은 [만해 한용운론]에서 열광, 갈망, 절규, 호소에 대상이 되는 임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한용운 연구의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한용운의 임은 조국•민족•중생•애인•불타 등 복합적으로 해석된다. 읽는 사람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다양성을 함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애인, 초월적 의미(불타)와 형이상학적 의미(민족)들이 『님의 침묵』에 포함되어진다.

한용운은 불교적인 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불타와 중생 속에 애인과 친구, 조국과 민족은 포함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불타와 중생을 위하는 길이 그 외의 것들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한용운은 ‘임’이라는 한 단어로 한국 현대시의 초월적 구조를 부여한 시사적 업적을 남겼다.

2) 결합적 예술

한용운의 문학세계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불교사상과 독립사상이 예술적으로 결합한다는 것이다. 한용운의 문학을 민족사상, 자유와 평등사상 그리고 불교적세계관으로 요약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가 ‘불교유신’을 제창하면서, 악과 부조리한 사회현실을 타파하려는 노력의 결심으로 보인다. 그는 불교의 현대화를 위해 대장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일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다. 대장경의 요지를 발췌하여 번역한 책은 요즘 간행되는 [불교성전]의 효시라고 한다. 불교학 진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그는 불교인으로서의 면모가 보인다.

『님의 침묵』을 살펴보자면 충청도 방언과 토속어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향토적인 단어들과 서민적인 시어의 활용은 민중 정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용운의 시의 다른 특징은, 여성에게 사랑을 호소한다는 것이다. 시적 분위기에서 여성적인 정감이 느껴진다. 이러한 여성주의는 불교의 관음 사상 또는 인도의 여성사상에 연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한국 시가의 전통으로 평가된다. 고려가요에서 많은 시조·한시·가사·민요 등은 여성적인 분위기와 한과 눈물의 애상적 정서로 이루어져있다. 초기 정철이 여성주의인 [사미인곡]을 쓴 것과 같이, 한용운도 임이 침묵하는 시대에 빼앗겨버린 조국과 민족에 대한 회복의 소망을 역설 화한 여성 주의적 방법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3) 부정적 세계관

한용운의 시에는 부정적 세계관이 깔려있다. ‘못한다. 아니한다. 없다. 말라’ 등의 부정적 종지법이 많다는 것이다. 부정적 사유와 비극적 세계인식은 당시 사회를 모순의 시대로 인식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근본적으로 모순된 것이며, 이를 극복하여 정상적인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그는 일제강점에 의한 식민지 지배라고 말했다. 시를 통해, 그는 일제에 대한 저항정신과 투쟁 정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참고문헌》

김인환,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읽는다.』, 열림원, 2003

5. 한용운의 작품 활동

20151110 김진경

한용운은 종교적 민족적 전통에 기초를 둔 고도의 역사의식을 그의 작품에 내포했다. 그는 독립투사 활동 전에 1913년 5월 당시 불교계 모순 타개를 위해서 ‘조선 불교 유신론’을 발간했고 1914년 4월 30일에는 경전 대중화를 위해 ‘불교 대전’을 발행 했다. 또한 1917년 4월 6일에는 ‘정선강의 채근담’을 동양서원에서 발행하였고 1918년 9월에는 월간지 <유심>을 창간하고 편집 겸 발행인으로 활동하였으며 유심 1호에서는 수필 ‘고학생’을 실었고 2호에는 ‘고통과 쾌락’이라는 글을 실었다.

그 후 삼일운동 관련 사유로 체포되었다가 출옥 후 1922년 옥중 시 ‘무궁화 심고자’를 발표하고 같은 해, 1922년 10월에 천도교회관에서 ‘육바라밀’이라는 연제로 독립사상에 대해서 강연을 하였다. 1923년 1월엔 동아일보에 ‘조선 급조선인의 변민’을 발표하고 1924년 10월 24일 장편소설인 ‘죽음’을 발행했다. 1925년 8월 29일 백담사에서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을 발행했다. 그 시집에 수록된 작품으로는 ‘군말’, ‘님의 침묵’, ‘알 수 없어요’, ‘나를 잊고저’, ‘가지마세요’ 등이 있다.

1931년 8월에는 수필 ‘비바람’을 발표하고, 10월에는 시론 ‘한갈등’, 논설 ‘중국불교의 현상’, ‘조선불교의 개혁안’, ‘불교 개신에 대하여’ 등을 발표하였다. 1935년 3월 8일에는 회고담인 ‘북대륙의 하룻밤’을 조선일보에 발표하고 4월 9일부터는 조선일보에서 장편소설인 ‘흑풍’을 연재 하였다. 1936년 10월에는 수필 ‘모종신범 무아경’을 발표했다.

1938년에는 ‘불교청년운동을 부활하라’ ‘공산주의적 반종교 이상’ ‘불교와 효행’ 등을 발표하고 “불교와 고려제왕”이란 제명으로 연대별로 고려 불교사 자료를 정리 편찬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 하는 등 불교관련 작품 활동을 많이 했다.

1939년 11월 1일부터는 조선일보에 ‘삼국지’를 번역하여 발표했고 1940년에는 ‘유마힐 소설경’을 번역, 주해하여 2월부터 불교지에 연재하였다. 1942년에는 신백우, 박광, 최범술 등과 신채호 선생 유고집을 간행하기 위해 원고를 수집하였고 ‘태교’를 번역 강의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고은, 『한용운 평전』, 향연, 2004, pp.384-391

6. 대표작품 및 분석

20151125 이정수

-임의침묵

만해 한용운 선생께서 강원도 백담사에서 지은 작품으로 갈래는 자유시이며 서정시이다. 형태는 연의 구분이 없는 자유로운 형태의 사설조 산문이며 낭만적, 상징적, 의지적인 성격을 담고 있다. 이 시의 주제는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이다. 5행과 9행에 있는 역설적인 표현이 시의 주제를 더욱 강화시켜준다. 이 시에서 ‘임’은 종교적인 절대자, 일제에 빼앗긴 조국, 사랑하는 여인으로 볼 수 있다. 한용운 선생님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임’의 의미는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종교인으로 볼 때는 종교적 절대자로, 독립운동가로 본다면 조국, 한 남성으로 본다면 사랑하는 여인으로 말이다.

-알 수 없어요

형식상으로는 연의 구분이 없지만 내용적으로 2개의 연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1행에서 5행까지가 1연, 6행에서 7행까지가 2연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제1-5행은 각 행이 의문형의 한 문장으로 끝나고, 제6행에서는 직설적 화법을 쓰면서 제5행까지의 심상들을 종합하여 정리한다. 이 시의 성격은 관조적, 역동적, 역설적으로 볼 수 있다. 경어체의 사용과 어구의 반복, 자연적 현상의 의인화를 통해 이 시의 주제인 절대자를 향한 구도적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조선불교유신론

임의침묵과 같이 백담사에서 저술한 책으로 조선불교의 개혁에 대해 논하고 있는 책이다. 당시에는 꽤나 진보적인 내용이었으나 불교계에서 큰 호응을 보이지 않았고 조선 총독부에서 실시한 친일불교 정책으로 인해 별다른 성과는 보여주지 못하였다.

서론을 제외하고 총 1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교의 개혁을 논하고 있지만 넓게 보면 불교를 넘어 세상을 구하려는 목표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교에 대한 내용이지만 종교적인 관점과 비종교적인 관점을 동시에 적용하여 논하고 있다.

《참고문헌》

고은, 『한용운 평전』, 향연, 2004

송옥, 『님의 침묵, 전편해설: 한용운 시집』, 일조각, 1974

7. 한용운에 대한 평가, 의의

20151120 우정민

불교인으로서 한용운은 불교의 민중화를 위해 불교 교리와 제도, 불교 재산을 민중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청년 불교를 만들어 부흥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불교대전>을 저술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불교경전을 번역하여 불교의 대중화 작업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불교를 통해 민족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불교잡지 <유심>을 발행하였으며,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일한 불교 잡지인 <불교>를 펴내던 불교사의 사장에 취임하여 불교계의 모순과 현실에 대해 많은 비판을 가하였고 불교를 개혁하기 위해 불교개혁론을 기고하고 여러 승려들의 논설을 게재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득도를 위해 자신만 수양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대중화와 민족의식을 깨우치려 하였다는 점에서 대중, 민족을 생각했던 사람으로 불교계에 한 획을 그은 인물로 평가되어진다.

그리고 한용운은 민족 대표 독립운동인 3.1운동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된다. 한용운은 민족대표 서명 및 독립선언서 배포 등 독립선언서 낭독을 하게 된다. 그리고 만해는 3.1운동이 끝나고 만세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되어 재판을 받아 서대문 형무소에서 3년간 옥살이를 하게 된다. 이 후 출옥을 하고도 계속 조국의 독립을 위해 저항문학활동을 창작해나갔다. 그리고 한용운은 어느 문인단체, 문예지에도 참여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지켜나가 자신만의 시세계를 형성하여 한국시의 내면적 깊이를 더했고, 독특한 서정의 세계를 개척해 1920년대의 시단에 매우 귀중한 업적으로 평가된다.

한용운은 일본의 탄압으로 인해 민족적 정신이 짓밟혀있던 1920년대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을 통해 한일합방 후 조선의 식민지 현실 속에서 불교적 사상을 기반으로 삼아 우리 민족이 부활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시세계를 여성적인 표현방법으로 표현하여 독자적 사상시를 확립하였다. 여기서 만해의 여성주의적 표현방법은 내면의 저항과 극복정신을 정감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표면적 기법으로 내면에 흐르는 선비정신으로서의 저항정신과 극복정신이 조화 되어 한국문학의 총체적 구조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알 수 없어요>라는 시에서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라는 시구에서도 민족적 죽음이 부활의 시작이라는 독자적 사상을 시로 형상화하여 절망의 시대에 새로운 민족적 희망을 제시하였다는 데 문학적 가치와 의의가 있다. 한용운의 시는 연 구분이 거의 없는 사설조의 서정성 짙은 노래로, 불교사상, 독립사상, 문학사상이 함께 어우러져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연가풍의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만해의 시에는 당시 시대상으로 볼 때 글로 생각을 나타내기 어려웠기 때문에 시대적 애통함을 비유를 통해 나타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며, 자기반성을 통해 시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고은, 『한용운 평전』, 향연, 2004

김인환,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읽는다.』, 열림원, 2003

8. 관련유적

20111108 김승만

만해 한용운은 충청남도 홍성군에서 출생하였고, 생가는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에 위치해 있다. 만해가 유년시절을 보낸 곳으로 그의 독립 정신과 문학세계를 기리기 위해 매년 홍성군에서 6월에 만해제가 개최된다.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백담사’는 한용운이 출가하여 머물렀던 곳이다. 백담사는 서기 647년 신라 진덕여왕 시기에 자장율사가 설악산 한계리에 한계사로 창건한 것이 운흥사, 심원사, 선구사, 영취사 등의 이름으로 불리다가 1783년 최봉과 운담에 의해 백담사로 불리게 되었다. 백담사라는 이름의 유래는 설악산 대청봉에서 100번의 웅덩이를 지나는 곳에 절이 지어졌다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전직 대통령의 피난처였던 것으로 더 유명하기는 하나,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 만들어진 곳이고, 방황하던 우리 불교를 민족불교로 발전시킨 만해의 사상의 시작점이기도 한 곳이다.

‘심우장(尋牛莊)’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한용운이 만년을 보내다 세상을 떠난 곳이다. 3·1운동으로 3년 옥고를 치르고 나와 성북동 골짜기 셋방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만해에게 벽산(碧山) 김적음과 조선일보사 사장 방응모 등 몇몇 유지들이 도움을 주어 지은 집이다. 심우장이라는 이름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한용운은 ‘만해’라는 호 이외에도 목부(牧夫), 실우(失牛)라는 필명을 사용했다. 목부는 소를 키운다는 뜻으로, 마음속의 소를 키우는 것은 불교의 왕생의 길을 탐구하는 것이고, 즉 심우장은 마음속의 소를 키우는 곳, 불교의 무상대도(無常大道)를 깨우치기 위해 공부하는 집이라는 뜻이다. 심우장이라는 명칭이 선종(禪宗)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을 잃어버린 소를 찾는 것에 비유한 ‘자기의 본성인 소를 찾는다.’는 심우(尋牛)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심우장은 한옥에서는 특이한 북향집인데, 남향으로 집을 짓게 되면 조선총독부와 마주보게 되어 북향을 택한 한용운의 자존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백담사>



<심우장(尋牛莊)>

《참고문헌》

박결순, 『한용운의 생애와 독립투쟁』,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2, pp.13-15, pp.154-155

3조-김동명

1. 생애

20101123 오효석

김동명은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신식 교육을 받기 위해 부모와 함경남도 원산으로 이사하여 1920년 함흥영생중학을 졸업했다. 1921년 홍남에 있는 동진소학교 교사로 출발하여 여러 곳에서 교편을 잡았다.

1925년에 일본에 유학을 가 낮에는 아오야마학원 신학과를, 밤에는 니혼대학 철학과 공부하고 졸업하였다.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뒤, 홍남시의 동광학원 원장을 지냈으며 광복 후에는 홍남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했으나 홍남학생의거사건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교도소에 감금되었다가 풀려났다. 1947년 홀로 월남하여 한국 신학대학 교수, 다음해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같은 해 조선민주당 정치부장을, 1952년에는 민주국민당 문화부장으로 활약했다. 1960년에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사직하고 참의원에 당선되어 정계에 진출하였다.

친구 현인규에게서 보들레르의 시집 『악의 꽃』을 빌려 읽고 깊은 감명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 「당신이 만약 내게 문을 열어주시면」이라는 시를 『개벽』(1923년 10월호)에 발표함으로써 문단에 등단하게 되었다. 그의 첫 시집인 『나의 거문고』(1930)는 암담하고 우울했던 역사적 현실과 보들레르의 깊은 영향을 받아 퇴폐적이고 감상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후 그가 특유의 시 경지를 개척하기 시작한 것은 1930년 무렵부터였다. 그 중 시집 『파초』(1938)와 『하늘』(1948)에 그의 시풍이 잘 나타나 있다. 이 때 그는 전원에 살면서 자연물을 소재로 한 시를 많이 썼다. 하지만, 이 작품들은 단순한 전원시가 아니라 심층에는 민족적 비애나 역사적 고뇌가 짙게 표현됐다. 대표적인 작품들로는 「파초」, 「내마음」 등이 있다. 김동명의 후기 시 세계는 광복과 더불어 바뀌었는데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며 신문과 잡지에 정치에 대한 평론과 사회적 풍자를 많이 썼다.

후에 시집 『삼팔선』(1947)과 『진주만』(1954)을 발표하며 1945년부터 1947년까지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표현했다. 그는 수필도 썼는데, 『세대의 삼화』(1964)와 『모래 위에 쓴 낙서』(1964)가 있고, 정치 평론집으로는 『역사의 배후에서』(1958)와 『나는 증언한다』(1964)가 있다. 수상작으로는 시집 『진주만』으로 1954년 자유문학상을 수상하였다. 그가 죽기 전, 1964년에 펴낸 『내마음』(1964)에는 그의 모든 시가 수록되어 있다.

《참고문헌》

이응백, 김원경, 김선희, 『국어국문학자료사전』, 한국사전연구소, 1998

이성교, 『김동명연구』, 「성신여자사범대학논문집」 4·5합집, 1972

안수길, 『김동명선생의 시와 애국심』, 「신동아」 43호, 1968

2. 업적

20151103 김나연

김동명(金東鳴) 시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시기를 달리할 때마다 주제를 변천하고 있다. 1920년대 데카당한 세기말적인 감상주의, 퇴폐주의가 이 땅을 휩쓸고 있던 때에는 시대적 반영으로 퇴폐적 경향의 시를 썼다. 1930년대에는 퇴폐주의에서 벗어나 전원생활과 자연을 예찬하고 전원적·목가적인 시선을 시 속에 반영하였다. 해방 후 1950년대에는 점차 정치와 사회에 관심을 기울이며 과거의 서정성에서 탈피하였다.

김동명은 1923년 〈개벽(開闢)〉 10월호에 프랑스 시인 샤를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에게 ‘당신이 만약 내게 문을 열어주시면’ 외 ‘나는 보고 싶노라’, ‘애닯은 기억’ 두 개의 작품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나왔다.

1930년 그는 첫 시집 <나의 거문고>를 간행하였다. 또 ‘조선문단’, ‘동광’, ‘조광’, ‘신동아’ 등의 잡지를 통해 작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1938년 47편을 엮어 두 번째 시집 <파초>를 간행했다. 이 두 시집은 자연을 예찬하며 은둔과 자적의 생활 속에 식민지 시인의 심경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다. 특히 <파초>는 김동명의 대표 작품으로 손꼽히며 월남한 가운데 파초와 조국을 잃은 본인의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 가슴 아픈 우리 민족의 역사를 대변해 중고등교과서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자료로 실리기도 하였다.

1948년 공산정권으로부터 피하여 남하한 뒤부터는 시풍과 서정성에서 벗어나 다급한 현실과 정치·사회적인 풍자와 관념성에 치우치게 되었다. 동아일보에 신랄하고 예리한 정치평론을 다. 1947년 본인이 교편을 잡고 있던 이화여대 출판부 발행 ‘진주만’으로 1954년에 자유문학상을 수상하였다. 1960년에 초대 참의원의원에 당선, 5·16직전까지 초대 참의원으로 있었다. 그의 그 밖의 작품으로는 ‘목격자’, ‘내마음은’이 있다. 밖에 수필집 ‘세대의 삽화’, ‘적과 동지’가 있고, ‘김동명 문집’이 1965년 3권으로 출간되었다.

시대를 마주 하는 데 있어서 능동적으로 각 시선을 달리한 태도를 가졌던 김동명 시인을 필자는 똑똑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한 사건에 대해 1차원적인 시선이 아닌 고차원적인 사고방식을 요구하는 21세기에 걸 맞는 위인이었다. 비록 암울한 현실을 외면하고 자연을 노래하기도 했지만 끝내는 현실을 재건하고자 정치와 사회문제에 앞장섰고 학문을 시민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교편을 잡기도 하며 그 시대의 지식인 역할을 훌륭히 해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현승, 『한국현대시해설』, 관동, 1975

엄 창섭, 『초허 김동명 문학 연구』, 성균관대학교, 1986

3. 일화

20141120 박은지

(1). 기독교와 그의 삶

“월정아, 내 이름이 프란… 뭐라 했니?”

“응, 프란치스코.”

“프란치스코? …… 이승만 대통령 부인 이름 같구나.”

“응, 맞아요. 여자이름은 프란체스 카!, 아버지는 남자니까 프란치스 코!”

“프란치스코… 프란치스코! 허허…”

이것이 김동명과 그의 딸 월정의 마지막 대화였다. 그가 죽기 하루 전날, 집으로 신부님을 초대해 ‘프란치스코’라는 성인의 이름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시인 김동명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라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기독교인이었다. 일본 청산학원에서 신학과를 졸업했지만, 신앙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김동명은 목회자의 길을 택하지 않았다. “그는 교회의 법도에 얽매인 ‘교인’ 생활은 하지 않았지만, 삶 속에서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임에는 틀림이 없었다.”고 그의 딸 김월정은 서술하고 있다.

2. 꽃집 - 신촌동 70번지 202호

시인 김동명은 유난히 꽃을 좋아했다. 글 쓰는 시간 외의 대부분의 시간을 집의 뜰에서 보냈다. 그는 동네에서 ‘꽃집’이라고 불릴 정도로 집의 온 마당이 무성하도록 온갖 꽃과 나무를 심었다. 그의 작품들 속에 꽃 이야기가 많이 들어간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집에서는 언제나 흰 무명 바지저고리를 입고, 손에는 펜 아니면 호미나 작은 꽃삽을 항상 들고 있었다고 한다. 자연을 사랑하며 꽃과 나무들과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어찌면 조용하고 온화한 그의 성품이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의 딸 김월정에게 “공부해라”, “무엇이 되어라” 라는 말보다 “여자는 말과 웃음을 조용히 하고, 걸음을 조용히 걷고, 문을 조용히 열고 닫아야 한다.” 라고 가르쳤던 것 또한 같은 이유이다.

3. 느낀 점

처음 「내 마음은」 이라는 시를 읽었을 때 잔잔한 물결의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달 아래 귀를 기울이며, 호젓이 / 나의 밤을 새이오리다.’ 라는 구절이 특히나 그랬다. 조용히 읊조리는 톤이 어울리는 시였다. 이번 답사 문집을 준비하면서 작품 속에 녹아있는 그의 특성과, 딸 김월정이 쓴 글을 통해 시인 김동명의 삶을 더 잘 알 수 있었다. 꽃을 좋아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그의 모습에서 조용하고 온화한 모습을 지키려한 그의 성품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김월정, 『나의 아버지 초허 김동명(超虛 金東鳴)』, 2006

4. 작품 활동

20151128 장경석

김동명은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이후까지 시를 썼던 시인이다. 그래서 김동명은 광복 전과 광복 이후의 시풍이 조금 다른데, 광복 전엔 민족의 비애와 조국에 대한 향수를 서정화한 시를 주로 썼고, 광복 이후엔 남하하여 다급한 현실과 정치 사회적인 풍자에 치우친 시를 주로 썼다. 그는 친구 현인규에게 받은 보들레르의 시집 <악의 꽃>을 빌려 읽고 감명받은 것을 계기로 시를 쓰게 되었고, <나의 거문고> <파초> <38선> <하늘>등의 많은 시집을 발표했으며, 그의 작품으로 <파초> <내 마음은> <밤> 등이 있다.

<내 마음은> 은 1937년 6월에 발행된 조광에 실린 작품으로, 4행이 한 연을 이루고 전 4연으로 된 서정시이다. 가곡으로도 제작되어 애창되고 있는 시이며, 사랑의 기쁨과 정열, 그리움과 애달픔이라는 사랑의 실상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고, 매우 참신한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는 시라고 평가받고 있다. 전반부에는 직접적인 표현으로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고, 후반부는 간접적인 표현으로 외롭고 슬픈 사랑을 나타낸다. 다만 이 표현방법을 두고 견해가 갈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사랑을 노래하는 한 편의 시로서 애정 변화가 너무 심하다는 의견이 있고, 다른 견해로는 전반부의 따뜻하고 즐거운 사랑에서, 후반부의 쓸쓸하고 외로운 사랑으로 끝나는 것으로 이 시는 통일되어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작품은 김동명의 시 중에선 드물다고 할 정도로 새롭고 독창적인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이 까다롭지 않지만 아름다운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좋은 서정시로 평가 할 수 있다.

<파초> 는 1936년 1월에 발행된 조광에 실린 작품이고, 김동명이 1938년에 시집 <파초>를 발표할 때 제목으로 쓰기도 한 작품이다. 이 시에서 시인은 따뜻한 남국을 떠나와 추운 곳에서 살아가는 파초를, 일제강점기에 자유를 잃고 국외에 살며 항상 조국을 그리워하는 자신과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다. 시 곳곳에서 외롭고 가련한 파초를 여러 가지 상징물에 비유하며, 후반부에서는 힘든 상황에서도 생명을 간직하려는 정성을 느끼게 한다. 이 작품은 김동명이 1920년 처음 등단할 때 퇴폐적인 경향의 시에서, 1930년에 어두운 조국의 현실에 눈을 돌리게 되어 쓴 대표적인 작품이다. 조국의 상황을 올바르게 보고, 파초와 함께 하듯한 표현으로 그 상황을 극복할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조국을 걱정하며 쓴 애국시라는 점에서 좋은 시라고 볼 수 있다.

<밤> 은 1948년에 발간된 시집 <하늘>에 수록된 작품으로, 밤을 호수로 비유하고 자신을 어부라고 하는 간단한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4행 27자에 불과한 이 시는 해석에 따라 밤을 깊이를 알 수 없는 신비를 지닌 곳으로, 혹은 푸른 안개에 싸인 호수로서 아늑한 곳으로 느끼게 해준다. 짧은 시지만 자신을 어부에 비유하고 밤을 호수에 비유함으로써 낭만을 추구하는 이상주의자로 표현하고, 몽환적인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아름다운 서정시로 평가받고 있다.

《참고문헌》

김현승, 『韓國 現代詩 解説』, 관동, 1975

양승준·양승국, 『한국 현대시 500선』, 월인, 2004

5. 전기와 후기로 나눈 김동명 작품세계의 변화

20141128 유수호

김동명의 작품세계는 광복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진다. 그 중에서도 전기는 시집 「나의거문고」, 「파초」, 「하늘」을 기준으로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어진다.

김동명 전기의 초기에 쓰인 시는 흔히 외래 사조의 영향을 받은 퇴폐적 경향의 작품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그의 초기 시에는 삶의 정서와 자연친화적인 서정, 님을 향한 신앙적 기구와 이상 세계지향, 종교적 상상력과 현실의식의 결합 등 다양한 특징을 보인다. 이와 같은 김동명의 초기 시 특징들이 김동명 시의 바탕을 이룬다.

더 깊이 들어가면 초기 김동명 시는 대표적으로 2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 째, 퇴폐적 감상이 주를 이룬다는 것이다. 특히 김동명의 초기시집인 「나의 거문고」(1922-1929)에서는 1920년대 3.1운동 실패 당시 문단에 유행했던 세기 말 사상 등의 영향으로 감상적, 퇴폐적 경향이 주를 이루고 있다.

두 번째로는 김동명의 초기 시에서 양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삶의 우수와 사랑의 정서, 그리고 자연 친화의 세계를 노래한 서정 시편이라는 것이다. 이는 「꿈, 새벽비」 등에 잘 나타난다.

이런 김동명의 시는 전기의 중기로 접어들면서 전성기를 맞이한다. 그 대표적 예에는 시집 「파초」가 있다. 시집 「파초」가 나온 시기에 김동명의 시는 일제치하의 절망적인 시대상황 속에서 역사적 고뇌를 극복하고자 의욕적으로 맑고 밝은 서정세계를 보인다.

또한 김동명은 전기의 말기에 대표적인 시집인 「하늘」(1930-1936)이 나온 시기에는 태평양전쟁의 참상과 일제말기의 어두운 사회적 현실 상황을 풍자적인 수법으로 묘사하고자 노력했다.

김동명의 후기 시는 해방 후부터 김동명이 작고하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에는 전기에서와 같이 세권의 시집을 냈다. 「술노래」, 「광인」 등을 끝으로 붓을 꺾고 목상노릇을 하다 다시 쓴 정치적 사회적 경향의 작품집으로 「진주만」(1945-1947), 「목격자」(1947-1955)가 바로 그것이다. 이 시기의 작품은 전기에 비해 작품 수준이 떨어지고 거친 표현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듯 김동명은 1920년부터 1960년까지 다양한 작품세계를 가지고 활약한 시인이지만 그에 대한 연구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논문 또한 얼마 없다. 그 이유는 그가 문학 활동을 취미로 생각하고 동인 활동이나 문인 활동을 거의 안했고 민주당 시절에는 참의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사 중 김동명의 행적을 봤을 때 그렇게 저평가 될 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더욱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좀 더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전도현, 『김동명 초기 시 연구』,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문덕수, 『한국 현대 시인 특성 론』, 국학 자료원, 2000

6. 대표작품 및 분석

20151129 장은영

내 마음은

김동명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저어 오오.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옥같이 그대의 뱃전에 부서지리다.

내 마음은 나그네요,
그대 피리를 불어주소.
나는 달 아래 귀를 기울이며, 호젓이
나의 날을 새이오리다.

내 마음은 촛불이요,
그대 저 문을 닫아주소.
나는 그대의 비단 옷사락에 떨어져, 고요히
최후의 한 방울도 남김없이 타오리다.

내 마음은 낙엽이요,
잠깐 그대의 뜰에 머무르게 하오.
이제 바람이 일면 나는 또 나그네같이, 외로이

김동명의 시 ‘내 마음은’은 1937년 6월 『조광(朝光)』 3권 6호에 처음 발표되었고, 1938년에 발간된 2번째 시집인 『파초(芭蕉)』에 수록되어있는 4연, 각 4행 총 16행으로 이루어진 서정시이다. 김동명의 초등학교 제자였던 김동진이 평소 좋아하던 이 시에 곡을 붙여 가곡을 만들었고, 성악가 이인범에게 불리어져 더욱 더 유명해졌다.

이 시는 다양한 비유법과 적절한 어조를 활용해 사랑을 아름답게 노래한 서정시이다.

이 시의 화자는 각 연에서 ‘내 마음’이라는 추상적 원관념을 4가지의 다양한 구체적 보조관념으로 치환함으로써 전혀 다른 상상력의 세계를 펼쳐 보이고 있다. 또한, 사랑에서 이별까지의 사랑의 과정을 4연에 순서대로 표현하고 있다.

1연에서 화자의 마음은 ‘호수’로 표현되어진다. 그리고 그대가 오면, 나는 “옥같이 그대의 뱃전에 부서지리다”라는 표현으로 사랑의 격정적인 기쁨을 그려내고 있다. 그리고 2연에서 화자의 마음은 ‘촛불’로 표현되어 “최후의 한 방울도 남김없이 타오리다”라고 사랑의 희생적인 정열을 그려내고 있다. 다음 3연에서 화자의 마음은 ‘나그네’가 된다. 나그네에게 ‘피리소리’란 길을 떠도는 시름을 달래주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나의 밤을 새이오리다”는 표현으로 사랑의 그리움과 애잔함을 그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4연에서 화자의 마음은 ‘낙엽’으로 형상화된다. 낙엽의 운명은 오래 머물 수 없는 것으로, “바람이 불면 나는 또 나그네 같이, 외로이/그대를 떠나오리다”라는 서술로 이어져 이별하는 아픔을 그리고 있다.

이 시는 평범해 보이는 겉모습에 비해 구조적으로 완벽한데, 각기 행이 청유형, 은유법 등으로 표현이 통일되며, 또한 “나는 ~하리다”와 같이 청자에 대한 각오와 의지를 드러낸다.

《참고문헌》

김동명, 『파초』, 신성각, 1938

김현승, 『한국현대시해설』, 관동, 1975

엄 창섭, 「초허 김동명 문학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1986

조남익, 『한국현대시해설, 미래문화가』, 1993

7. 김동명 시인 평가 및 비평

그의 시 경향을 크게 초기, 중기, 후기로 살펴보자면, 초기의 그는 일제치하 조국의 암담한 현실과 우울하고 억압된 시대 분위기 속에서 전승된 모더니즘적 사조의 영향을 받아 퇴폐적이고 감상적인 경향의 글을 발표했다. 이후 중기에 들어서는 감정을 자연물의 이미지에 투영하여 표현했으며, 후기에 이르러서는 혼란스러운 정치상황 등을 소재로 시를 썼다.

그의 시편들은 퇴폐주의적인 색채를 보이며 저항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김동명은 전원시인, 목가시인으로써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의 후기 시를 미루어 보았을 때, 이와 같은 경향으로 일관된 것이 김동명 시의 특성이라고 규정하기에는 다소의 문제가 있다.

그는 자아의 실상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시가 아름다워야 하는 것이 예술의 의무임을 실증하여 보였다. 나는 그의 이러한 생각이 아름답고 섬세한 시어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시역을 달리할 때마다 시의 주제 변천을 꾀하면서도 우리 민족의 정한을 시의 바탕에 유지하여왔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암담한 시대에 놓여진 비극적인 현실을 희망과 긍정적인 자세로 수용했던 김동명의 시편에서 흐리고 탁해진 만물이 비교적 순수하고 깨끗하게 비춰 질 수 있었던 것이다.

김동명은 서정의 인식, 현실의 존재성, 농촌과 도시에서 다양한 소재를 통하여 그 나름의 시세계를 구축하였고 우리의 자연을 통해 시대상황을 반영하였다. 하지만 한용운처럼 민족사의 암흑기를 살았던 시인으로써 민족의 불행을 읊으며 치욕을 시로서 쓴 단순한 전원시인으로만 머물지 않고 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일깨웠다. 김동명은 민족정신을 예술적 차원으로 승화시킨 민족시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정치를 또 다른 '詩'로 보려는 그의 독특한 시각은 '조국을 잃고 살아 온' 젊은이의 또 다른 열정의 표출로 보여 주었다.

그는 자연의 아름다움 과 그윽한 시적 정조를 간결한 시어로 써낸 전원시인이자 목가시인이었으며 그는 시대의 아픔을 저버리지 않고 굳건히 견디며 미래의 희망과 꿈을 확신했던 민족적 시인이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연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불과 몇 편의 논문이 있을 뿐이다. 문화적,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의 작품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시세계와 삶에 공감하길 바란다.

《참고문헌》

김병우, 『김동명의 시 세계와 삶』, 한남대학교 출판부, 1994년

8. 유적지

(1) 김동명 문학관



위치: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노동하리

건립 목적:

김동명은 강릉의 현대 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으로서 전원적인 서정과 민족적인 비애를 시로써 표현한 인물이다. 이에 김동명의 삶을 재조명하고 문학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13년 7월 3일 개관하였다.

현황 :

전시실에는 김동명 시인이 실제 가지고 있던 책을 중심으로 서재를 재현해 놓았다. 또한 그가 발간한 각종 책들도 전시되어 있으며 생애를 알 수 있는 연보와 문학 활동의 내역까지 전시되어 있다. 세미나 실에는 각종 문학 행사와 시 낭송회, 백일장 등을 진행하는 등 문인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유용한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2) 김동명의 시비



위치: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미노리

건립 목적:

김동명 시인은 전원 파 시인으로, 또 족적 저항시인으로, 군사정권에는 선비적 정신으로 불의 앞에 항거한 진정한 종교인이었다. 이에 그를 기리고자 건립했으며 이 시비는 문향의 자긍심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황

공원의 입구에는 강릉시에서 제작하고 설치한 ‘김동명 시비공원’ 표지석이 있고, 23계단을 올라가면 400여 평의 잔디 공원에 시비가 세워져 있다. 전면에는 ‘김동명 시비’라는 비명 아래 시인의 초상화가 판각되어 있으며 후면에는 건비문이 새겨져 있다. 또한 좌, 우에 위치한 보조 비석 전면에는 각기 「내 마음」, 「파초」가 조각되어 있다.

《참고문헌》

엄 창섭, 「김동명 문학 연구」, 학문사, 1987년 강릉시청 문화 예술과 자료, 2014

4조- 허균, 허난설헌

1. 생애

20111101 강덕원

1) 허균의 생애

‘허균’은 16세기 말엽부터 17세기 초에 걸쳐 살았으며, 5세 때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해 9세 때에 시를 지을 줄 알았다. 1580년(선조 13) 12세 때에 아버지를 잃고 더욱 문학 공부에 전념했다. ‘허균’은 명문 집 안에서 태어났고 그 명문에 걸맞게 유교와 문장을 숭상하던 사회에서 유교적인 학식에 뛰어나고 글 잘하는 문사로 칭송을 받았다. 벼슬을 입신양명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던 관인 양반사회에서 벼슬길도 순탄하게 열려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기성 권위와 과감하게 맞서 개혁과 저항의 행동으로 일관하였다.

또한 ‘허균’은 천대받던 한글로 『홍길동전』이라는 소설을 맨 처음 쓴 사람으로서 우리 국문학사에서는 높이 평가되어왔다. 한때 이론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그보다 18년 아래인 이식이 지은 『택당집』의 기록을 뒤엎을 만한 근거가 없는 이상 그를 「홍길동전」의 작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허균의 생애는 크게 두 시기로 나뉘게 되는데 곧 마흔 살이 되기 전의 전반기와 마흔 살부터 죽을 때까지의 후반기로 구분된다. 전반기에 그는 현실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글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불만을 토로하거나 했다면 후반기의 그는 대북파의 정권에 참여하여 지배세력의 한 사람으로서 행동하고 반역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지탄을 받고 때로는 과감한 대결을 벌이기도 했다.

예교(禮敎)에만 얽매어 있던 당시 선비사회에서 보면 이단시할 만큼 다각적인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졌던 인물이며, 편협한 자기만의 시각에서 벗어나 꺾박받는 하층민의 입장에서 정치와 학문에 대한 입장을 표현해 나간 시대의 선구자라고 볼 수 있다.

2) 허난설헌의 생애

‘허난설헌’이 태어난 양천 허씨 집안은 고려 때부터 대대로 훌륭한 문장가와 높은 벼슬아치를 길러낸 문벌이었다. 그의 아버지인 초당(草堂) 허엽(許曄, 1517~1580)도 이러한 집안 분위기에 따라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화담 서경덕과 퇴계 이황에게서 글을 배웠고, 당시 학계에서 비주류로 인정되었던 화담에게서 글을 배운 것은 특이한 경력이었다. 그래서 ‘난설헌’도 화담선생의 도가적인 분위기를 저절로 물려받았다.

강릉 초당리에 있는 집에서 1563년에 태어난 후, 다섯 살 때 서울로 올라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난설헌’이 살았던 서울 건천동에는 이름난 인물들이 모여 살았는데, 정승 노수신과 서애 유성룡, 충무공 이순신과 원균 등이 이웃에 살았다. 이들은 난설헌 남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전해진다.

조선시대에는 여자들에게 한문을 가르치지 않았다. 여자는 과거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뿐더러, 여성으로 생활하는 데에는 한문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버지 초당도 ‘난설헌’에게 정식으로 글을 가르치지는 않았다. 다만 여자가 남의 집 안으로 시집가서 시부모를 섬기고 남편을 모시며 자녀들을 기르기 위한 정도의 글만 가르쳤다.

그러나 ‘난설헌’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오라비가 글을 읽을 때면 어깨 너머로 따라 배웠다. 여류시인 ‘난설헌’의 문장 솜씨는 이렇게 이루어 졌으며, 천재적인 소질이 드러나자 이를 본 작은 오라비가 가르침을 주었는데 결국은 자기를 가르쳤던 오라비보다도 더 돋보이는 시인이 되었다.

‘난설헌’의 시를 평하는 시인들이 말하길, “난설헌의 시는 하곡(작은 오라비)도 따를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문헌》

이이화, 『허균』, 한길사, 1997, pp.29-31

김신명숙, 『불꽃의 자유혼 허난설헌』, 도서출판 금 토, 1998, pp.243-245

2. 업적

20131113 문소윤

1) 허균의 업적

그는 일찍이 문장에 뛰어났고 한림학관이 되었다. 그때에 삼당 시인의 한사람으로 꼽혀 최경창, 백광훈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

허균은 스무 살 때에 즈음부터 온 나라에 그의 글재주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다. 이런 허균은 스무 살 되던 해인 1589년에 생원이 되었다.

그는 1597년 문과중시에서 장원을 차지하였다. 그리하여 글과 사필을 다루는 예문관 검열 춘추관 기사관이 되었고, 세자시강원설서로 승진하였다. 그는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 그것에 관한 모든 기록을 정리한 『동정록』을 저술하였다.

그는 1596년에 강릉부사 정구와 함께 『강릉지』를 엮었다. 이어 1603년에는 대관령에서 행해지는 산신제를 보고 『산신찬병서』를 지었다.

허균은 『학론』, 『정론』, 『유재론』, 『호민론』의 논설을 통해 당시 정부와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는 문인으로서도 소설작품, 한시, 문학비평 등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가장 큰 업적으로 꼽히는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소설인 『홍길동전』을 지은 것이다. 이 소설은 봉건체제의 모순과 부당성을 폭로한 그의 개혁사상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국문소설의 효시가 되었다.

한편 그는 한문학에서 당대 제일의 문장가였으며, 시·비평에도 안목이 높아 『국조시산』 등 시선집을 편찬하고, 『성수시화』 등 비평작품을 썼다. 그 밖의 작품으로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는 『성소복부고』, 『교산시화』, 『학산초록』 등이 있다.

2) 허난설헌의 업적

허난설헌은 조선중기 문신이다. 허난설헌은 어렸을 때부터 천재성을 드러냈다. 나이 8세 때 『광환전 백옥루 상량문』이라는 한시를 지어 주변의 어른들을 놀라게 하였다. 이 시에서 어린 허난설헌은 어린이의 한계와 여성의 굴레를 모두 벗어버리고 가상의 신선세계에서 주인공이 되는 자신을 과감히 표현하여 신동이라는 칭송을 들었다. 이렇듯 허난설헌은 가문과 스승의 격려 속에서 조선시대 규중의 유일한 여류 시인으로 성장하였다.

허균은 누이가 친정집에 남겨놓고 간 시와 자신이 암송하는 시들을 모아 『난설헌집』을 펴냈다. 1606년 그는 그 시집을 조선에 온 명나라 사신들에게 일람하게 하였다. 또한 중국에 가져가 중국에서 『허난설헌집』을 발간하였다. 그녀의 시는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되고 중국의 문인들이 앞을 다투어 그녀의 시를 격찬하게 되었다.

난설헌의 시는 조선후기 사대부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재평가되어 그녀를 규방의 유일한 시인이자 뛰어난 천재로 인정하였다.

허난설헌의 존재가 독특한 것은 그녀가 사대부가의 여인이었으며, 그녀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 당시 강조되던 현모양처로서의 부덕을 갖추었다거나 성공한 자식을 두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창작한 시의 탁월함 때문이었다는 데 있다. 허난설헌은 왜곡된 형태이

긴 하나 제한적으로 사회활동이 자유로워 문제를 뽐내는 것이 가능하던 황진이 같은 기생도 아니었고, 화가로서 탁월한 재능이 있었지만 율곡 이이같은 훌륭한 자식을 길러낸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신사임당처럼 부덕을 상징하는 여인도 아니었다. 그녀는 오로지 자신의 시로서 그 이름을 남겼고 훗날 그녀의 시는 중국과 일본으로 건너가 많은 지식인 문인들에게 격찬을 받으며 오랫동안 애송되었다.

《참고문헌》

이이화, 『허균』,한길사, 1997

김신명숙, 『불꽃의 자유혼 허난설헌』, 도서출판 금 토, 1998

김명희, 『허난설헌의 시문학』, 국학자료원, 2013

3. 일화

20151123 이예빈

1) 허균의 일화

허균의 성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일화 하나를 소개해 주고자 한다. 허균의 형인 허봉은 서얼 출신인 손곡 이달과 가깝게 지냈으며 동생 허균에게 이달을 소개한 것도 허봉이었다. 형의 집에서 허균이 처음 이달을 만났을 때 허균은 그를 결눈질로 흘깃 쳐다보고는 예의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제멋대로 시를 이야기 했다. 그러자 허봉은 “시인이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너는 일찍이 이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느냐?”라고 말하면서 이달에게 운을 불러주고 시 한 편을 지어달라고 부탁했다. 이달이 곧 시를 한수 읊자 그 시를 듣고 깜짝 놀란 허균은 사죄하고 시로써 벼를 맺었다고 홍만종은 『소화시평』에서 전하고 있다.

서얼 출신의 이달과 사귀면서 그 친구를 동생에게 소개한 허봉이나 이달의 실력에 감탄하여 그를 시의 스승으로 삼을 수 있었던 허균은 이들 형제들의 분방한 사고를 그대로 보여주는 일화라고 할 수 있다. 후에 허균이 『홍길동전』을 쓸 수 있었던 것도 이달과 같은 시인과의 교류가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고루한 사회적 통념에 얽매이지 않던 자유로운 사고가 어찌면 허균을 큰 문장으로 키울 수 있었던 밑바탕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2) 허난설헌의 일화

허난설헌에게는 세 가지 한을 가지고 27살의 나이로 요절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조선이라는 소천지에서 여성으로 태어나 김성립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김성립은 여러 가지 면에서 허난설헌의 남편으로서 못 미쳤던 것 같다. 김성립의 과거 급제 전 허난설헌과의 유명한 일화가 있다. 아직 공부해야 할 나이였던 김성립이 젊은 선비들이 공부하는 곳인 접에 다닐 때였다. 그는 공부하러 간답시고 집을 나가서는 접에서 공부하기보다는 애첩과 놀기만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 소식을 들은 허난설헌은 남편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 “옛날의 접은 유능한 사람이 많더니, 오늘의 접은 재주 없는 자만 있다”라고 써 보낸 편지는 접에 첩을 의탁해 옛날 접은 공부하는 곳인데 지금의 접은 첩과 노는 곳이라는 속뜻이 담겨있다.

또한 우뚝한 허난설헌과 김성립이 비교되는 일화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김성립에게는 익살 맞은 송도남이란 친구가 있었다. 송도남은 김성립의 집에 찾아와서는 언제나 “명성님이 덕석님이 김성님이 있느냐”라고 김성립의 이름에 운을 맞추어 불러대곤 하였다. 그럴 때마다 김성립은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얼굴만 붉히면서 나오곤 하였다. 남편이 이런 주변머리 없는 모습이 딱해 보였던 허난설헌이 하루는 남편에게 송도남이 오면 “오냐, 귀뚜라미 맨드라미 송도람이 왔구나” 이렇게 말하라고 일러주었다. 송도남이 오자 김성립은 허난설헌이 일러 준대로 응수하였고 친구가 웃으며 “자네 부인이 가르쳐준 모양이지?”하고 넘겨잡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이처럼 허난설헌의 문학적 재능과 이와 같은 위트는 주변머리 없는 남편 김성립과 대비 될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박혜숙, 『허난설헌』, 건국 대학교 출판부, 2008, p,41, pp,134-138

4. 작품활동

20151131 정현아

1) 허균의 작품 활동

허균은 1591년 누이 허난설헌의 시집인 『난설헌집』을 편찬했다. 1593년 10월에는 시의 평가와 시작(詩作)에 관계된 일화들을 중심으로 한 108편의 짧은 이야기를 다룬 『학산초담』을 지었고, 1597년 임진왜란의 모든 사실을 적은 『동정록』을 지었다. 1606년에 들어와 원접사 유근의 종사관이 되어 주지번을 만났으며, 허균은 그해 3월 주지번에게 『난설헌집』을 주었고 4월에 주지번에게서 『난설헌집』에 대한 글을 얻어왔으며, 그 후 12월에 『난설헌집』의 서문을 썼다. 1607년 우리나라의 시 888편을 가려 뽑은 『국조시산』을 엮기도 하였다.

1611년 전라도 함열 지방으로 귀양 가서 『성소부부고』를 발행하였는데, 이는 옛 글들을 정리한 것으로 허균이 스스로 편집하였고 체제에 있어서의 참신성으로 후대 문집에 좋은 모범이 되었으며, 1961년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처음으로 영인하여 소개되었고, 그 뒤에 민족 문화 추진회에서 번역하여 출간되었다. 처음에는 64권이었지만 지금은 26권만이 남아있다고 한다. 또 허균은 다섯 편의 한문소설을 지었는데 <장생전>, <손곡산인전>, <엄처사전>, <남궁선생전>등이 실려 있다. 1611년 허균은 『성수시화』를 짓게 되는데, 이는 시(詩) 비평집으로 역대 한시를 뽑아 정리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1612년에는 허균을 대표하는 작품인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소설인 『홍길동전』을 발표했다.

2) 허난설헌 작품 활동

허난설헌은 가정사는 물론 사회적 문제에까지 시선을 돌려 여성 한시 문학의 범주를 대사회적 영역으로 확장한 사람이다. 허난설헌이 지은 시가 210수 가량 된다고 하나 그녀의 유언대로 대부분 불태워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몇 가지 대표작을 살펴보자면, 『소년행』은 젊은 남자들의 객기를 경계하고자 쓴 5언 고시이며, 젊은이들에게 주는 당부의 시라고 볼 수 있다. 『사시사』는 사계절을 표현한 7언 고시이다. 네 수 모두 각 계절의 소재들을 나열하여 별리에서 오는 독수공방의 처절함을 나타내고자 했다. 『엄지봉선화가』는 허난설헌의 시 가운데 가장 여성적인 면모를 나타내준 시이다. 여성의 화장법이나 손톱에 물을 들이는 모습 한 구절 한 구절을 모두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규원가』는 객지에 나가 돌아오지 않는 젊은 남편에 대해 상심하며 이 시를 지었는데, 보통의 조선조 여인들과 같은 심상이라고 해도 무관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시의 주제 또한 별리에서 오는 한(恨)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춘일유희』는 봄날에 느끼는 회포를 읊은 것이다. 봄의 정경과 대비되는 여인들의 고독이 대조적으로 느껴지며, 또한 이 시는 한량처럼 나가 놀고있는 남편에게 따끔하게 써서 보내는 편지라고 한다.

《참고문헌》

이이화, 『허균』, 한길사, 1997, pp.282-285, pp.307-309

김명희, 『허난설헌의시문학』, 국학자료원, 2013, pp.19-21, pp.51-52, pp.58-70, pp.88-89, pp.314-316

5. 작품세계

20151109 김의영

1) 허균의 작품세계

그는 자신의 성격이나 그에 따른 행동 특성 때문에 끊임없이 현실과 맞서다가 좌절을 맛보았지만 그렇다고 현실과 타협하려 하거나 안주하려 하지 않고 나름의 삶의 의미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때문에 ‘허균’의 삶, 문학은 대체로 세 갈래의 특성을 지니고 전개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 하나는 현실적 좌절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현실에 도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과 다른 하나는 현실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 자신만의 세계 속에 안주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점 및 또다른 하나는 노불이나 신선의 세계를 지향함으로써 현실적 괴로움을 떨쳐 버리려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는 점이다. 그가 끊임없이 관직에의 집착을 보였다는가 현실개혁의 의지를 드러낸 것은 현실도전 의지를 보여준 것이며 문학창작을 통해 신선세계에 대한 동경의식을 드러낸 것은 현실적 괴로움을 떨쳐버리려는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허균 문학의 특징은 ‘전’문학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이들 작품은 당대 불우인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당대 현실의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는 성격을 지닌 작품들이다. 작품 안에서 피상적 삶만을 중시한다면 신선소설으로만 규정할 수 있으나 그 심층적 의미를 보면 현실비판적 성격이 짙은 사회소설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허균의 「전」은 사회성이 짙은 작품으로 파악할 때 이들 작품은 그의 현실중시의 문학관과도 잘 연결되며 예교 사회를 부정하며 불우하게 살아갔던 허균의 현실적 삶과도 잘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2) 허난설헌의 작품세계

조선사회는 남녀 신분제도가 권리에 대해 제도적인 성의 구별을 하기 시작하여 재능이 있는데도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계층이 많았다. 또한 남녀유별로 찢든 폐쇄사회에서 여성 한문학에 있어서 환상성을 지닌 작품은 많지 않았다. 이에 난설헌 만이 조선조 여성문학의 대표자이자 작품의 깊이를 환상의 영역까지 확장했던 유일한 여성이라 할 수 있다.

허난설헌 문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상상력이 부여한 공상 또는 환상을 기반으로 한 선계로의 기나긴 여행이 주요 모티브다. 따라서 난설헌의 문학 작품 중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환상적 영역이다. 조선조 시대 가부장제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아가 아닌 타자로 살아왔다. 가정 내에서 여성들은 감금된 삶을 살았고 그들 자신만의 변장술로 살아야 하는 공간에서 탈출하고자 했다. 그러한 일탈에서 여성들은 곧잘 환상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종류의 환상문학은 이미 알려진 세계와는 전혀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열망을 표출하고자 한다. 난설헌은 현실에서 일탈하여 선계로 향하는 문학을 다루었다. 이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학을 도피문학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허난설헌은 도피가 아닌 그녀만의 선계라는 환상적인 공간을 동경하고 이상적인 세계를 구축하여 인위적인 속박을 감소시키고 자연에 맡겨 세상의 괴로움을 받지 않고 고귀한 생명을 지속시키는 초인격적인 형상을 지향했다. 그에게 있어 가부장적인 조선사회는 폐쇄된 공간일 뿐이었다. 따라서 그녀의 환상은 가부장제에 대항하는 항의의 표출로 꿈을 매개로한 세계를 택한 것이다.

《참고문헌》

이문규, 『허균문학의 실상과 전망』, 새문사, 2005, p.379

김명희, 『허부인 난설헌 시 새로 읽기』, 이화, 2002, p.419

6. 대표작품 및 분석

20151122 이세은

다시는 시를 읊지 않으리라

-허균-

마흔하고도 세 해를
글 짓는 데 매달려

헛된 마음고생에
천금을 다 털어 부었다.

시와 산문 열 권을
막 읊겨 적어 끝냈으니

앞으로 다시는
글을 읊지 않으리라

「홍길동전」이라는 대표 작품을 통해 소설가 허균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홍길동전」은 홍길동이 서자로서 가지는 사회적 한계를 넘지 못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서 살아가는 내용의 소설이었다. 그 당시에는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적서차별에 대해 다룬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의 소설이었다. 소설가 허균으로서 높게 평가 받고 있고 홍길동이 대표 작품이지만, 허균은 소설 보다는 시를 통해 자신의 진실 된 속내를 적는 문인이었다. 시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문인이었던 만큼 소설이 아닌 시로 허균을 소개하려고 한다.

-작품 분석-

이 시는 허균이 붓을 쥐기 전, 그의 마음을 적어 놓은 마지막 시이다. 허균은 이 시의 2연에서 글 짓는 데 매달린 것을 헛된 마음고생에 천금을 털어 부었다고 표현한다. 사는 동안 글을 쓰는 일을 잠시도 게을리 하지 않았던 문인이 그 일을 헛된 마음고생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당시 아끼는 벼이자, 인정하던 시인의 억울한 죽음이 그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3연에서는 허균이 그 동안 자신이 작품을 문집으로 엮는 모습이 그려진다. 시에서는 ‘시와 산문 열 권’이라고 표현 되어 있지만 이 때 허균이 묶어낸 문집은 총 예순 네 권이나 되었다고 한다. 그 만큼 문학을 즐기는 허균이 절필을 다짐하면서 그의 심정이 많이 아쉬웠을 거라 짐작해본다.

그가 절필을 선언한 데는 친애하는 벼의 억울한 죽음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친애했던 벼이자, 문인으로서 인정했던 시인의 죽음 이후, 허균의 인생은 많이 달라진다. 당시 정치계에 염증을 느끼고 멀리했던 허균이 문인으로서의 삶을 정리하고, 정치인으로서 당시 왕의 최측근이었던 이이첨과 손을 잡고 광해를 돕는다. 광해의 정적인 영창대군을 유배 보내고, 유교 사상에 어긋나는 일인 인목대비를 폐하는 일이 신료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게 여론을 움직이는 등 왕의 손발이 되어 신임을 얻어갔다. 그렇게 탄탄대로의 정치 행보를 하다가 허균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 한 이이첨에 의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된다.

《참고문헌》

이경혜, 『할 말이 있다』, 알마, 2011, pp.247-251

갑산으로 귀양 가는 하곡을 전송하며

-허난설헌-

머나먼 갑산으로 귀양 가는 나그네여
함경도로 가느라고 마음 더욱 바쁘시네
쫓겨나는 신하야 가태부시지만
임금은 어찌 초나라 회왕이시랴
가을 비긴 언덕엔 강물이 찰랑이고
변방의 구름은 저녁노을 물드는데,
서릿바람 불어 기러기 울어 예니
걸음이 벗어진 채 차마 길을 못 가시네

여성이 재주가 많으면 박복(薄福)하다고 믿던 시절에 태어난 재주 많은 여인인 허난설헌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그런 삶 때문이었는지 허난설헌의 시는 봉건 사회에 사는 여성으로서 가지는 인간적 고뇌와 좌절, 갇힌 세계에서 느끼는 한계가 작품으로 나타나 있기도 하다.

위에 적은 작품은 유배를 가는 오라버니 허봉에게 적어준 시이다. 그녀의 오라버니는 허난설헌의 재주를 인정했고, 허난설헌도 그런 오라버니를 많이 아꼈다. 그렇게 아끼는 오라버니에게 바치는 시이니 이 시는 다른 어떤 시보다 허난설헌의 마음이 더 드러난 시라고 할 수 있다.

-작품 분석-

이 시는 제목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유배를 떠나는 오라버니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 선조를 초나라 때 회왕에, 허봉을 신하 굴원에 비유했는데 이는 회왕이 모함에 빠진 충신 굴원을 조정에서 내쫓아 결국 굴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 사건을 두고 한 비유이며, 어리석은 왕의 모습을 선조에 비유하면서 직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에는 허난설헌의 다른 작품과 달리 오로지 오라버니에 대한 애절한 정과 떠나는 오라버니에 대한 안타까움만이 드러나 있다.

《참고문헌》

허미자, 『허난설헌』,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7, p.51

김명희, 『허난설헌의 시 문학』, 국학자료원, 2013, pp.84-86

7. 문학사적 의의

20151111 김진성

대개 허균은 <홍길동전>과 연관시켜 최초의 국문 소설가로 알려져 있고 허난설헌은 그저 허균의 누이이자 여류작가로만 생각되지만 그들의 활동과 쓴 글들을 잘 살펴보면 허균의 혁명가적 모습과 허난설헌이 느낀 당대 여성의 고통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6세기 격동의 조선시대에서 과격적으로 당대의 윤리관을 벗어던지고 성리학을 비판한 소설을 쓴 허균과 여성으로써의 한계를 딛고 글을 써 이름을 알린 허난설헌의 문학사적 의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흔히 허균하면 홍길동전의 작가라는 점을 먼저 떠올리지만 허균은 유학자이자 시인이기도 했다. 그의 시와 글에선 당대의 사실적인 모습과 국가정책들을 잘 살펴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노객부원’에서는 임진왜란 이후 피폐해진 백성의 모습을, ‘병론’과 ‘학론’에서는 군대와 신하들에 관한 정책적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그의 누이인 허난설헌은 규원(규정) 같은 시에선 한 여인으로써 지아비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을, ‘유선시’ 등에선 여성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도 발휘할 수 없어 결국 도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능력 있던 여성의 한을 나타낸다.

‘손곡산인전’과 ‘남궁선생전’, ‘장생전’ 등등 허균이 쓴 글들을 보면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재능은 있지만 신분이 낮아 출세하지 못하는 인물들 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속례를 따르는 것을 거부한 반속례인 이기도 하다. 이는 허균이 당시 유교사회의 모습을 비판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허난설헌은 그녀의 시를 읽은 중국의 문인 주언여가 중국 최고의 시인인 이백과 강업조차 경탄할 시라고 극찬했는데. 여성으로 태어나 조선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글을 써 세계적인 여류작가로 이름을 알렸다.

허균과 허난설헌의 작품들을 보면 서로 상이한 글이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의 작품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사회문제이다. 둘 모두 자신이 보거나 겪은 사회적 부조리와 문제를 글속에 나타내는데 처음 소개한 홍길동전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홍길동전은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는 점과 당대의 사회 문제였던 서얼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라는 점이 허난설헌은 마음껏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시 속 신선의 세계로 도피할 수밖에 없던 그녀 스스로 한탄하며 왜 조선에 여인으로 태어나 김성립의 아내가 되었느냐고 말하는데 이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거의 불가능 했던 당대의 현실에 대한 그녀의 불만을 나타낸다.

이를 정리하자면 허균은 문학을 통해 당시 부패해 가던 유교사회의 문제점을 알리고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과 허난설헌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재능을 발휘해 여성의 활동이 억압받던 시기 조선의 여류 시인으로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다는 점이 문학사적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박혜숙, 『허난설헌』,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4. p.52, p.64, p.125

김성남, 『허난설헌』, 동문학, 2003, p.195

허경진, 『허균평전』, 돌베개, 2002, pp.62-64, p.71, p.94, p.125, p.297

이문규, 『허균문학의 실상과 전망』, 새문사, 2005, p.72, p.86

8. 유적지

20141113 김주민

(1) 허난설현의 묘

허난설현의 묘의 소재지는 경기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산29-5번지이다. 허난설현의 묘는 현재의 위치에서 약 500m 우측에 있었으나 1985년 현 위치로 이전되었다. 문인석을 제외한 묘비·장명등(長明燈:무덤 앞에 세우는 돌로 만든 등)·상석·망주석·둘레석은 근래에 만들어졌다. 묘비의 비문은 이승녕이 지은 것이며, 묘의 우측에는 1985년 전국시가비건립동호회에서 세운 시비(詩碑)가 서있다. 시비에는 허난설현의 곡자시(哭子詩)가 새겨져 있으며 시의 대상인 두 자녀의 무덤이 허난설현의 묘 좌측 전면에 나란히 있다.

(1) 허난설현의 묘



(2) 강릉이광노가옥



(2) 강릉이광노가옥 (허균과 허난설현의 생가)

강릉이광노 가옥의 소재지는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475-3이다. 이 가옥의 형태를 말하자면 맞배지붕의 솟을대문을 중심으로 우측에는 3칸의 광이 있고 좌측으로는 행랑방과 마굿간이 있다. 대문간 채를 지나면 잘 다듬어진 정원과 함께 사랑채가 나타난다. 사랑채는 팔작기와지붕의 장혀수장집으로 전면에 툇마루가 있으며 우측에 대청 2칸이 있다. 자연석 초석 위에 정면은 두리기둥으로 멋을 냈다.

초당의 소나무 숲과 더불어 이루어진 가옥의 배치에 따른 형태미와 정원은 전통적인 한옥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참고문헌》

(1) 허난설현의 묘 참고문헌 => “문화재청”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1&VdkVgwKey=23.00900000.31>

(2) 강릉이광노가옥의 참고문헌 => “디지털 강릉문화대전”

<http://gangneung.grandculture.net/Contents?local=gangneung&dataType=01&contents_id=GC00300338>

5조-김시습

1. 김시습의 생애

20151115 노이지

김시습은 1435년 서울 성균관 부근의 선비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스스로 여덟 달 만에 글을 익혔기 때문에 친척인 집현전 학사 최치운이 시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또한 어릴 적부터 풍경을 보고 한시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5세에 이르면서는 <중용>, <대학>에도 능통하여 사람들이 신동이라 일컬었다.

김시습은 13살 때 대사성 김반에게서 논어, 맹자, 시전, 춘추 등을 배웠으며 사성 윤상에 게서는 주역, 예기, 역사 문헌 등을 배웠다. 김시습이 15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 장 씨가 돌아가시자 그는 외할머니 슬하에서 자라게 된다. 하지만 그의 외할머니도 어머니 3년 상이 끝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는 몸져누운 아버지와 단 둘이 생활하게 된다. 한동안 이러한 이유로 그는 잠시 공부를 중단하게 된다.

김시습은 21살이 되자 서울 삼각산에서 글공부에 열중하기 시작했다. 세조가 왕위를 빼앗은 그 당시의 현실에 대해 김시습은 통곡하는 동시에 읽던 책을 모조리 불살라 버리고 유관을 벗어던지며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 또한 머리를 자르고 중이 되어 스스로를 ‘설잠’이라 하였다. 그는 조선 팔도를 다 돌아다니며 수많은 시를 창작하기 시작했다.

1495년 10월 세조가 자기 조카인 단종을 학살하는 참변이 일어나자 김시습은 벼슬에서 물러선 정재 조상치, 돈학 송간 등 10여 명을 모아 세조 정권에 대한 천인공노할 비행을 폭로하였다. 또한 김시습은 조상치, 포신 박계손, 운과 박효순 등 여덟 사람과 함께 금화군 산골 구운동에 초막을 짓고 사처에 돌아다니면서 당시 권력층들에 대한 풍자와 비판을 일삼았다. 김시습은 그 이후 관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노래한 시집 <탕유관동록>을 창작하였고, 1460년에는 호남지방을 여행하며 기행시집 <탕유호남록>을 썼다.

김시습은 그가 30살이 되던 해에 동남해안 및 경상도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이듬해 봄에는 신라의 옛 서울인 경주에 갔다. 경주 남산 금오산에서 그는 매월당이란 서재를 짓고 일생을 그곳에서 보낼 준비를 하였다. 그러던 중 효령대군이 시습에게 보낸 편지를 보고 서울로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세조의 참석 하에 연회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 도중 그는 세조에게 뜻을 굽히지 않기 위해 자리를 뜨고 만다. 그 후 김시습은 금오산 매월당에서 약 6년 동안 한문 소설집 <금오신화>를 창작하는데 매진한다. 이 시기에 <탕유금오록>도 창작하게 된다.

성종이 즉위한 후, 그 이듬해 가을부터 김시습은 양주군 수락산 산속에 있는 폭천정사에서 산 사람의 생활을 계속한다. 이 시기에 그는 백성의, 생재설 등 수십 편에 달하는 정론과 정론시를 썼다.

그가 44살이 되던 해인 1479년에는 머리를 기르고 안씨와 결혼해 아들을 두었다. 하지만 그의 가정생활은 그다지 순탄치 못했고, 오래지 않아 그의 처자가 다 죽고 말았다. 이시기 권력층 내부에서는 사림파와 훈구파 사이의 권력 쟁탈전이 표면적으로 노골화되어갔다. 그는 폐비 윤 씨 사건 때문에 서울 부근에 있고 싶지 않아 또다시 방랑 행장을 꾸리고 떠났

다. 양양, 강릉 지방에서 농사를 지었으며 설악산, 청평 등을 찾아다녔다. 또한 시집 <관동 일록>, <명주일록>을 창작하고 양양 태수 유자한 에게 받은 위탁을 통해 <황정요책>을 쓰게 된다.

1493년 3월경 김시습은 충청남도 홍산 무량사에서 병들어 몸져눕는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고는 한 많고 기구한 일생을 마치는데 이때 그의 나이 59살이었다,

《참고문헌》

허문섭 외 옮김, 『김시습 시선집』, 학문사, 1994,
심경호, 『김시습 평전』, 돌베개, 2003, pp.599-707

2. 김시습일화

20151127 이준원

조선 초기 인물인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은 나면서부터 총명하였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신동이라고 불렸다. 위 글에서는 그의 조숙한 천재성을 엿볼 수 있는 일화를 말해보고자 한다.

김시습이 세 살 되던 1437년(정사) 봄에 이르러 말을 조금 자유롭게 하게 되었을 때이다.

그는 외할아버지께 “시를 어떻게 지어요?” 하고 물었고, 외할아버지는 “일곱 글자를 나란히 잇고 평측(平仄)을 맞추고 대우(對偶)와 압운(押韻)을 하는 것이 시란다” 하고 가르쳐주었다

김시습은 그 뒤로 신이 나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시구를 내뱉었다. 둘-둘-셋의 글자를 연결하여 일곱 글자의 시구를 이루는 방법을 세 살 때 깨우쳐 알았다고 한다. 얼마 지나서, 유모 개화(開化)가 보리를 맷돌에 갈고 있는 것을 보고 맷돌 시를 지었을 무렵에는 연구를 지을 줄 알았던 것 같다고 한다. 어린아이가 연구를 잘 지으면 신동이라고 부르는 일은 이미 고려 중엽부터 있었다. 김시습이 맷돌 시를 지은 것은 서너 살 때의 일이니, 그의 천재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아래는 김시습이 읊은 연구이다.

비도 안 오는데 천둥 소리 어디서 나지
누런 구름이 풀풀 사방으로 흩어지네

이와 같은 그의 재질은 마침내 궁중에까지 소문이 나게 되었고, 세종도 김시습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즉시 지신사에게 전지(傳旨)²⁾를 내려, 김시습을 대언사(代言司)로 불러 과연 그가 신동인지 아닌지 알아보게 하였다. 승지는 시험을 거듭했고, 김시습은 그때마다 시구를 척척 지었다. 승지는 이 사실을 어전에 들어가 아뢰었다. 이에 세종은 감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지(傳旨)하였다고 한다.

내가 친히 인견(引見) 하고 싶지만 관례에 없던 일이어서 사람들이 듣고 놀랄까봐 두렵다. 집으로 돌려보내어 그 아이의 재주를 함부로 드러나게 하지 말고, 지극히 정성스레 가르쳐서 키우도록 하라. 성장하여 학문을 성취한 뒤에 크게 쓰고자 하노라.

이 때 그의 나이는 다섯 살이었다. 세종대왕은 김시습을 만나보고 그 재간을 기특히 여겨 상으로 비단 50필을 주었다. 사실 이는 어린 아이의 힘으로 무거운 비단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가 시험해보고자 하는 세종의 뜻이었다. 김시습은 비단을 모두 풀어 연결한 후에 한 쪽 끝을 자신의 허리에 묶고 유유히 밖으로 나가니, 세종은 김시습을 더욱 기특하게 여겼다고 한다. 그는 『동봉가』에서 그때의 일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오세에 글을 지어 문필 의젓하였다네.
세종임금 이 말 듣고 궐내에로 부를 적에
일필 휘지하매 용사 비등하였어라.

《참고문헌》 심경호, 『김시습 평전』, 돌베개, 2003, pp.81-83, pp.89-93, pp.126-127

2) ①임금의 뜻을 담당 관청이나 관리에게 전한다는 의미. ②조선 시대 세종 25년(1443)에 내린 전지에 의해서 임금이 전교(傳敎)하는 것 중에서 세세한 일에 관련된 것을 전지라고 하였음.

3. 김시습의 작품 활동

20151139 이경원

김시습은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이자 그의 대표작으로 알려진 <금오신화>를 창작하였다. 이 작품은 1460년에 경주 금오산에 들어가 살면서 창작한 단편 소설이다. <금오신화>는 다섯 편의 단편 소설로 묶여져 있다. 다섯 편의 소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생규장전>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는 이생과 최랑 간의 순결한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인간의 개성을 억누르고 봉건적 윤리도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진보적인 성향을 보여 주고 있다. 작품 속 최랑의 형상을 통하여 외적에 대한 불굴성과 고결한 지조를 보여 주고 있다. 이처럼 <금오신화> 속에는 엉뚱하고 재기발랄한 상상 속 지식인의 깊은 고뇌가 배어 있는 작품으로 현실 세계에서 온전하게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들이 나온다.

1476년에 의상의 <일승법계도합시일이>에 주를 달아 <대화엄일승법계도주병서>를 엮기도 하였다. 1493년 되는 해에 <묘법연화경>의 발문을 쓰는 것을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가 죽으니 18년 되는 해에 선조가 그의 시집을 엮으라는 명을 내려 그의 시들이 모아지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이자가 10년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3권을 수집했는데 그것이 매월당 김시습의 자필본이었다. 그 뒤 윤춘년에 의해서 편집되어 <매월당집>을 간행하였다고 한다.

삼각산중흥사에서 공부 중이던 김시습은 세조의 왕위 찬탈 소식을 듣고 통분하는 일이 있었다. 그 길로 김시습은 책을 태워버리고 중이 되어 방랑의 길을 떠났다. 그는 관서, 관동, 호남 등지의 농촌, 어촌, 산촌을 두루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생활을 체험하였다고 알려진다. 1458년 가을에 김시습은 봄부터 가을까지 관서지방을 여행하며 지었던 시들을 엮어 <유관서록>이라 이름 하였다. 또 호남지방을 유람하면서 지은 시들을 그해에 바로 엮지는 못하고 1463년 가을에 <유호남록>이라 하여 엮었다.

이와 같이 김시습은 소설뿐 아니라 여러 시들도 창작하여 재능 있는 시인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한다. 평소 그는 가난한 농민들의 궁핍한 삶에 끝없는 동경을 보냈다. 그 모습이 시에 잘 드러나 있다. 서민을 동경하여 노래 부른 시가 드러난 그의 대표 작품으로는 <산골농민의 고생>, <농부의 하의>, <벌목부의 노래>, <어부>, <사변>, <누에치는 아낙네> 등이 있다. 서민의 삶에 동경하는 김시습의 모습은 <딱따구리>에서도 볼 수 있다. 놀고먹는 권력층을 줌벌레에 비유하면서 이 줌벌레를 쪼아 먹는 딱따구리를 찬양하며 권력층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내고 있다.

김시습은 애국 시인의 면모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애국 주제가 비추어진 시로는 <고민에 잠겨서>, <나그네의 밤> 등이 대표적이다. 그의 애국적 정열은 김시습 자신의 조국 산천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 때문인지 김시습의 시에는 삼천리금수강산을 노래한 시가 많다. 대표작으로는 <성거산에 오르면서>, <박 연>, <대동강에 배 띄우고>, <부벽루> 등이 있다.

《참고문헌》

허경진, 『한국의 서시4』, 평민사, 1986

김시습, 『세계문학전집2014 금오신화』, 민음사, 2009

심경호, 『김시습 평전』, 돌베개, 2003, p.11, p.166, p.199, pp.225-227, pp.382-389

4. 김시습의 작품세계

20141131 이소정

김시습은 현실 참여적 성향이 강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흔히들 말하는 시대를 잘 못 타고난 인물로서 현실정치에 참여하기에 어려운 상황 속에 놓였다.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않은 그는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갈등 속에서 어느 곳에도 안주하지 못한 채 기구한 일생을 보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사상과 문학은 이러한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국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얻은 생활체험은 현실을 직시하는 비판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야를 넓게 했다.

김시습의 시집 『매월당집』 속 시 세계를 보면 세간과 궁궐, 자연,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다루지 않은 것이 없다. 그 가운데서도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발견 할 수 있다. 먼저 방랑을 통해 얻게 된 넓은 시야로 백성들의 어려운 생활과 사회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고발하는 모습. 두 번째로 이른바 사유록(四遊錄), 즉 <유관서록> · <유관동록> · <유호남록> · <유금오록>과 같은 기행시를 통해 유랑한 지역의 산천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모습을 들 수 있다.

한문소설 『금오신화』는 김시습이 비현실적 세계를 동원하여 작품을 창조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비현실 세계를 다루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이를 통해 현실을 직시하고자 한다는 점이 그의 소설 세계를 설명해준다. 최녀로 대표되는 굳건한 기상이나 의지를 지닌 한국적 인물들을 창조했다는 점, 공간적 배경을 조선으로 함으로써 주체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점, 주인공들의 비극적 결말을 통해 작가의 기구한 처지를 투영하고 있다는 점, 애민(愛民)적 왕도정치(王道政治)사상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 등은 작가가 비현실적인 소설 내용 속에 현실세계를 비추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유가적 선비의 입장을 견지하던 주인공들이 불교적 인연관이 투영된 만남을 통해서 결국엔 죽음이나 어디에서 생을 마쳤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도가적 모습으로 귀결되고 있는 공통점은 유교, 불교, 도교를 두루 통합을 지향했던 작가의 철학 세계를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김시습, 이지하, 『금오신화』, 민음사, 2012, pp.165-168

심경호, 『김시습 평전』, 돌베개, 2003, pp.267-283, pp.599-607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1996, 3권 p.97, p.281, 7권 p.294

5. 김시습 대표작품 및 분석

20131137 지윤정

김시습의 저서로는 『매월당집』, 단편소설집 『금오신화』, 그리고 『4유록』 6권, 『4유록』에 묶여있지 않는 시집 9권 등 모두 19권 5책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로 널리 알려진 『금오신화』는 그의 창작계열에서 뿐 아니라 우리 민족 문학사에도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김시습의 대표작이다.

『금오신화』는 「만복사적포기」, 「이생규장전」, 「취유부벽정기」, 「남영부주지」, 「용궁부연록」의 총 다섯 편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 이야기는 각각의 이야기가 완결된 서사구조를 지니고 있어 개별적으로 독립된 작품이다. 또한 구성이 매우 정교하고, 시를 삽입하여 인간의 심리와 분위기를 독특하게 암시하였다. 「남영부주지」는 예외지만, 다른 네 작품은 모두 시나 사·초사체(楚辭體)를 이용하여 정경을 묘사하고 사건의 흐름을 암시하며 극적 긴장을 고조 시켰다.

『금오신화』는 비현실적인 소재를 이용했고, 기이한 상상을 거리낌 없이 글로 적었다. 그러면서도 그 기이한 상상에만 탐닉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세계의 실상과 의미를 생생하게 드러냈다. 특히 「만복사적포기」는 고려 말 왜적의 침략을 배경으로 하고, 「이생규장전」은 고려 말 홍건적의 난을 배경으로 하여 외적의 침략으로 인한 민족의 아픔을 그려냈다.

한편, 「취유부벽정기」는 옛 도읍 평양을 무대로 삼아, 풍경 속에 민족사의 흐름이 스며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남영부주지」는 조선 초에 유행한 지옥의 관념을 소재로 삼으면서, 올바른 이념이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의 악(惡)의 상태를 고발하였다. 「용궁부연록」은 개성의 박연폭포에 산다는 용 전설을 끌어와 환상의 공간 속에서 모든 고통이 소멸된 환회를 유쾌하게 노래하였다.

『금오신화』에는 김시습의 솔직한 모습과 자신의 운명에 대한 비탄과 현실도피가 담겨있다 할 수 있다. 세조의 왕위찬탈을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못하고 문학작품을 통한 우회적인 비판과 주인공들을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인물로 표현하여 자신의 비극적 운명을 한탄하는 의도가 보인다.

그의 작품으로는 서민을 동정하여 노래한 시 『산골농민의 고생』, 『농부의 하의』, 『누에치는 아낙네』, 『농민들이 토란국을 끓인다』 등도 있다. 이 작품들 중에서 시 『산골농민의 고생』은 농민을 동정한 시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시이다. 이 시는 모두 여덟 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인은 가난한 농민들의 궁핍한 삶에 끝없는 동정을 보내고 있다. 이 시에서는 당대 농민들의 궁핍한 삶을 구체적이고도 생동한 화폭으로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농민들의 기막힌 생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구를 어진 새 임금이 좋은 법을 내리는 것에서 찾고 있는 제한성도 보여 주고 있다.

《참고문헌》

허문섭 외 옮김, 『김시습 시선집』, 학문사, 1994

김시습, 『금오신화』, 서울출판사, 1998, pp.159-168

김시습, 『세계문학전집2014 금오신화』, 민음사, 2009,

6. 김시습에 대한 평가 및 문학사적 의의

20131118 박 현

김시습(金時習, 1435 ~ 1493)은 조선 전기의 문인 겸 학자로 세 살 때부터 시를 짓고 다섯 살 때는 세종이 친히 불러 시를 쓰게 했을 정도로 매우 총명하였다. 이 일화를 연으로 세종은 김시습을 훗날 크게 쓰겠다고 약속한다. 계유정난이 일어나고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는 바람에 김시습이 크게 쓰일 기회는 막혀버리고 말았다. 이로 인해 김시습은 이상이 현실에 꼭 부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김시습은 그런 현실에 순응하지 않는 쪽을 택하였다.

그는 단종의 제사를 지내고 사육신의 시신을 수습하는 등의 행동으로 세조가 그릇된 행동을 했다는 것을 확실히 해두었다. 또한 기존의 예법을 무시하는 반체제적인 행동을 계속하여 보여주었다. 이처럼 김시습은 당시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는 직접 정치계에 남는 방법으로 그 현실을 바꾸려고 노력하지는 않았고, 그런 그의 삶의 방식은 세상을 바꿀 수 없었다. 오히려 당시 사람들은 김시습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다. 직접 그 정치계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하는 점,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오늘날의 희극인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한다. 오늘날의 희극인들도 정치계의 문제점을 대중을 대신해 비판, 풍자하면서도 직접 그 정치계에 관여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는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김시습의 행동을 지지하기는커녕 그저 방외인으로만 알았을 뿐, 그의 사상이나 작품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다. 만일 그가 방외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지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면 그의 참모습이 조금 더 일찍 보였을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김시습은 자신의 이상과 맞지 않는 현실을 접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을 택했고, 방외인의 삶을 사는 것을 그 방법으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김시습 자신도 결국엔 잘못된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등,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잘못된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해 비판했다는 것은 그의 태도가 적극적이었던 소극적이었던 간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시습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확고했기 때문에 이해를 받지 못하였던 것뿐이고, 사실은 정치계에 직접 발을 담그지 않고 그만큼 자유롭게 그들을 비판할 수 있었던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그가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집인 <금오신화>의 저자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의 사상과 작품은 현대에 와서는 그 가치를 높게 평가 받고 있다. 그 외의 그의 품성에 대한 면에서도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서 지킨 절의는 후세에 와서도 칭송 받는다. 또한 지식인의 측면으로는 유교와 불교 모두에 밝았고, 도교에도 밝아 그 세 사상을 하나로 하려했던 것은 큰 의의가 아닐 수 없다. 그 당시 김시습은 현실을 마냥 무시하고 겉도는 방외인의 모습만을 하고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세상은 그를 총명한 천재문학자, 절의를 끝까지 지킨 학자로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김시습은 문학사적으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심경호, 『김시습 평전』, 돌베개, 2003

7. 김시습 유적지

20151104 김나현



1. 경주 남산 용장사곡 삼층석탑

(탑신부)

(기단부 및 1층 탑신)

보물 제186호로 김시습이 머물던 절터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해주는 석축이다. 이 탑은 무너졌었으나 1922년도에 재건하였다.

경주는 김시습이 가장 오래 머문 곳이며 그의 집터가 남아 있는 곳이다. 김시습의 나이 29세가 되었을 때 정착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져 자신의 근원지인 경주 곳곳을 찾아보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김시습은 ‘용장사’라는 금오산의 중턱에 위치한 절을 발견하였고 그곳에서 승방을 얻어 머물며 우리나라 최초 한문소설인 「금오신화」(金鰲新話)를 집필하였다.

2. 무량사 김시습 부도



위 사진은 충청남도유형문화재 제25호로 김시습의 사리가 들어있는 부도이다. 이 승탑은 조선시대 조각기법으로 화려하며 우수하다.

김시습은 무량사에 머문 이후 건강이 악화되어 병이 깊어졌다. 자신의 죽음을 임박했음을 느낀 김시습은 주위사람들에게 화장대신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본래 중이 열반하면 화장을 하는 것이 통례이지만 김시습은 그것을 거부했다고 한다. 절에서는 그의 유언대로 매장을 하였고 좋은 못자리가 나타날 때 까지 가매장을 했다. 그렇게 3년 후 안장시키기 위해 절에서 그의 관을 열어보자 김시습이 살아있을 때의 모습 그대로 누워있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의 시신을 꺼내어 화장하였으며 부도를 절 근처에 안치시켰다.

《참고문헌》

이종호, 『매월당 김시습』, 일지사, 1999, pp.128-130, pp.265-268

사진출처 : www.cha.go.kr

6조- 율곡 이이

1. 율곡 이이의 생애

20111136 장성은

율곡栗谷이이李珣는 조선 중종 31년에 외가인 강릉 북평마을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영특하여, 말을 배우면서 책을 읽을 줄 알았다고 한다. 실제로 13세에 진사시³⁾에 합격했고, 29세에 생원시⁴⁾, 명경과에 장원을 하기까지 약관 이후에만 아홉 번이나 장원을 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탁월한 영재인지 보여준다.

16세의 사춘기에 어머니 사임당 신씨의 상을 당하여,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1년 상복을 입은 뒤, 이듬해 17세에 상복을 벗고 심상心喪⁵⁾으로 삼년상을 입었다.

18세에 관례를 올리고, 19세에 강원도 금강산으로 입산하여 1년 가까이 불교에서 놀다가, 불교는 세간을 초월할 뿐이지만 유교는 세간을 초월한 본체의 세계를 제시하면서도 그 본체의 세계를 이 세상 밖에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 설정하고 있음을 깨닫고, 유교야말로 실학實學이라는 것을 자각하여 하산했다. 20세에 강릉으로 돌아와 「자경문自警文」을 짓고, 주자의 상을 그려서 간직하면서 그의 학문을 사모하는 뜻을 나타냈다.

22세에 노씨와 결혼하고, 23세에 예안에 들러 퇴계 이황을 만나보았다. 며칠 묵으면서 이황과 학문을 토론하고 돌아온 뒤로도 편지로 학문을 논했다. 이황은 장래를 기대하고 율곡을 격려했다.

26세에 부친상을 당하여 28세에 상복을 벗었다. 29세에 호조좌랑을 시작으로 49세에 병석에 누워 죽기까지 출사와 사직을 번갈아 하면서 내직과 외직의 중요한 직책을 거쳤다. 32세가 되던 해 1567년에 명종이 승하하고 선조가 즉위했다. 이듬해 봄에 이황에게 편지하여 새로 즉위한 왕을 돕도록 나오라고 권했다. 율곡은 명종 때 처음 벼슬을 하지만, 선조 때 본격적으로 정치와 학문 분야에서 활동했다.

34세에 「동호문답東湖問答」을 올리고, 봉사封事を 올려서 시무를 논했다. 35세에 이황에게 편지를 올려 『성합십도』에 관해 논했고, 그해 12월에 이황의 부음을 듣고 신위를 만들어 곡을 했다. 40세에 『성학집요聖學輯要』를 올렸다.

42세에 해주 석담石潭으로 돌아가 집을 짓고 형제와 살려고 경영했으며, 『격몽요결擊蒙要訣』을 완성했다. 향약을 결성하고 사창社倉을 세우는 일을 논의했다. 43세에 은병정사隱屏精舍를 짓고, 주자사朱子祠를 세워 조광조와 이황을 배향했다. 한글로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를 지었다. 44세에 『소학집주小學集註』와 『사서언해四書諺解』를 완성했다. 46세에 조광조와 이황의 문묘중사를 청했고, 『대학보유의大學補遺議』를 지었다.

47세에 당시의 폐단을 진술하는 봉사를 올리고, 12월에 병조판서에 임명되어 사직했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 48세에 『시무時務6조』를 올리고, 임금의 부름을 받아 입궐하다가 어지럼증으로 병조에 누운 일로 삼사의 탄핵을 받아 병조판서를 사직하고 파주 율곡리로 돌아갔다. 49세 서울 대사동 집에서 세상을 떠나 파주 자운산에 묻혔다. 1611년에 『문집』이 간행되었다. 1624년에 문성文成이라는 시호를 받았고, 1681년에 문묘에 종사되었다.

《참고문헌》 김태완, 『율곡문답』, 역사비평사, 2008, pp.443-445

3) 조선시대 국가감시(國子監試)의 별칭

4) 고려 및 조선시대 사마시(司馬試)의 하나. 여기에 뽑힌 사람을 생원이라 함.

5) 실제 상복은 입지 않지만, 모든 기거와 동작을 상복을 입은 것과 똑같이 하는 것.

2. 업적

20151108김은비

어려서부터 지혜롭고 어진 어머니께 교육을 받아 총명하게 자란 율곡이이는 어려서부터 배움에 소질이 있고 장원급제를 여러 번 하는 등 수재였다.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나라와 백성을 위해 큰 공헌을 한 율곡이이에게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

율곡이이는 정치가로서는 목숨을 걸고 임금에게 직언하고 개혁을 위해 힘쓴 개혁가였고, 철학가로서는 조선 중기의 퇴계 이황과 함께 기억되는 최고의 성리학자이며, 교육제도를 개혁하고 올바른 교육관을 성립하기 위해 힘쓴 교육자였다.

우선, 정치가로서의 율곡이이는 「동호문답」 세 번의 「만언봉사」, 「성학집요」를 쓰며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개혁을 이야기했다. 또한, 율곡이이는 임금에게 시무와 책을 올리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치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사 설치를 주장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과 참가자의 신분에 알맞은 향약을 만들어 백성을 가르치고, “10만 양병설”같이 국력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 등의 활동을 했다는 것을 통해 그가 얼마나 민생을 위해 힘썼는지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철학가로서 율곡이이는 이기일원론 즉, 이와 기가 다르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기존의 퇴계 이황을 비롯해 다른 성리학자들과는 다른 주장이었다. 퇴계 이황은 사단은 이가 발하여 기가 그것에 따르는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하여 이가 그것에 탄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율곡이이는 ‘이’는 절대적이고 순전한 형이상의 존재이므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기’만이 발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악을 엄격하게 구분하려 하지 않았고 보편적인 사랑을 강조하였다. 이 주장을 통하여 율곡이이는 퇴계 이황과 함께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성리학자로 자리매김하였다.

마지막으로, 율곡이이는 ‘교육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동호문답」에서 ‘교인지술’이라는 항목을 통하여 교육개혁에 관심을 보였던 율곡이이는 ‘은병정사’라는 학교를 세웠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중 초학자를 위한 교육서의 필요성을 느끼고 「격몽요결」을 편찬하였고 학생들을 위한 지침서인 「은병정사학교」, 「은병정사약속」, 「시정사학도」 또한 만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선비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규범을 담은 「문헌서원학규」와 공교육 제도의 개혁을 이야기한 「학교모범」을 만드는 활동을 통하여 교육자로서 활동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율곡이이는 죽기 전 순간까지 친구인 정철에게 조선을 걱정하는 말과 부탁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토록 율곡이이는 자신의 몸보다 조선의 안위를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또한, 지식인으로서 옳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 다른 선비들처럼 그것에 물들어 살지도, 현실을 피하거나 무작정 거부하지 않고 목숨 걸고 그것을 개혁하려고 했다. 이처럼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의 백성과 임금을 위해 일한 율곡이이의 업적과 삶을 알아보는 것은 개인의 이익만을 일하고, 불의를 보고도 피하거나 물들어 가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각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참고문헌》

한영우, 『율곡이이평전』, 민음사, 2013

박찬구 외9명, 『윤리와 사상』, 천재교육, 2012

3. 율곡 일화

20151118 송예지

공부가 놀이였던 율곡

오죽헌에서 사임당의 몸을 빌려 태어난 현룡(율곡 이이, 1536~1584년)은 어머니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아 3세에 말과 글을 깨우쳤다. 하루는 이이의 외할머니가 마당의 붉은 석류 열매를 보고 물었다. “아가, 이것이 무엇 같으냐?”/ “석류가 부서진 빨간 구슬을 껍질이 싸고 있다.”(石榴皮裏醉紅珠) 갑작스러운 외할머니의 질문에 옛 시에 나오는 말로 재치 있게 대답을 하자 일가친척들은 크게 기뻐했다고 한다.

어느 날은 같은 동네에 살던 우계 성혼은 율곡 이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성혼이 사랑하듯이 말했다. “나는 일곱 줄은 한 번에 읽을 수가 있소.”/“나는 한 번에 겨우 대여섯 줄밖에 못 읽소.” 이이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열 줄을 한 번에 읽었다고 한다. 이는 신사임당의 독특한 교육법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같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비해 서너 배로 공부를 한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었다.

현실에 바탕을 둔 학문

이이는 공부에 더욱 전념하여 아홉 번이나 장원 급제를 하는 신기록을 세웠다. 조정에 나가 호조 좌랑으로 시작하여 예조 좌랑, 사간원 정언 그리고 이조 좌랑에 제수되었다. 이조는 조선의 관리들을 임명하는 곳인데, 벼슬자리를 두고 뇌물이 오가는 바람에 혼탁했었다. 이이는 이를 보고 탄식하며 막아보려 했지만 오래된 관행은 쉽게 바꿀 수 없었다. 게다가 이이는 건강이 좋지 않아 사직 상소를 여러 차례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1568년에 이이는 천추사의 서장관이 되어 명나라 연경에 다녀왔다. 그때 을사사화로 죽은 선비들을 신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났다. 이이는 선조에게 “위훈을 삭제하고 명분을 바로잡음으로써 국시를 정하는 일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라며 강경하게 아뢰었지만,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선조는 망설였다. 하지만 이이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무려 41번의 상소 끝에 위훈을 삭제하게 되었다.

이처럼 강경하게 주장한 이유는 그의 학문이 현실 정치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이다. 의리와 실리, 이념과 현실은 하나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통해 성리학이 의리학과 실학으로 전개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

《참고문헌》

이수광, 『공부에 미친 16인의 조선선비들』, 들녘, pp.66-70

한철희, 『답사여행의 길잡이』, 돌베개(한국문화유산답사회), pp.204-208

4. 율곡 이이의 작품 활동

20151134 홍복희

율곡은 조선 중기의 유학자이자 정치가로 그는 교육을 위해 <격몽요결(擊蒙要訣)>과 <학교 모범(學校模範)> 등을 남겼고 향촌 교화를 위해 <가훈(家訓)>, <서원향약(西原鄉約)>, <해주향약(海州鄉約)> 등을 저술했다. 또 임금의 도덕적 수양을 위해 <동호문답(東湖問答)>, <만언봉사(萬言封事)>, <성학 집요(聖學輯要)>,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 등을 지어 선조에게 바쳤다. 그중 세 가지를 지금부터 소개하려고 한다.

첫 번째로는 이이의 저서 중 <율곡전서(栗谷全書)> 38권 중 제27권에 들어 있는 작품인 <격몽요결(擊蒙要訣)>이다. ‘격몽’이란 몽매한 이들의 지혜를 계몽하여 주는 일, 즉 교육을 뜻하며 ‘요결’이란 그 일의 중요한 비결이라는 뜻으로, 이를 한데 묶어 ‘격몽요결’이라 이름했다. 이 작품은 율곡이 1557년(선조 10년)에 해주 석담에 청계당을 짓고 제자들이 올바르게 나아갈 지침서로서 짓게 되었다.

저서에 있어서 정치, 경제, 교육 등 애국 애족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내용을 보면 입지(立地), 혁구(革舊), 지신(知申), 독서(讀書), 제의 초(祭儀鈔), 사친(事親), 상제(喪制), 제례(祭禮), 거가(居家), 접인(接人), 처세(處世) 등 모두 21장으로 되어있고, 그 내용이 보여주듯이 책은 당시의 유학 입문서라고도 할 수 있는 수양서인 까닭에 유학에 유의하는 선비로서는 꼭 읽어야 했던 필독의 서라고 전해 내려온다.

두 번째로 율곡이 선조 임금의 학문과 인격 수양을 돕고자 대학의 체계에 따라 사서오경 및 성현의 말을 선별하고 그에 대한 주석을 붙여 정리해서 올린 책인 <성학 집요(聖學輯要)>이다. 성학집요는 이기일원론[(理氣一元論) 성리학의 이론 중 하나]에 기반을 둔 율곡의 독창적 사상이 뚜렷이 드러난 작품인데, 퇴계의 <성학십도(聖學十圖)>와 함께 한국 성리학의 독자적 발전 과정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저작이다. 성학집요는 유학의 핵심 사상을 정리한 교양서라는 학문적 의의도 크지만, 그 바탕에는 부패한 권력층을 일깨우고 부조리한 사회 제도를 개혁하여 백성을 구제하려는 율곡의 간절한 염원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는 성학집요를 통해 율곡이 집대성한 유학의 핵심 사상과 율곡이 꿈꾼 이상 세계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569년(선조 2년) 홍문관 교리 신분으로 한 달여의 사기 독서를 마친 34세의 율곡이 새 군주 선조에게 과제로 제출한 보고서인 <동호 문답(東湖問答)>이다. 동호문답은 그의 조선 민족사와 당대 현실에 대한 의식은 물론 수기치인의 정치학적 개혁안에 관한 기본적인 구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 작품은 민(民)을 중심으로 현실을 개혁하고자 노력했던 조선의 대표적인 유학자 율곡 이이의 사상이 뚜렷하게 담겨있다. 또한 <동호 문답>에 담긴 민 중심의 현실 개혁 논의는 유교에 대한 편견에 이의를 제기하기에 충분하며, 율곡은 이 책에서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유교의 보편 면제에 대한 확신 아래 왕도정치(王道政治)에 대한 선조의 입지를 촉구하고 각종 제도의 개혁과 관리의 부정부패 근절의 실천, 곧 무실을 역설한다.

《참고문헌》

이민수, 『신판 격몽요결』, 을유문화사, 1999, pp.71-76

최영갑, 『성학집요, 교양으로 읽는 율곡의 성리학』, 풀빛, 2006, pp.134-141

안외순, 『동호문답, 선조에게 올리는 청년 이이의 수치기인의 정치개혁 보고서』, 책세상, 2005, pp.22-35

5. 율곡이이의 문학관과 『精言妙選』에 나타난 심미이상

20141121 박현경

율곡의 발표로 현재까지 발표된 것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성리나 사상에 관한 연구가 더 다양하다. 문학에 관한 논문은 드물고 율곡사상 전반에 관한 연구로서 알려진 연구에서도 율곡의 문학에 관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아래의 글을 보면,

선생의 시문은 유교 도덕에 관한 학문을 밝혀 세상을 다스리는 교훈을 돕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기에, 어렸을 때 읊조렸던 시문이나 과장의 시문과 같은 것은 거의 문집에서 빼버렸다.

『율곡전서』에 실려 있는 시는 쓸데없는 글자나 구절을 짊고 다듬어서 잘 정리한 것을 알 수 있어 실제의 작품 수는 『전서』에 실려 있는 것보다 훨씬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율곡 연구 중 철학이나 사상에 관한 연구에 비하여 문학에 관한 연구가 적은 것은 그의 문학 작품의 질량의 문제 때문이 아니다. 성리학자나 경세가로서의 비중이 원체 컸던 탓으로 이에 가리어 그의 문학 세계는 자칫 세인(世人)의 관심 밖일 수가 있었다는 이유를 들 수 있다.

이이의 다양한 책 가운데 시의 품격을 등급에 따라 나눈 『정언묘선』이라는 시 선집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많은 선집의 첫째 권인 <원자집>에 수록된 두 시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무위도사의 삼척금은 / 그 속에 만고의 무궁한 소리 있지 / 음은 돌 위에 쏟아져 흐르는 물과 같으니 / 그것을 쏟아도 다하지 않으니 근원이 깊기 때문이지 / 뿜기는 건 손가락에 있지만 소리는 뜻에 있어 / 마음의 뜻 이미 얻어 몸뚱이 이미 있으니 / 천지백일이 근심스런 구름에 가려지는 것 깨닫지 못했네

[2] 사람 사는 곳에 집을 지었으나 / 수레와 말의 소란스러움 없네 / 물노니 그대는 어찌 그럴 수 있나 / 마음은 멀고 땅도 절로 치우쳤음이니네 / 동쪽 울타리 아래에서 국화를 캐다가 / 유연히 남산을 바라보네

[1]은 다소 직설적인 진술에도 불구하고 독자들로 하여금 도의 근원에 대해 생각하도록 함으로써 고결한 도인의 기풍을 느끼게 한다. [2]는 한적한 전원엔 은거하고 있는 은자의 생활과 주변 환경의 조화로운 묘사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다. 격렬한 감정의 표출보다는 담담한 삶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언어로 전달할 수 없는 도의 경지에 대한 정감을 유발시킨다.

율곡 시대의 미의식을 살펴보려면 우선 많은 작가들의 작품을 꼼꼼히 읽고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지만, 당대의 시화나 시선 집을 통하여 나타나는 일련의 미의식을 분석함으로써도 가능하다. 율곡이 가장 첫머리에 위치시킨 충담소산은 시가 표현해 내야 할, 그리고 독자에게 줄 수 있는 감동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충담은 조화롭고 깨끗한 정신을, 특별한 감정의 기복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에서 보여주는 담담한 성리학의 세계이다. 소산은 주로 쓸쓸함, 슬픔 등의 정조를 기반으로 하는 인간의 정서를 표현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율곡이 상정했던 심미이상은 인간의 정서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그것이 수기와 치인, 자신과 국가를 외면하지 않는 곳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율곡의 심미이상이 어떻게 동시대의 문학과 연관을 맺는가, 현전하는 『정언묘선』의 다른 권은 어떻게 구분되고 개념화된 것인가 하는 점 등이 더 천착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최승순, 『율곡이이 사상과 철학의 이해2』, 율곡학회, 2006, pp.175-177, pp.205-211, pp.221-223

6. 율곡 이이의 대표 작품

20141109 김상연

林 亭 秋 已 晚 (임정추이만) ; 수풀 속 정자에 가을 저물어
 騷 客 意 無 窮 (소객의무궁) ; 시인의 시상은 가이 없구나.
 遠 水 連 天 碧 (원수연천벽) ; 하늘과 잇닿아 물빛 파랗고
 霜 楓 向 日 紅 (상풍향일홍) ; 서리맞은 단풍은 해를 받아 붉다.
 山 吐 孤 輪 月 (산토고윤월) ; 산위에 둥근달 돌아 오르고
 江 含 萬 里 風 (강함만리풍) ; 강물은 끝없이 바람 머금네.
 塞 鴻 何 處 去 (새홍하처거) ; 변방의 기러기 어디메 가뇨
 聲 斷 暮 雲 中 (성단모운중) ; 저물은 구름속 소리 끊졌다.

< 율곡전서 1권, 화석정 >

이 시는 율곡 이이가 여덟 살 때 파주에 있는 화석 정에 올라 지은 오언율시이다. <화석정>시는 그 격조가 혼성하여 시월에 능한 사람도 따를 수 없을 정도라 하였으니, 그의 시에 대한 재주를 방증하는 좋은 예다.

임진강 나루에 있는 화석정을 소재로 가을을 노래한 시이다. 가을의 계절감을 보여주는 시어들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배치하여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듯 가을의 풍경이 잘 나타나 있다.

이 외에도 율곡 이이의 대표작으로 금강산 기행시가 있다. 아래는 금강산 기행 시 중 하나인 <풍악행>의 설명이다. 이 시는 4단으로 구성된 600구 3000언의 대단원을 다시 25단락으로 세분해 나눌 수 있으며 단락별로 내용을 간추리면 아래와 같다.

| | 구별 | 단락 | 내용요약 |
|---|---------|-------|---|
| 기 | 1-32 | 1-2 | 태초에 ‘음양 동정’의 기틀 속에 천하 명산이 생성되게 된 내력을 설명. |
| 승 | 33-504 | 3-21 | 내금강과 외금강의 천하절경의 기틀 속에 천하 명산이 생성되게 된 내력을 설명. |
| 전 | 505-562 | 22-24 | 기묘한 생김새와 관련한 전설을 인용, 금강산의 신비함을 부각. |
| 결 | 563-600 | 25 | 600구 3000언의 <풍악행> 대단원을 기술하게 된 동기를 서술. |

이 <풍악행>은 54자의 압운과 195회의 환운으로 이루어진 오언고시이며, 기승전결 4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운 이라는 것은 도중에서 운을 바꾸는 것인데 율곡 이이는 잦은 환운을 이용하여 금강산의 굽이굽이의 아름다운 경치를 밀도 있게 묘사하려는 진지한 의도로 보인다.

《참고문헌》

정향교, 『율곡선생의 금강산시 역해』, 이화문화출판사, 1997, pp.44-109
 정향교, 『栗谷先生의 時文學』, 이화문화출판사, 1991, p.47

7. 율곡 이이, 문학적의의

20131130 이수진

한국 화폐 중에는 인물의 얼굴이 그려진 지폐가 4개있다. 4개의 지폐에 채택된 사람들은 이 시대까지 그들의 업적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인물들임을 알 수 있다. 이는 4명의 인물들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를 짐작케 해준다. 4명 중 한 명에 속하는 율곡 이이 역시 시공을 초월하여 널리 추앙받는 인물이다. 율곡은 정치가, 사상가, 교육자, 문인, 시인으로 다방면에서 활동하며 조선 최고의 문신으로 명성을 떨쳤다. 그의 실학적 사상은 약 500년이 흐른 뒤에도 만연하게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문학작품은 그리 많지 않을뿐더러, 문학가라기보다 유학자, 정치가 혹은 사상가로 우리에게 익숙하다. 약 13년을 공부하면서 율곡과 관련하여 배운 건 작품보다 그의 도덕사상임도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의 문학은 덜 가치 있고 덜 중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의 문학이 중요한 이유는 율곡의 높은 경지에 이른 학문과 현실정치에 대한 관심이 한 데 녹아 있는 글이 바로 그의 문학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하고 느껴야하는 그의 문학적 가치는 무엇인지 알아보하고자한다.

먼저 율곡의 사상과 문학세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율곡은 이의 근원이 하나일 뿐이며, 기의 근원도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기를 일원적으로 파악하는 이러한 그의 이기론은 ‘기’는 운동, 유행하는 자이고 ‘이’는 주재자로 ‘이발’을 즉, 기의 작용을 강조했다. 이것은 그의 문학론에도 잘 드러나고 있다. 그는 사람의 기가 내는 소리 가운데 뜻을 지니고, 즐거움을 주고, 글로 정착되고, 도리에 합당한 것을 선명(善鳴)이라 하여 문학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그 중 시는 굉장히 긍정적인 문학으로 사람의 소리 가운데 문사(文辭)가 가장 빼어나다고 말하고, 문사 가운데는 시가 으뜸이라고 하며 시를 옹호했다. 그 중에 시의 가장 높은 품격은 충담소산(冲膽蕭散)이라 했다. 충담소산은 꾸미고 장식하는 데 힘쓰지 않으나 자연스러운 가운데 품위를 갖춘 경지이다. 즉 기교주의보다 자연스러운 표현을, 그리고 담담한 표현을 중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이 잘 반영된 대표적 작품으로, <고산구곡가>를 들 수 있겠다. 이 작품은 당대에 주조를 이루었던 목적론적, 교화론적 시조들과 달리 순수한 자연의 형상화를 통해 도를 드러내고자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이처럼 율곡의 사상이 녹아내린 문학론은 사람의 소리(기)를 통해 발생된 문학(이)은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의 사상은 문학과 정치 모두 이 가치는 유효하며 율곡의 가치관은 자신만의 가치관에서 끝내지 않았고, 많은 문하생들을 발굴하여 그의 사상을 계속 이어나갔다. 율곡의 벗 송익필, 박순 그리고 송시열, 송준길, 이유태 등은 ‘율곡학’을 계승하였고 이들을 함께 묶어 율곡학파라 하여 후대에도 사상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참고문헌》

유명중, 『율곡의 학풍과 사상』, 세종출판사, 2002

한영우, 『율곡평전』, 민음사, 2013

네이버고전문학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4158&cid=41708&categoryId=44531>)

8. 유적-파주 이이 유적(坡州 李珣 遺跡)

20151136 구자현

파주 이이 유적 (坡州 李珣 遺跡)은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이이 선생 관련 유적이다. 2013년 2월 21일 **대한민국의 사적 제525호**로 지정되었다. **파주 이이 유적**은 이이선생을 배향한 자운서원과 이이선생 및 신사임당의 묘소를 포함한 가족묘역이 한 공간에 모여 있는 울곡 이이 관련 유적을 대표하는 곳으로 **한 인물에 근원한 문화유산이 모인 장소성이 큰** 의미가 있다.



▲ 자운서원



▲ 화석정

●자운서원, 경기기념물 제45호 (경기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산5-1)

1973년 7월 10일 **경기도기념물 제45호**로 지정되었다. 1615년(광해군 7) 지방 유림의 공의로 울곡 이이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하여 창건되어 1650년(효종 원년) 자운(紫雲)이라는 사액(賜額)을 받았다. **울곡 이이(1536~1584)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서원이다.**

●화석정, 경기유형문화재 제61호 (경기도 파주시 화석정로 152-72)

울곡 이이(1536~1584)가 자주 들러 시를 짓고 명상을 하며 학문을 연구하던 곳으로, 임진강이 굽어보이는 강가의 벼랑 위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 세종 25년(1443)에 울곡의 5대 조부인 이명신이 처음 지었으며, 성종 9년(1478) 이숙함이 화석정이라 이름 지었다고 한다. 임진왜란(1592) 때 불에 타 없어진 후 현종 14년(1673)에 울곡의 후손들이 다시 지었으나 한국전쟁 때 불에 타 없어졌다. 1966년 파주의 유림들이 다시 짓고 1973년 정부의 유적정화사업 때 건물에 색을 다시 칠하고 주위를 정리하였다.

《참고문헌》

자료 출처:

http://ko.wikipedia.org/wiki/%ED%8C%8C%EC%A3%BC_%EC%9D%B4%EC%9D%B4_%EC%9C%A0%EC%A0%81

http://search.cha.go.kr/srch_new/search/search_top.jsp?home=total&subHome=0&sort=&searchField=&page=1&query=%EC%9E%90%EC%9A%B4%EC%84%9C%EC%9B%90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1&VdkVgwKey=21,00610000,31

사진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92965&cid=40942&categoryId=3308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93131&cid=40942&categoryId=33084>

7조- 정철

1. 정철(松江)의 생애

20131135 정지은

정철의 아호는 松江(송강)이며, 정철은 중종 31년 1536년 12월 6일 서울의 藏義洞(장의동)에서 4남3녀 중 4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유년시절은 인종의 숙의였던 누님덕분에 매우 다복하게 지낼 수 있었다. 또한 정철은 인종이 세자로 있을 당시 대군이었던 명종과 남다른 우정을 도모했다. 그 후 1545년 정철이 10살이 되던 해에 을사사화가 일어났고, 이일로 인해 정철의 집안이 연루되어 그 피해로 아버지 정유침은 유배를 가게 된다. 1551년 정철이 16세 되던 해인 명종 6년에 원자가 태어나면서 정유침은 유배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정철과 정유침은 창평 으로 가게 된다. 일 년 후인 1552년 정철은 17세가 되었을 때 유강항의 딸과 결혼을 해서 슬하에 5남 4녀의 자식을 두게 된다.

1561년 정철은 26세 때인 명종 16년에 진사시험에 합격을 하고, 이듬해인 1562년 27세 때 문과별시에 장원하였다. 4년 후 1566년 정철이 사헌부 정언에 재직 중이었을 때, 처갓집의 재산을 뺏기 위해 처남을 죽인 경영군 사건이 있었다. 당시 명종은 법집행을 맡았던 정철에게 자신의 종형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관용을 부탁하였지만, 정철은 왕명인 명종의 부탁을 거절하였다. 이로 인해 정철은 파면되었으며, 전라도 광주로 내려가게 되었다. 1567년 그가 32세가 되었을 때 명종이 승하하게 되고, 그 후 율곡 이이와 더불어 호당에 선출된다. 후에 1570년 아버지 정유침을 여의게 되고, 3년 후인 1573년에 어머니마저 여의게 된다.

정철이 40세가 되던 해인 1575년 그는 홍문관, 직제학에 이어서 성균관 사성 등을 제수 받는다. 이 때 조정에는 심의겸과 김효원의 대립으로 대부분의 유학자들이 둘로 나뉘어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배들과 화합할 수 없었던 정철은 당시 왕이었던 선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창평으로 귀향한다. 이후 1577년까지 그는 창평에 거주하면서 많은 시를 쓰게 되고 ‘성산별곡’도 이 무렵에 쓰인다. 일 년 후 1578년 선조의 간곡한 부탁으로 정철은 43세 5월에 벼슬길에 나서게 되었다. 그해 11월에는 사간원 대사간에 제수되나 탄핵을 입고 체임된다. 진도군수 이수의 옥사사건에서 삼윤(윤현, 윤두수, 윤근수)의 억울함을 계로 올려 알리다가 탄핵을 받게 된 것이다. 2년 후인 1580년 정철은 강원도 관찰사를 제수 받고 다시 벼슬에 나아가게 되고, 1581년에는 내직의 참지에 제수된다. 이후에도 전라도 관찰사, 예조참판, 함경도 관찰사, 예조판서 등에 제수된다. 전라도 관찰사로 임명받고 예조판서가 될 때까지 정철은 사직을 원하는 상소를 올리고 임금은 윤허하지 않는 일이 무려 네 차례나 반복된다.

49세가 되는 1584년에는 더없는 지기였던 율곡 이이가 세상을 떠나고, 그에 대한 비통함이 컸던 정철은 ‘만울곡’이라는 곡을 쓴다. 그 해 5월에는 임금이 정철에게 총마를 특사했고, 1585년에는 양사의 논척을 받고 조정에서 물러나 다시 창평으로 내려간다. 이 때 정철은 창평에서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을 짓게 된다. 그리고 1589년 임금의 특명으로 우의정에 임명되어 다시 직에 나가게 되고, 1590년에는 좌의정으로 승진하였다가 양사의 탄핵을 받아 파면되고 만다. 이후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임금의 부름에 따라 평양에서부터 임금을 홀로 모시게 된다. 1년 후 1593년에는 북쪽의 조정으로 돌아오지만 엉뚱한 모함으로 체임되어 강화도로 물러가게 되고, 같은 해 12월 18일 정철은 강화도에서 58세의 나이로 숨을 거둔다.

《참고문헌》

김진욱, 『松江 鄭澈 文學의 再認識』, 역락, 2004, pp.24-42

신경림·이은봉·조규익, 『松江文學研究』, 國學資料院, 1993, pp.20-34

2. 정철(松江)의 업적

20151137 김강호

조선 중기의 문학, 특히 시를 다룰 때 가장 쉬이 들을 수 있는 인물이 정철이다. 송강 정철은 주표기수단이 한문이었던 당대에 수많은 한글 시를 남겼다. 퇴계 이황 선생과 같이 우리말 노래도 지어 당대뿐 아니라 후대에도 우리말 문학을 창작하게하고, 부흥시키는 데 큰 공을 세웠다.

그가 지은 시와 우리말 노래들을 <송강가사>로 묶어 여러 차례 간행되었다는 점은 그가 가사 문학, 우리말 문학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당시에 가곡을 짓던 이는 몇 있었으나 개인 가집을 내는 일은 흔치 않았다. <송강가사>의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 등은 사대부의 큰 호응을 얻었는데, 이는 그의 작품이 수려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서포 김만중이 자신의 저서인 서포만필에 조선에서 ‘관동별곡’과 ‘전후사미인곡’(사미인곡, 속미인곡)이 가장 대단하다고 칭송할 정도였다.

‘관동별곡’은 다른 기행가사와는 달리 산수를 보고 삶을 엮어 가는 사대부들의 가치관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그것은 강호의 낙을 즐기는 인물인 동시에 조정에 헌신할 수 있는 사대부가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그의 관료로서의 이상과 자연에 대한 생각이 운치 있고 독창적이기에 듣는 이와 읽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무릎을 치게 하는 것이다. 이 작품은 안축의 ‘관동별곡’, 백광홍의 ‘관서별곡’ 등의 영향을 받아 창작 되었는데 대중적으로 더 유명하다. 청출어람인 격으로 이 작품으로 인해 앞선 ‘관동별곡’, ‘관서별곡’이 대중들에게 더 알려졌다는 점에서 위대한 업적이라 할 수 있겠다.

‘사미인곡’은 여성 화자가 주체로서 님을 그리워하는 내용인데, 이는 정철이 임금을 사모하고 그리워 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사미인곡’은 임금을 사모하는 정철의 마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표현, 여성 화자의 비유 등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후대에 ‘사미인곡’을 본받은 가사들이 많을 정도로 당시 조선 가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속미인곡’은 ‘사미인곡’과 같이 군왕을 그리워하는 노래인데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었던 ‘사미인곡’과는 달리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우리말을 아름답게 구사하면서 그 정서를 표현한 면에서는 ‘사미인곡’과는 또 다른 미적 성취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작품 속 겁녀와 을녀의 대화에서 은은히 비추는 달보다 곱은비가 되겠다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통해 정철은 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극적으로 표현하여 미적 성취를 높였다.

위에서 김만중의 송강가사에 대한 찬양을 언급하였는데, 김만중의 종손인 김춘택은 ‘사미인곡’에 감명을 받아 ‘속사미인곡’을 짓기도 하였다. 이렇듯 가사 문학에서 수많은 속편이 나오고, 가사 문학을 부흥케 했다는 점에서 송강 정철은 국문학 발전에 상당한 업적을 남겼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만중, 『서포만필』, 문학 동네, 2010, p.664 정재호·장정수, 『송강가사』, 신구문화사, 2006, pp.11-174

3. 정철(松江)의 일화

20141116 김희인

송강은 유년에 궁궐에 드나들며 왕자들과 벗하고 놀기를 자주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정철이 10살이 되던 무렵 을사사화에 정철의 손윗누이 계림군 유가 윤임의 조카라는 이유로 연루되어 정철의 집안은 큰 화를 입게 된다. 계림군 유가 정순봉, 허자 등에게 구살 되었으며, 만형 정량공은 붙잡혀 매를 맞고 귀양을 가는 길에 죽었다. 아버지인 판관공은 구금되었다가 다행히 죽음만은 면하였다. 집안의 풍비박산으로 정철은 어린 시절 여러 해 동안 배움에 뜻을 둘 수 없었고 16살이 되어서야 학문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다.

학문을 수련하던 21살 때, 정철은 율곡 이이를 만나게 된다. 후에 그 둘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된다. 율곡과 정철은 동서봉당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서로의 입장차로 인해 불화가 생기기도 하지만, 송강이 정치적 곤경에 처하게 되면 율곡은 앞장서서 그를 변호하였다. 그로 인해 율곡은 동인들로부터 서인을 옹호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둘의 우의는 틀어지는 법이 없었다. 그 정도로 정철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준 율곡이 49세에 세상을 떠났을 때 정철은 큰 슬픔에 잠겼다. 율곡이 죽은 후 정철은 밑에 보이는 <挽友(만우)>라는 한시를 지었다.

人說人間勝地下
我言地下勝人間
左携栗谷右君望
半夜松風臥碧山

남들은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지만
나는야 저승이 이승보다 나을레라.
율곡이랑 군망을 좌우에 손잡고
한밤중 솔바람 푸른 산에 누우리니.

율곡을 잃은 정철의 슬픔과 둘의 사이가 가까운 친구였음을 알 수 있는 시이다. 율곡 이이는 살아생전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정철의 문학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또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정철은 문학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에서도 두루 활동하였는데, 그의 정치계 생활은 그리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정철이 56세 되던 1591년, 그는 선조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 그 이유는 당시 영의정이었던 이산해의 모함 때문이었다. 선조에게 1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선조는 그 가운데 인빈 김씨 소생의 신성군을 총애하였다. 이산해는 선조가 신성군을 총애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정철이 신성군 모자를 죽이려 한다는 말을 만들었다. 그 전에 정철이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할 것을 건의 한 것까지 빌미가 되어 그는 선조의 큰 노여움을 샀다. 그 후 사헌부와 사간원은 정철이 생활이 문란하고 조정의 인사를 마음대로 휘둘렀다며 정철을 파직시킨다. 파직된 정철은 유배생활동안 착잡한 심경을 노래한 시를 창작하게 된다.

그는 60년이 채 안 되는 생을 보냈지만 그 삶은 참 파란만장했다. 어린 시절의 가화부터지움의 죽음, 모함으로 인한 유배생활까지 힘든 생애를 보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일화가 정철의 문학을 더 꽃 피우게 한 활력이 된 듯하다.

《참고문헌》

박영주, 『정철 평전』, 중앙M&B, 1999, pp.62-326

신경립, 『松江文學研究』, 국학 자료원, 1993, pp.26-30

4. 정철(松江)의 작품 활동

20151105 김솔비

송강 정철은 조선 명종 때부터 선조 때까지 활약한 문신이자 훌륭한 가사와 시조의 작가이다. 그는 4편의 가사와 사설시조 3편, 90여수의 시조를 포함하여 약 760여 수에 달하는 한시를 창작하였다.

정철은 40세에 청년 시절을 보낸 곳이자 자신이 수학하였던 창평으로 내려와 문학 활동에 전념하였다. 서하당과 식영정을 중심으로 해서 계절이 변하는 경치와 풍류를 읊은 가사가 담긴 <성산별곡>이 바로 이때 지어졌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는 45세에 강원도 관찰사로 원주에 부임하여 다시 벼슬에 나아가게 되는데, 이때 내외해금강과 관동팔경 등을 유람하며 <관동별곡>을 짓는다. <관동별곡>은 대구법과 점층법, 감탄사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 풍부한 운율감과 빼어난 문장력이 돋보여, 단연 송강의 대표작으로도 손꼽힌다.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 이후 그는 <훈민가>를 창작하게 된다. <훈민가>는 백성을 계몽하기 위해 지은 16수의 연시조를 말하는데, 다른 이름으로 <경민가>라고도 불린다. 백성들이 스스로 깨달아 행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래를 지어 널리 불리게 한 것으로, 유교적이며 도덕적인 사상을 강조했다. 때문에 문학적인 가치는 적지만 문학사적으로는 큰 의미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5년 후, 그는 다시 창평으로 돌아가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을 짓는다. 두 작품은 임금을 사모하는 정성을 남편과 이별한 여인의 심정에 의탁하여 노래한 가사이다. 이 작품들은 뛰어난 우리말 구사와 세련된 표현으로 가사문학의 최고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밖에도 정철은 修己(수기)를 위하여 창작한 작품의 수가 적지 않다. 그 한 예로 不善不能改(불선불능개 : 고쳐야 할 것을 고치지 못함)에 해당하는 작품인 <已斷酒(이단주)>가 있다. 정철은 술로 인하여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술로 인해 탄핵까지 받았을 정도였다. 그는 스스로도 술로 인한 실수가 잦고,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술을 끊기도 어렵고 자제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이단주>를 지어 스스로를 경계하였다.

또한 정철은 항상 새해가 되면 新年祝(신년축)이라는 동일한 제목의 작품을 짓기도 하였다.

그 의미 그대로 새해의 다짐을 뜻하는 신년축을 씀으로써, 그는 술에 대한 자제와 학문에 정진하기를 바라는 마음 등을 작품 속에 담아내었다.

《참고문헌》

김진옥, 『松江 鄭澈 文學의 再認識』, 역락, 1999, pp.15-69

정재호·장정수, 『송강가사』, 신구문화사, 2006, p.17

전영진, 『한국 고전문학선 송강가사 다산시선』, 홍신문화사, 1995, pp.10-12

5. 정철(松江)의 작품 세계

20151132 주서현

정철의 작품세계는 크게 현실지향과 탈현실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현실지향은 임금에 대한 사모의 정과 현실정치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나있다. 또 유교의 원리로 이루어진 현실적 질서를 인정하고 이상적 세계를 이루고자 하는 이성 중심의 의식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탈현실은 멋진 경치가 이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자연으로 돌아와 몸을 의지하겠다는 의식이 구체화되어 나타나있다. 다시 말하자면 관념상에서나마 자유로워지고자 했던感性 중심의 의식이라 볼 수 있다. 탈현실의 욕구가 겉으로 드러나게 될수록 내면적으로는 현실지향의 욕구가 보다 심화되는 사실을 정철의 작품 속에서 느낄 수 있다. 상반되는 성격의 의식으로서 부딪힐 가능성이 있지만, 정철의 문학에 있어서는 서로 보충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른 작품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정철의 경우처럼 행복한 조화를 이루는 경우는 드물다.

정철의 <속미인곡>과 <사미인곡>은 임금을 뜻하는 ‘님’을 사모하는 여성이 화자가 되어 노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금에 대한 사랑과 충심(연군지정)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모하는 객체와 주체가 상하 관계에 놓여있는 점도 볼 수가 있다. 여기서 중세적 질서가 변하지 않는 것을 지향한다는 주제 의식이 드러난다. 작품에 등장하는 과객과 주인은 진지한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를 모색하는 작가의 분신과도 같다.

그의 또 다른 작품인 한시 <도영유현>에는 임금과 신하가 직접적으로 등장한다. 이는 사대부들에게 현실적인 삶터로 생각되던 임금을 정점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당시 정치판을 보여 주고 있다. 당대의 기회주의적 사대부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도피처로서, 현실과 대비되는 관념적 자연이었음을 감안한다면 그 한계성 역시 분명히 드러난다.

또한 <성산별곡>에서는 이상세계의 지향을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는 자연사로 ‘천공’이 지배하는 자연현상과 경치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사로 ‘하늘’이 중심이 되어 지배하는 인문적 현상이다.

정철은 복잡다단한 삶을 살았고, 그것이 그대로 그의 문학에 반영되어 있다. 복잡다단했던 삶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현실에 대한 그의 집착이 대단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는 관직에 있었을 당시 당쟁에 휘말려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으면서도 쉽게 좌절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현실에서 이상적인 정치를 펼쳐 보는 것이 그의 포부였기 때문이다.

한편 정철은 술을 좋아해서 술에 관련된 일화 또한 많이 남겼다. 하지만 술을 경계하라는 글로 술의 폐해를 이야기하며,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내용의 글도 남겼다. 이런 글을 통해 억압 받는 현실의 괴로움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참고문헌》

정철, 『송강 정철 시선』, 평민사, 1993, pp.119-126

최규수, 『송강 정철 시가의 수용사적 탐색』, 월인, 2002, p.159

6. 정철(松江)의 대표 작품 및 분석

20151133 한경은

<관동별곡>에 나타난 정철의 위정자의 책임과 개인적 욕망

관동별곡은 정철이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을 받고난 후 관동지방의 절경과 그의 유교적 충사상을 담은 작품이다. 정철만의 문학적 방법으로 관동 산수의 아름다움과 형상을 표현하며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해준다. 자연의 감상을 위주로 전개하다가 꿈에서 신선과의 만남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후 꿈에서 깨어나는 결말로 구성 되어있다.

작품 전체에서 정철의 위정자적 책임과 강호에 머물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의 갈등이 나타난다. 갈등은 꿈속에서 신선과 술을 나눠 마시며 해결 된다. 신선은 정철에게 “이 술을 가져다가 백성들을 모두 취하게 만든 후 다시 만나 한 잔하자”라고 말한다. 이는 정철이 관찰사로서의 책임을 다한 후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고, 현실의 세계에서도 만인을 자연에 취하게 하고 싶다는 정철의 마음 또한 엿볼 수 있다.

<사미인곡>에 나타난 정성과 사랑의 표현

사미인곡은 임에게 버림받고 홀로 지내고 있는 화자가 님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내용이다. 이 작품에서 정철은 임금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자신을 남자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성으로 설정하여,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화자는 임에게 봄에는 매화, 여름에는 비단옷, 가을에는 청광, 겨울에는 양춘을 보내고 싶어 한다. 겨울을 이겨 내고 피어나는 매화를 봄에 보내는 모습에서 임금을 향한 정철의 변함없는 충성심을 표현했다. 또한 정철은 비단옷을 보내며 받는 사람인 임금의 품위를 높였고, 가을에 청광을 드리며 임금의 덕이 온 세상에 미치길 바라고 있다. 그리고 겨울에 양춘을 보내면서 임금을 향한 정성과 사랑을 보여준다. 화자가 보내고 싶어 하는 것들은 물질적인 의미를 떠나 화자의 마음을 담고 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임금에게 자신의 충성과 순수한 정신을 보내고 싶어 하는 정철의 뜻을 볼 수 있다.

<속미인곡> 소극적인 을녀를 위로하는 갑녀

속미인곡은 화자의 임에 대한 그리움과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두 여인의 대화로 이루어진 가사로 갑녀가 임을 그리워하는 을녀를 위로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을녀 중심 화자로 임에 대한 일편단심을 보여주고 있다.

작품 속에서 을녀는 임을 만났다는 것이 현실인 줄 알았지만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허무한 마음에 창문을 열어 달을 보았고, 어디든 비칠 수 있는 달이 되어서 임의 창에 비추길 기원한다. 갑녀는 이러한 을녀에게 차라리 굶은비가 되어 임의 창가에 뿌리라며 위로한다.

갑녀의 위로는 작품을 더 처량하고 슬픈 분위기로 조성한다. 갑녀는 왜 굶은비가 되라고 위로했을까? 달빛은 시각적인 자극이므로 눈을 감으면 자극을 느낄 수 없지만, 굶은비는 청각적인 자극이기 때문에 눈을 감아도 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갑녀는 소극적인 태도인 을녀에게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기를 원하며 굶은비가 되길 위로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정재호·장정수, 『송강가사』, 신구문화사, pp.93-174

윤영옥, 『송강 고산 노계가 찾아든 산과 물 그리고 삶』, 새문사, p.27

7. 정철(松江)의 평가 및 의의

20151126 이세훈

우리는 정철(鄭澈)을 가사문학의 대가로 알고 있지만, 정철은 극과 극의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정철은 <속미인곡>, <사미인곡>, <성산별곡>, <훈민가> 등 수많은 가사와 시조를 지어 한국 문학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겼다. 이렇듯 가사문학의 대가로만 알려져 있는 것과 달리 사실 그는 치열한 정치 현장에서 온 몸으로 상대 당파에 맞섰던 정치인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 그 대표적으로는 기축옥사(己丑獄事)를 들 수가 있다.

기축(己丑)년에 정여립(鄭汝立)의 옥사가 있었는데, 임금이 정철을 위관(委官)으로 삼아 옥사를 다스리게 하였다. 정철은 이를 기회로 삼아 동인 세력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정여립의 모반 사건을 확대하였다. 이로 인해 정철의 주도 아래 많은 동인들이 심문을 받다가 죽임을 당했으며, 영의정 노수신(盧守愼)과 우의정 정언신(鄭彦信), 직제학(直提學) 홍종록(洪宗祿) 등 동인의 핵심 인물들은 파직되었다. 비록 결과만 보자면 정철의 정치 역정이 잔인하고 간사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의 정치 역정은 오로지 그가 속한 서인당을 위한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정철의 강한 정치적 소신을 엿볼 수 있다.

또 그는 평소에 왕이 염려할 정도로 술을 좋아하였다. 건저문제(建儲問題)를 둘러싼 동인의 책략에 의해 정철이 선조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는데, 오죽하면 그를 귀양 보내기 위해 ‘대신으로서 주색에 빠져 있다’는 것이 명분의 하나로 내세워질 만큼 그는 술을 좋아하였다. 그리고 복잡하게 전개되던 서인과 동인과의 당쟁은 물론 직선적이며 타협을 모르던 그의 성격이 귀양의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정치 현실에서 맛보아야 했던 영욕의 즐거움과 쓰라림, 명철보신(明哲保身)의 일환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자연에의 귀의(歸依), 괴로움의 도피처로 생각하던 술과 풍류 등은 그의 문학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그의 문학세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생애를 먼저 고려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정철은 복잡다단한 삶을 살았고, 그것이 그대로 문학에 투영되어 있음을 그의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다. 복잡다단한 삶을 지속했다는 것은 현실에 대한 그의 집착이 대단하였음을 입증한다. 당쟁에 휘말려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으면서도 쉽게 좌절하지 않을 만큼 현실에서 이상적인 정치를 펼쳐 보는 것이 그의 포부였다. 그는 한문학과 국문학 모두에 달통해 있었다. 특히 세련된 일상어로 창작된 국문노래들은 국문학사상 유례없는 수작들이며, 그것들은 우리말이 지닌 문학어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그가 남긴 다수의 문학 작품은 지금도 곳곳에서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 내용이 지나치게 왕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고 체제 순응적인 면이 강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수려한 필체와 표현력은 우리 문학의 수준을 높이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정철은 누구보다 감성적인 면이 많이 강조되는 문학가로, 또는 반대로 감성을 배제한 이성적인 정치가로서 두 가지 면을 두루 보여준 인물이었다. 어느 것이 진짜 그의 모습인지는 알 수 없다. 지금도 그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엇갈리긴 하지만, 시대를 치열하게 살았던 인물임에는 틀림없었다.

《참고문헌》

김진옥, 『송강 정철 문학의 재인식』, 역락, 1999, pp.16-26

8. 관동팔경(關東八景), 망양정과 경포대

20141139 현 진

■ 망양정 :

정면 3칸·측면 2칸, 팔작지붕 구조의 누각이다. 망양정은 예부터 아름다운 풍광으로 유명하여 정철과 김시습 등 유명 인사들이 이곳에 들러 풍광을 즐겼다. 그리고 많은 선비들과 벼슬아치들 또한, 망양정을 감탄하며 시와 글을 지었다. 특히, 조선조 숙종은 겸재 정선의 <관동팔경>을 보고 망양정이 가장 낫다고 하여 친히 ‘관동제일루’라는 편액을 하사했다.

망양정을 비롯한 관동팔경은 오랜 세월 시인 묵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은 곳으로,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 겸재의 <관동팔경> 등 수많은 시와 화폭 등에 담겼다.

■ 경포대 :

정면 5칸·측면 5칸, 팔작지붕 구조의 누정(누각+정자)이다. 경포대의 기둥은 48개로 이루어져 있고, 마루는 높이가 각각 다른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마루의 세 부분 중 제일 넓은 1층은 무대로, 2층의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는 장소로, 3층은 술과 안주를 준비하는 곳으로 쓰였다.

경포대 내부에는 율곡 이이가 10세 때 지었다는 「경포대부」를 비롯하여 숙종의 어제시, 조하망의 상량문 등 여러 명사의 글이 걸려있다. 경포대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곳이었는데, 송강 정철은 <관동별곡>에서 경포대를 관동팔경 중 으뜸이라 했다. 또한, 조선조 태조와 세조는 친히 이 경포대에 올라 사방의 경치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 망양정



▲ 경포대

《참고자료》 문화재청 [www.cha.go.kr]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kto.visitkorea.or.kr], 강릉시청 [www.gangneung.go.kr]

진군청 [www.uljin.go.kr]

최육철, 『역사 속 의미를 찾아 떠나는 관동 팔경』, 강원미래연구소, 2007, pp.31-94

8조- 헌화가

1. 헌화가의 배경설화-미인에게 꽃을 바치며

20141127 오유나

<헌화가>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견우노옹(牽牛老翁)이 지은 노래다. 산과 바다가 그림처럼 펼쳐져 있는 동해변을 무대로 하여 아름답기 이를 데 없는 수로부인(水路夫人)과 암소 고삐를 잡고 있는 한 노인이 우연히 만나 서로 주고받은 대화가 대단히 푸근한 것이어서 강한 인상을 던져 주고 있다. 자세한 배경설화는 다음과 같다.

성덕왕(聖德王, 702~737) 때, 동해를 끼고 굽이쳐 나간 길, 그 길을 순정과 부인 수로와 종자를 거느리고 가고 있었다. 그는 강릉태수(지금 명주)로 임명되어 가는 도중이었다. 가다가 어느 바닷가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그 옆에는 돌 봉우리(바위 절벽)가 병풍과 같이 바다에 맞닿아있었는데 높이가 천 길이나 되었으며, 그 위에는 철쭉꽃이 만발해있었다. 순정공의 부인 수로가 이것을 보더니 옆 사람들에게 “꽃을 꺾어다가 내게 줄 사람은 없는가?” 물었다. 그러나 모시는 사람들이 모두 “거기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입니다.”하고 난색을 표하며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이때 암소를 끌고 곁을 지나가던 늙은이 하나가 있었는데 부인의 말을 듣고 바위 절벽위로 올라가 부인이 탐낸 철쭉꽃을 꺾어왔다. 그리고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부인에게 꽃을 바쳤다. 그러나 그 늙은이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었다. 노인이 꽃을 바쳤기에 <노인헌화가>라 하기도 하고, 척축화(철쭉꽃)를 참꽃(진달래)으로 보아 <참꽃노래>라 하기도 한다.

이 배경설화는 승려 일연이 동해안 지역에서 수집한 것을 『삼국유사(三國遺事)』 「기이편」 수로부인조에 수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헌화가 배경설화」는 산간지방의 꽃노래 형태의 민요가 산신신앙과 합쳐지면서 산신제의가요로 상승작용을 한 4구체 향가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야기는 산신설화의 모티브를 유지한 것으로 꽃을 매개로 하여 비범한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일연, 『삼국유사(三國遺事)』, 문화사, 1983, pp.123-124

박노준, 『향가』, 열화당, 1991, p.26

이임수, 『향가와 서라벌 기행』, 박이정, 2007, p.149

장정룡(집필자), 디지털강릉문화대전 중 ‘헌화가 배경설화’

([http://gangneung.grandculture.net/Contents?local=gangneung&dataType=98&callFunc=goSearch\(%3B&keyword=%ED%97%8C%ED%99%94%EA%B0%80\)](http://gangneung.grandculture.net/Contents?local=gangneung&dataType=98&callFunc=goSearch(%3B&keyword=%ED%97%8C%ED%99%94%EA%B0%80)))

김명준, 「중세시가론 강의자료집」, 한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pp.12-13

2. 현화가 원문 및 해독

20151116 박지은

紫布 岩 乎 邊希

딤배 바호 호 𨮒해

執音乎 手 毋牛 放 敎 遣

옴口운 손 암쇼 놓 이시 고

吾盼 不喻 慚盼伊賜等

나홀 안디 붓글이시든

花盼 折叱可 獻乎理音如

꽃홀 것사가 받오리--다

「해석」

紫布 : ‘딤배’의 어원 분석을 통해 ‘딤-’은 현대어의 ‘질-’에 대응하며, ‘-배’는 ‘새붉~새배’의 전이 현상과 동일하게 ‘붉’에서 변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질은 붉은 색’이 ‘자주 색’이라는 설명은 매우 근사한 해석인 것이다.

岩乎 : 중세어로는 ‘바회’이나 본 어형에서는 ‘乎’가 ‘호’내지 ‘오’의 표기임이 분명한 이상, 쓰여진 향찰에 충실하려면 ‘바호/바오’로 읽을 수밖에 없다.

邊希 : ‘𨮒해’로 읽는 데 별 문제는 없다.

執音乎 : ‘執’이 단순히 ‘잡다’라는 뜻에서 좀 더 세분화 되어 ‘검잡다, 거머쥐다’의 뜻으로 쓰였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音-’을 충족시키기 위해 중세어 ‘우미다’의 선행형으로 추정된 ‘옴-’을 택하여 ‘옴운’으로 읽고자 한다. ‘옴킨, 옴겨권, 우무린/오무린’의 뜻이다.

手 : 이를 의존명사가 포함된 ‘손’(바의)로 볼지, 쓰여진 한자 그대로 ‘손’(手)으로 볼지가 논란거리이다. 하지만 전자로 보면 ‘소를 잡다’, ‘소를 도살하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후자의 의미인 ‘손(에서)’가 문맥상 자연스럽다. 그래서 필자는 후자의 입장을 취한다.

毋牛 : ‘암쇼’로 읽기에 족하다.

放敎遣 : ‘노히시고’로 읽고, ‘놓게 하시고’로 풀이 할 수 있다.

吾盼 不喻 慚盼伊賜等 : ‘나홀 안디 붓그리시든’으로 읽고, ‘나를 안 부끄러워하신다면’으로 풀이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花盼 折叱可 : ‘꽃홀 것가’로 읽고, ‘꽃을 꺾어’로 풀이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獻乎理音如 : ‘獻-’에 대해서는 양주동 이래 ‘받줍-’으로 읽었다가, 김완진에 와서 ‘받-’으로 수정되었다. ‘-音-’은 장음표기로서의 앞의 ‘-리(理)-’의 ‘-ㅣ’음을 길게 읽으라는 표시로 파악한다. 곧, ‘바도리--다’인데, 이것이 실제로는 ‘바도리이다’와 같이 발음되어 상대존대 선어말어미 ‘-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신재홍, 『향가의 해석』, 집문당, 2000, pp.70-76

3. 현화가 분석 -노인과 수로부인을 중심으로

20151107 김유나

대부분의 우리나라 작품들 속 미인은 이념적 교화가 맞물려 순수한 아름다움을 표상하지 못하고, 그 신선미가 덜하다. 반면, 현화가에 얹힌 수로부인은 사랑의 순수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전자보다 훨씬 인간적이며 사랑의 자유를 드높이는 쪽에 가깝다. 특히, 인간의 사랑에 국한되지 않고 신들의 동참으로 초월적인 세계로까지 아름다움이 극대화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수로부인의 이야기에는 신조차 미인을 탐하는 모습이 담겨있는데, 이는 수로부인의 미모를 강조하는 효과를 가진다. 그리고 그런 절대 미를 가진 수로부인은 물론, 이야기 자체를 아름답게 꾸며주는 노래가 바로 현화가이다.

수로부인은 신라에서 가장 뛰어난 미모를 지닌 여인으로 표현된다. 그녀의 이름인 수로는 곧 물길인데, 물길은 막을 수 없는 것이 자연의 섭리인 것처럼, 그녀의 욕구 역시 흐르는 물과 같은 자연적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섭리는 사회적 가치나 인륜적 도덕을 초월한다. 그런 그녀가 지향하는 꽃은 그녀 자신이며, 사랑의 성취이고 욕정의 투사라고도 할 수 있다. 이 꽃은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연계시키고 그들의 행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이다.

목숨과 결부될 수 있는 꽃에 대해 다른 이들이 소극적인 반면, 노인은 기꺼이 꽃과 노래를 바친다. 다만, 그에게 문제가 있다면 손에 쥔 암소의 고삐다. 노인의 암소는 그의 본부인이나 농부인 그의 현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그토록 중요한 암소를 버리고, 꽃과 부인을 취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인의 마음으로 표현되는 노래에서 그는 부인에게 부끄러움을 버릴 것을 종용하며 원초적 지향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꽃이 부인의 욕정을 투사한다는 점, 또한 노인이 순정(순수한 정조)공과 대립되는 인물이라는 점 등을 보았을 때에도, 노인은 사회적 맥락으로 부정스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에 대한 해석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수로부인의 미모가 뛰어나 심산대택(깊은 산과 호수)을 지날 때 신물들에게 피납(납치)된 적이 여러 번이었다’는 내용을 토대로, 이미 등장한 수신(용)을 제외하고 남은 산신을 그로 보는 가설이 있다. 노인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과, 인간으로서는 오르지 못할 곳을 오르는 점, 노인, 곧 할아버지라는 말이 한국의 민속적 문맥 속에서는 신을 지칭한다는 사실이 이 가설을 뒷받침한다.

신들에게 있어 인간들의 사회적 규범은 관심 밖이다. 또한 그들은 사회적 질서의 수호자로서 고안된 것이 아니므로, 노인은 부정한 사람이 아니게 된다. 또한 이런 신들의 입장에서 수로부인은 그저 어여쁜 일개 여인으로 비취지며, 노인은 꽃을 꺾음으로써 부인을 꺾은 것이고 그를 탐한 것이 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수로부인은 희생자로, 순정공은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신들의 횡포 앞에 나약한 인간이 된다.

《참고문헌》

나경수, 『향가의 해부(한국시가문학의 원형을 찾아서)』, 민속원, 2014, pp.317-346

4. 헌화가의 특징

20151117 박해인

헌화가의 특징은 수로와 노인이 만나는 장소는 초록과 자주, 푸르름과 붉음이 서로 어울려 강렬한 시각적 효과를 더한다는 점이 있고 대화 또한 우리를 심미적 정서의 자장 속으로 넣어버린다는 점이 있다. 그리고 발화내용과 발화행위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이 있다. 시의 화자인 노인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적 민속학적 관점 등 다양한 인접 학문을 통해 노인을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왔고 그 결과 단순한 노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면서 선승, 산신, 신선, 촌로 등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노인에 대해서는 검토가 허용치를 넘는 과대 해석의 징후까지 보인다. 이에 비해서 시의 청자인 수로에 대해서는 무너라고 추정하는 논의가 있을 뿐이고 수로부인에 대한 검토는 지나치게 간략하거나 아예 없다는 점이 있다. 노인은 어쨌든 한 남자, 수로는 한 여인의 초상이 되어 헌화가에 등장하는 꽃을 오늘날의 통념대로 사랑의 표상으로 받아들인다면 헌화가는 애정 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꽃에 대해서도 다채로운 견해를 보이고 일반적 통념에서는 애정이나 성과 관련한 것에 머물지 더 이상의 개진을 보이지는 않지만 내면의 층위에서는 천상과 현실, 추상과 구체의 두 세계를 잇는 통로이다. 노인과 수로부인의 만남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사건이나 신통력을 지닌 인물이 실제의 공간에서 역사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인물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며 설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서사적 장치이다.

원문의 가사 단위 그대로인 3행시로 읽을 때 각 행에 구사된 언어와 그 언어들이 배열에 주목하면 또 하나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헌화가에 나오는 구절 중 “아니 부끄러워하시면”은 현실과 이상의 세계를 소멸시키려는 화자의 의지인 동시에 청자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태도의 구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구사된 도치법은 의지를 더욱 강조하는 수사 장치이다.

헌화가와 그와 관련된 설화가 서정적 느낌을 풍기지만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이나 자연에 대한 태도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구석도 많다. 꽃을 꺾어 바치는 노인은 누구이며 꽃을 바치는 사람이 왜 하필 노인인가 등이 있다. 더욱이 관련설화의 연구에 있어서도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연구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설화 자체의 해석에도 오류가 발견된다. 꽃이라는 사물로 인해 노인과 수로부인은 전류가 통하고 그것을 엿보는 발화 행위의 주체와 노래의 향유자는 쾌적한 미적 체험을 경험하게 된다.

《참고문헌》

이종대, 『새로 읽는 향가 문학, 아세아문화사』, 1998, pp.114-117, pp.126-129

5. 헌화가 평가 -사랑스런 감정과 근접성

20141103 고은지

<헌화가>를 사랑의 시라고하기에 어색한 부분이 있다. 지은이가 노인이라고 가정할 때 너무 늙었을 뿐더러 시적 대상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뚜렷이 드러나 있지 않다. 그렇더라도 이 작품 역시 사랑을 주제로 한 시이다. 시골 노인이 귀족 부인에게 꽃을 꺾어주면서 은근하게 사랑의 감정을 표현한 작품인 것이다. 청춘 남녀 사이의 열정적, 충동적 사랑과는 다른, 그윽하고 공감 어린 사랑이 그려져 있다.

<헌화가> 속 벼랑위의 꽃은 서라벌 귀족에게는 거리감을, 지방민에게는 친근감을 주었고, 서라벌 귀족의 행차는 지방민에게 거리감을 주는 광경이다. 제3행에는 수로 부인이 시적 화자인 ‘나’를 부끄러워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염려가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서울 귀족과 지방 평민 사이의 신분적 거리, 꽃에 대한 세련된 감각과 일상적 감각 사이에 놓인 미감의 차이, 나이든 노인과 귀족 부인 사이의 연령상 간격 등이 가로 놓여 있는 것이다.

이 작품에는 제1행에서 제4행에 이르기까지 멀리서 가까스로 다가가는 정서적 흐름이 있다. 꽃을 꺾어 바친 일은 시적 화자의 입장에서는 늘 가까이 두고 보았던 생활 속의 아름다움을 저 멀리 고귀한 곳에 있는 귀족 부인에게 헌정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한편, 수로 부인의 입장에서는 저 멀리 탐스럽게 피어 있는 자연의 꽃을 자신의 것으로 받는 수로 부인의 정서와 가까이 있는 꽃을 멀리 있는 수로 부인에게 헌정하는 시적 화자의 심리가 교차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수로 부인에 대한 시적 화자의 사랑스런 감정이 점차 거리감을 좁혀 간다. 애초에 엄숙한 서라벌 귀족의 행차에 대해 거리감을 갖고 바라보았다가, 꽃을 갖고 싶어 하는 수로부인의 마음을 보고 자발적으로 나섰고 상대방이 부끄러워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까지 넘어선 다음, 꽃을 꺾어 바친 것이다. 시적 대상에게 심리적, 정서적으로 점차 가까이 다가감을 ‘근접성’이라 일컫는다면, 이 개념으로써 이 작품의 시상의 전개 양상을 요약할 수 있다. 마침내 제4행에서 꽃을 꺾어 바치면서 시적 화자는, 부인에 대한 마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이에 이 작품이 은근한 사랑의 시임을 감지할 수 있다.

《참고문헌》

신재홍, 『향가의 미학』, 집문당, 2007, pp.412-417

6. <헌화가>와 <해가> 작품의 비교와 분석

20111135 이하늘

1. <해가>의 배경설화와 가사

(앞부분의 내용은 <헌화가> 배경설화에서 참조) 다시 이틀 동안 길을 가다가 바닷가 정자에서 점심을 먹는데 갑자기 용이 나타나 부인을 끌고 바다로 들어갔다. 순정공은 발을 동동 구르며 땅을 쳐보았지만 아무 방법이 없었다. 한 노인이 있다가 “옛 사람의 말에 여러 사람의 입은 쇠도 녹인다 하였는데 지금 바다짐승이 어찌 여러 사람의 입을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당장 이 경내의 백성을 불러서 노래를 부르며 몽둥이로 언덕을 두드리면 부인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순정공이 노인이 시키는 대로하였더니 용이 바다에서 부인을 데리고 나와 바쳤다. 순정공은 부인에게 바다 속의 사정을 물었다. 부인은 칠보 궁전에 음식이 달고 부드러우며 향기가 있고 깨끗하여 세상에서 흔히 먹는 익히거나 삶은 음식이 아니더라. “고 하였다.수로부인의 옷에도 향기가 배어 있었는데, 이 세상에서 맡을 수 있는 향기가 아니었다. 수로부인의 자색과 용모가 절대가인이어서 깊은 산이나 큰못을 지날 때마다 여러 번 신에게 잡히었다. 여럿이 부른 해가의 가사는 이러하다.

<해가>

龜乎龜乎出水路 (귀호귀호출수로)
掠人婦女罪何極 (략인부녀죄하극)
汝若悖逆不出獻 (여약패역불출헌)
入網捕掠燔之喫 (입망포략번지깍)

거북아 거북아 수로부인을 내놓아라
남의 부인을 앗아간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는가
만약에 거역하여 내놓지 않는다면
그물로 너를 잡아 구어 먹겠다

2. <헌화가>와 <해가>의 유사성

두 작품의 유사성은 작품 속의 주체와 수신자 사이의 ‘교감’이다. <해가>속에서의 순정공 일행이 부임 도중에 지방민(노인)을 만나 그들과의 ‘교감’을 통한 문제 해결의 장면과 <헌화가>속 수로부인과 노옹의 ‘교감’, 즉 두 작품 모두 시가 속 주체-객체의 ‘교감’을 통한 문제 상황의 해결구도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두 작품에서 등장인물인 수로부인의 ‘아름다움’이 주변 인물의 행동을 야기하고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는데, 이처럼 두 작품 속 인물의 형상의 ‘아름다움’이 단순히 미적 대상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혹은 현실적 차원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러한 등장인물의 역할의 유사성을 통해 당대 신라시대의 미의식 또한 확인이 가능하다.

작품 속 성격의 차이가 있던 두 작품이 동질적인 창작배경을 가질 수 있던 이유는 이러한 두 작품의 유사성, 즉 ‘작품 속 주체와 객체사이의 교감’, 등장인물을 통해 알 수 있는 당대 신라시대 미의식, 또 수로부인 설화 속 내재된 서정성 <헌화가>와 정치성 <해가>의 복합적인 형태 때문이다.

3. <헌화가>와 <해가>의 차이점

두 작품의 두드러지는 차이는 성격의 대조성이다. <헌화가>는 개인의 적인 사랑의 정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해가>는 오랜 구비 전승물인 <구지가>의 구조와 비슷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헌화가>가 창작동기로서 서정성을 주된 바탕으로 삼고 있고, <해가>는 작품 속의 주술적인 부분과 정치성 관련 해석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또 수로부인 설화속의 두 작품은 각각 서정성과 정치성으로 지향하는 역할이 분리되어 있다. <헌화가>는 질박한 애정의 서정성과 연결되어있지만, <해가>는 주술성과 지배층과 지방민의 교감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정치성에 연결되어있다.

4. 작품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던 특징.

<헌화가> <해가>의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큰 특징은 두 시가의 향유층인 지방민에게 적용되었던 시가의 역할과 의미다. 두 시가는 당시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서정적 기능과 더불어, 문제 해결의 정치적 역할까지 지닐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단일 텍스트로 두 작품이 실현되지 않은 것은 시대적 한계라기보다 지방문화를 배경으로 한 전승담 속에서의 <헌화가>, <해가> 각자의 기능이 확연했기 때문일 것이다.

《참고문헌》

김명준, 중세시가론 강의자료집, 한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pp.12-13

서철원, 『향가의 역사와 문화사』, 지식과 교양, 2001,

7. 헌화가의 재해석 -미당 서정주의 「노인헌화가」

20111113 김주형

老人獻花歌

“불은 바위 스가에
잡은 손의 암소 놓고
나르 아니 부끄리시면
꽃을 꺾어 드리리다“

이것은 어떤 신라의 늙은이가
젊은 여인에게 건넨 수작이다.
(후략)

이 시는 미당 서정주 시인의 「老人獻花歌」라는 작품이다. 「노인헌화가」는 <헌화가>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작품인데, 삼국유사 기록에 ‘아무도 올라가 꺾을 수 없는 벼랑의 철쭉꽃을 마침 암소를 끌고 곁으로 지나가던 노인이 꺾어서 가사까지 지어 바쳤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 가사가 <헌화가>로 알려져 있다.

<6연~8연>

자기의 흰 수염도 나이도
다아 잊어버렸던 것일까?

물론
다아 잊어버렸었다.

남의 아내인 것도 무엇도
다아 잊어버렸던 것일까?

미당은 「노인헌화가」에서 노인의 마음을 “자기의 흰수염도 나이도”, “남의 아내인 것도 무엇도” 다 잊어버릴 수 있다고 표현했다. 과연 그 초인적인 힘,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벼랑의 철쭉꽃을 꺾어다 바칠 수 있었던 용기는 과연 어디에서 솟아나온 것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의 힘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러면 그 사랑은 또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것은 삼국유사의 기록에 실려있는 것과 같이, 수로부인은 그 용모가 매우 아름다워서 산이나 큰 연못을 지날 때마다 여러 차례 신물에게 붙들려 갈 만큼의 미인이었기 때문이다. 이 <헌화가>의 노인도 자신이 유일하게 소유한 것, 즉 ‘암소’를 놓아버리고도 꽃을 꺾어 바치겠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정열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그 사랑의 대상이 어찌면 소유 불가능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며, 거기엔 분명 짝사랑의 비애가 서려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는 자기가 소유한 것을 포기할 정도로 이미 약자의 위치에 있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처절한 사랑의 비애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비애의 마음은 수로부인이 “남의 아내인 것도 무엇도” 이미 망각해 버린 정도의 뜨거운 것이다. 그런 정열이 이 <헌화가>엔 스며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헌화가>의 정서를 다시 현대인의 의식 속에 스며들도록 시화한 것이 미당의 「老人獻花歌」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송하선, 『미당평전,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푸른사상, 2008, pp.301-305

8. 헌화가 유적지조사

20151121 이성규



▲▲ 해가사의 터(수로부인공원) & 임해정

위치

-강원 삼척시 증산동 30-23번지 일원(증산해수욕장 옆)

건립목적

-삼척시는 이곳에 신라향가 ‘해가(海歌)’와 ‘헌화가(獻花歌)’에 나오는 수로부인 공원을 지난 2003년 건립, 조성했다. 해가사의 터인 임해정은 『삼국유사 수로부인전』에서 전하는 “해가”라는 설화를 토대로 2010년에 복원하였으며, 해가사(海歌詞) 형상화의 경우 ‘삼국유사 수로부인전’에서 전하는 ‘해가’라는 설화를 토대로 이 가사가 불린 곳으로 고증된 증산동 바닷가에 임해정을 복원하고 기념비 등을 설치했다.

현황

-이곳은 현재 군사보호시설지구로 개발이 불가하여 주변경관이 수려한 인접지역인 증산동 해변에 조성되었다. 임해정 좌우로의 해변은 절경을 이루고 있으며 삼척시에서 바다를 끼고 있는 유일한 정자이다.

▼▼ 수로부인 헌화공원



위치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남화산

현황

2014년 삼척시는 높이 10.6m, 가로 15m, 세로 13m, 중량 500t에 이르는 수로부인 상을 설치했다. ‘해가’, ‘헌화가’를 배경으로 해 수로부인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수

로부인 상은 삼국유사의 ‘해가’, ‘헌화가’ 속 수로부인과 용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표현했다. 앞으로도 수로부인 공원에 수로부인의 남편인 순정공 동상을 설치하고 울릉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등의 편의시설과 체험시설을 더 만들어 동해안 최대 명물, 명소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참고문헌》

-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446502>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0069626>

- http://tour.samcheok.go.kr/02nice/02.jsp?amode=_viw&idx=125&type=_blank&cate=2

사진 출처

- <http://blog.naver.com/klbhs?Redirect=Log&logNo=40095936168>

- <http://blog.naver.com/lotto8723?Redirect=Log&logNo=220287334620>

한국문학탐방 참가자 연락처

| 구분 | 이름 | 본인 연락처 | 보호자 연락처 |
|-------|-----|--------|---------|
| 담당교수 | 이기인 | | |
| 인솔교수 | 김명준 | | |
| | 이병기 | | |
| | 박슬기 | | |
| | 유명희 | | |
| 조교 | 박예진 | | |
| 대학원생 | 윤 숙 | | |
| 학회장 | 오효석 | | |
| 부학회장 | 이지원 | | |
| 답사부장 | 이나래 | | |
| 인솔도우미 | 김태윤 | | |
| | 최성은 | | |

1조

| | | | |
|----------|-----|--|--|
| 20131109 | 김연수 | | |
| 20111130 | 이근재 | | |
| 20141124 | 서채린 | | |
| 20151106 | 김용섭 | | |
| 20151102 | 구현진 | | |
| 20151113 | 김혜빈 | | |
| 20151141 | 정해성 | | |
| 20151124 | 이윤지 | | |

2조

| | | | |
|----------|-----|--|--|
| 20111108 | 김승만 | | |
| 20141101 | 강윤아 | | |
| 20141129 | 이기일 | | |
| 20151110 | 김진경 | | |
| 20151120 | 우정민 | | |
| 20151125 | 이정수 | | |
| 20151138 | 박지우 | | |
| 20151142 | 조수현 | | |

3조

| | | | |
|----------|-----|--|--|
| 20141126 | 안혜린 | | |
| 20141120 | 박은지 | | |
| 20141128 | 유수호 | | |
| 20101123 | 오효석 | | |
| 20151103 | 김나연 | | |
| 20151114 | 김효정 | | |
| 20151129 | 장은영 | | |
| 20151128 | 장경성 | | |

4조

| | | | |
|----------|-----|--|--|
| 20111101 | 강덕원 | | |
| 20111120 | 박민철 | | |
| 20091102 | 김태윤 | | |
| 20131113 | 문소윤 | | |
| 20141113 | 김주민 | | |
| 20151131 | 정현아 | | |
| 20151109 | 김의영 | | |

| | | | |
|----------|-----|--|--|
| 20151122 | 이세은 | | |
| 20151123 | 이예빈 | | |
| 20151111 | 김진성 | | |

5조

| | | | |
|----------|-----|--|--|
| 20131137 | 지윤정 | | |
| 20131118 | 박 현 | | |
| 20141131 | 이소정 | | |
| 20151139 | 이경원 | | |
| 20151127 | 이준원 | | |
| 20151115 | 노이지 | | |
| 20151104 | 김나현 | | |

6조

| | | | |
|----------|-----|--|--|
| 20111136 | 장성은 | | |
| 20131130 | 이수진 | | |
| 20141109 | 김상연 | | |
| 20141121 | 박현경 | | |
| 20151118 | 송예지 | | |
| 20151134 | 홍봄희 | | |
| 20151136 | 구자현 | | |
| 20151108 | 김은비 | | |

7조

| | | | |
|----------|-----|--|--|
| 20131135 | 정지은 | | |
| 20131123 | 육소연 | | |
| 20141139 | 현 진 | | |
| 20141116 | 김희인 | | |
| 20151105 | 김솔비 | | |
| 20151126 | 이제훈 | | |
| 20151132 | 주서현 | | |
| 20151133 | 한경은 | | |
| 20151137 | 김강호 | | |

8조

| | | | |
|----------|-----|--|--|
| 20111113 | 김주형 | | |
| 20111135 | 이하늘 | | |
| 20141103 | 고은지 | | |
| 20141127 | 오유나 | | |
| 20151107 | 김유나 | | |
| 20151116 | 박지은 | | |
| 20151117 | 박해인 | | |

